



2015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우리는 사랑방문화클럽이다

발 행 인 | 정은숙

편 집 인 | 김보성

기획총괄 | 이영진

기획진행 | 박지훈, 정민혁, 유상진, 이종필, 조성란
김응탁, 오희영, 이현정, 이해경, 김연대

글·사진 | 김미아, 김형미, 이은영
조여일, 조진희, 최승은

디자인 및 인쇄 | 오피스라인

발 행 일 | 2015. 12

발 행 처 | 성남문화재단 www.snart.or.kr

©성남문화재단



2015
Club Sarangbang
Project Book

우리는 사랑방 문화클럽이다

01

프롤로그 : 생활 속의 예술, 예술 속의 생활

6 여는 글

우리는 생활예술을 향유하는 사랑방문화클럽이다

02

“우리는 사랑방문화클럽이다” -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12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개막식

18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전」

22 전시음악회

• 첼로포니아·로스아미고스·눌푸른색소폰앙상블

34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

• 밴드·국악·퓨전·클래식

48 현장스케치 -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 퍼레이드 前...

50 “생활예술을 향유하는 사람” - 「사랑방퍼레이드」

63 「사랑방문화클럽축제」 기획 워크숍

66 전시팀 워크숍 - 전문가를 만나다

79 춤 워크숍

82 사람 중심 축제, 빛속의 축제! 가슴 뭉클... - 임형수 퍼레이드 총감독

83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 사전 워크숍

85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평가회의

03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장르 열전

90 동일 : 클럽데이 - 커피와 음악이 있는 쌀롱콘서트

93 동일 : 클럽데이 - 여름이 노래하고 가을이 춤추래

96 동일 : 프라임밴드

99 동일 : 성남어쿠스틱페스티벌

102 동일 : 국악축제 혼

105 동일 : 공순이

108 동일 : 다문화예술아카데미

110 복합 : 품앗이소리바람

113 복합 : 오리뜰문화축제한마당

116 복합 : 시민과 가까이 하고픈 문화클럽한마당

120 복합 : 시민과 가까이 하고픈 문화클럽한마당 - 두번째 이야기

123 복합 : 오픈아트페스티벌 I - 五월에... 詩書畵展

126 복합 : 가을맞이 어울림한마당

128 복합 : 가을밤에 보내는 음악편지

130 복합 : 찾아가는 사랑방축제

132 창작 : 오픈아트페스티벌 II - The Classical Nude...

136 창작 : 책과 하는 어울림한마당

138 창작 : 시네마콘서트

142 장르별 코디네이터 보고서



우리는 사랑방 문화클럽이다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공헌프로젝트」

04

- 150 지역근로자와 함께하는 〈도시락콘서트〉
- 160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분수음악회〉
- 174 지역근로자와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
- 176 꿈나무들을 위한 미술교육 @ 태평3동 복지회관

사랑방문화클럽을 소개합니다

05

- 180 〈여섯줄사랑〉
- 183 〈도화지애〉
- 186 〈하이파이브〉
- 189 〈그린비남성합창단〉

성장하는 〈사랑방문화클럽〉

06

- 194 대구생활예술 축제를 다녀오다
- 197 2015 경기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 워크숍

에필로그 : 2016년 사랑방문화클럽 출범 10주년을 기대하며

07

- 202 2015년을 마무리하며 - 활동보고회
- 206 2015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출범하던 날
- 212 사랑방문화클럽에 부치는 편지 - 백만기 초대위원장
- 214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맞이하며 - 유상진 문화기획부 과장
- 216 에필로그 - 프로젝트북 시민작가



여는글

“우리는 생활예술을 향유하는 사랑방문화클럽이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생활예술 선도자 - 사랑방문화클럽

올해로 탄생 9주년을 맞이한 <사랑방문화클럽>. 지난 2007년, 30개의 클럽으로 정식 출범한 <사랑방문화클럽>은 2015년 현재 음악, 미술, 공예, 기행 등 다양한 장르의 226개 클럽들이 활동하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예술 선도자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2010년 민관 협력분야 국무총리대상 수상,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전통 문화브랜드 대상 수상에 빛나는 <사랑방문화클럽>은 올해 2015 <경기생활문화심포지엄>을 개최





해 경기지역생활예술 클럽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한 것은 물론, 일본과 네팔 등 아시아권 생활문화 담당자들을 초청해 생활예술 국제교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내년이면 정식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사랑방문화클럽>! <사랑방문화클럽> 역사가 곧 대한민국 생활예술 클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르 구분으로 날개를 달다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특히 올해는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이란 <사랑방문화클럽> 가운데 뜻이 맞는 클럽들이 모여 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는 것. 올해는 동일·융복합·창작으로 장르를 구분해 전문 코디네이터를 투입,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공연과 전시를 선보여 공연과 전시에 참여했던 회원들은 물론, 관람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이 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 해 동안의 결실을 맛보는 축제의 장 -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내년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그 어느 해보다 바빠 움직였던 <사랑방문화클럽>.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울동공원과 숲골문화광장 등 성남 각지에서는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펼쳐져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쌓은 기량들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올해는 기존 실내에서의 전시를 과감히 탈피해 울동공원 내 책테마파크와 야외조각공원에 액자 조형물과 18개의 전시클럽들이 작업한 클럽별 공동 전시 작품을 설치해 자연과 하나 되는 전시를 선보였고,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오후 4시마다 울려 퍼지던 <전시음악회>는 전시와 음악 그리고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호응을 얻었다.

분만 아니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사랑방퍼레이드>는 ‘생활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즉석에서 만든 가면을 쓴 클럽 회원들과 시민들이 울동공원을 돌며 퍼레이드를 펼쳤는데 비록 가을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퍼레이드에 참가한 회원들과 시민들의 열기만큼은 그 어느 해보다도 뜨겁고 강렬했다.





생활예술을 향유하는 사람... '우리는 사랑방문화클럽이다'

'우리는 사랑방문화클럽이다'라는 모토 아래 올 한 해도 성남 시민들의 생활예술 향유를 위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펼쳤던 <사랑방문화클럽>. <사랑방문화클럽>은 2006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3단계 1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사업-문화예술 창조도시 3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그 두 번째 해이기도 하다.



지난 9년 동안 양적인 성장은 물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 온 <사랑방문화클럽>.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남아있지만 철학자 스피노자가 '현재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면 과거를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에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고군분투하며 한층 더 성장한 <사랑방문화클럽>의 행적을 6명의 프로젝트북 시민작가들이 동분서주하며 취재했고, 여기 '2015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 북 - 우리는 사랑방문화클럽이다'에 오롯이 담아내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곧 과거가 돼 버릴 현재가 앞으로 더 성장·발전해나갈 <사랑방문화클럽>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생활예술의 인큐베이터, 성남시 시민들이 진정한 생활예술자로 거듭나길 바라며...



PART

02

“우리는 사랑방문화클럽이다”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율동공원을 포함해 숲골문화광장에서는 한 해 동안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한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메인테마는 ‘우리는 사랑방문화클럽이다’. 율동공원을 전시장 삼아 작품들을 설치해 근사한 볼거리를 제공했던 <사랑방문화클럽축제展>과 아름다운 선율로 가을날 오후를 더욱 운치있게 만들어주었던 <전시음악회> 그리고 빗속에서 펼쳐진 <사랑방퍼레이드>. 여기에 경기·인천 17개 시군에서 36개의 생활예술 클럽들이 참가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켜줬던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까지!
그 뜨거웠던 축제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개막식

10월 단풍이 들기 마지막 순간에 핀 사람들의 무리

일시_ 2015년 10월 6일 화요일 오후 5시 | 장소_ 울동공원 내 책테마파크 | 글·사진_ 조진희 시민작가, 선순남 <포토저널성남지국>

날씨는 가을스럽고 한낮을 넘긴 햇살은 부드럽다. 울동 공원에 도착하자 분위기에 맞는 음악 소리가 다정하게 나를 맞이한다.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텐트에서 한, 두 무리 떼로 몰려나오더니 왁자지껄하게 서로 사진찍기 놀이를 한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사진을 찍어 달라하고 나의 사진기 앞에 자연스레 포즈를 잡기도 한다.





시작을 알리고 인사를 마치고 빨간 옷과 파란 옷을 입은 무희(舞姬)가 맨발로 나와서 춤을 추고 검은 옷을 입은 무희(舞姬)는 꽃을 나누어주고 그 사이를 다시 하얀색 페인트를 칠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 어떤 내용인지 쉽사리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면 어떠랴. 나도 어느새 그 사람들을 따라 다닌다. 무희(舞姬)의 인도로 전시실로 들어서기 전, 물가에서 남녀 한 쌍과 악기가 한 팀이 돼 공연을 한다. 관중들은 하나같이 낮이나 갈 정도로 몰입한다. 순간, 사진을 찍는 사람, 찍히는 사람, 구경꾼이 모두 한 폭의 그림이 된다. 그리고 또다시 책 테마파크 야외공연장. 그 안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그 자체로 이미 가을이었으며, 근사한 전시이자 작품이었다. 이렇게 10월의 어느 멋진 저녁, 마치 한 폭의 가을 풍경화 같은 모습으로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그 막이 오르고 있었다.





드디어 막이 오른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자연과 예술 그리고 사람이 자아낸 풍경
“우리는 사랑방문화클럽입니다!”





울동공원 책테마파크 앞
야외조각공원에 설치된 액자 조형물





개막 퍼포먼스 **사람 - 살아있는 조각**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展」

일시_ 2015년 10월 6일 화요일 ~ 10월 10일 토요일 | 장소_ 울동공원 내 책테마파크 | 사진_ 정동주 <포토저널성남지국>







올해의 주제는
“사람(人)”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展」
‘예술’은 이미 ‘우리’입니다.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전시음악회 1 〈첼로포니아〉의 낭만여행

일시_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4시 | 장소_ 울동공원 책테마파크 야외공연장 | 글·사진_ 최승은 시민작가

작년과 재작년, 그러니까 2014년과 2013년 〈전시음악회〉는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본관에서 〈작가와
만남〉과 함께 열렸다. 올해는 미술작품 전시와 음악회의 분위기를 동시에 바꿔보고자 울동공원 책테마
파크에서 세 차례 전시음악회를 갖게 되었다. 야외공연이라 다소 소리가 흩어질 수 있으나 야외공연장의
울림이 좋아 외려 가을 낭만여행을 떠나는 기분이다. 연주회 전 리허설을 하는 동안 〈첼로포니아〉 단원
열 한명은 저마다 가을동화 속 주인공인양 부드러운 몸짓으로 가을햇살을 만끽하고 있었다.

오후 4시,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 박봉덕씨의 소개로 〈첼로포니아〉 지휘자 우영웅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첼로의 경우 실외연주가 많지 않으나 이곳 야외공연장의 울림이 좋아 색다른 경험이 기대된다고
한다. 도심과 가까운 공간, 이렇게 좋은 계절에 여러분과 음악을 나누게 되어 기쁘다는 말 속에는 〈전시
음악회〉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첼로포니아>는 2005년 창단된 첼로연주클럽으로 15명의 회원 모두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랑한다. 사람의 목소리를 닮은 악기, 첼로가 좋아 모인 그들은 연주 활동과 더불어 지역봉사에도 힘쓰고 있다. 첼로 앙상블은 낮은음자리표, 가운음자리표, 높은음자리표를 모두 활용한다. 그만큼 넓은 음역대를 갖고 있어 연주의 풍부함과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랑한다. 세계적인 교향악단 베를린필에도 12대의 첼로앙상블이 있다. 첼로가 다른 악기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첫 곡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 <첼로포니아>가 연주하니 다정한 연인이 어깨를 두르는 듯하다.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느새 서른 명이 넘었다. 레스피기의 '고풍스러운 무곡과 아리아 1악장 이탈리아나'가 이어지고 비발디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G단조' 전 악장이 뒤를 따랐다. 지휘자 우영웅 씨는 클래식 곡이라도 광고음악 등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라 친숙할 것이라 설명했다. 앞뒤로 대중적인 곡을, 중간에 클래식을 안배한 <첼로포니아>의 배려가 돋보인다. 클래식에서 팝까지,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반 정도 섞여있는 이 클럽은 사랑의 학교, 노인의 집 등 지역봉사활동도 겸하고 있다.

사실 <전시음악회>의 취지는 전시작품을 감상하러 온 관람객에서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생활예술 감상에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다. 미술과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까지 선물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축제를 완성하고 싶은 마음이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텐더'가 언덕 넘어 멀리 퍼져나가자 울동공원에 나들이 온 이들이 음악을 듣고 모여든다. '오빠생각', '고향의 봄', '아리랑' 등 '동요메들리'에 연주자들의 감성이 듬뿍 묻어나고 돌계단에 앉은 사람들은 가사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역시나 동요는 우리 가슴 속 고향이다.





클럽지기 조현순씨는 '브람스의 눈물'과 '보헤미안 랍 소디' 연주도 자랑할 만하다며 <첼로포니아>의 화목한 분위기와 따뜻한 연주를 강조했다. 플래카드를 보고 찾아왔다는 광주 신현리의 아현 엄마는 아기가 자라면 첼로를 가르치고 싶을 정도로 첼로연주가 매력적이라고 한다. 구미동에 사는 방예슬씨는 이매동 친정집을 방문했을 때 포스터를 보았다고 한다. 시간이 안 적혀 있어 직접 재단에 전화 후 시간 맞춰 왔다. 이렇게 좋은 행사에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추어 생활예술클럽의 공연이라지만 연주 수준은 프로의 그것 뺄치는데 말이다. 소수 정예의 청중이 앙코르를 외치자 '러브미 텐더'를 다시 연주했다. 첼로 선율이 가을 늦은 오후를 멋지게 장식하고 있는데 저기! 언덕 밑에서 한 아주머니가 언덕길을 달려오고 있다. 마지막 곡이어도 그녀에게 행복을 주기엔 모자람이 없었다.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전시음악회 2

단풍에 실린 감성연주, <로스아미고스>

일시_ 2015년 10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 | 장소_ 울동공원 책테마파크 야외공연장 | 글·사진_ 최승은 시민작가



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여문다. 바람은 어제보다 선선하고 햇살은 연약하다. 책테마파크 복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감상하는데 클래식 기타의 첫 줄 E음이 청아하게 울린다. 선율에 이끌려 몇 사람과 더불어 야외공연장으로 향한다. 마술피리를 따라가듯 별 밝은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 마침 그늘에 앉아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습하던 <로스아미고스>가 오후 4시, <전시음악회>를 위해 세팅을 시작했다. 열여섯 명이 두 줄로 빙 둘러 앉아 저마다 기타 튜닝을 위해 몸을 조아리고 있다.

<전시음악회> 시작과 함께 단원이 돌아가며 일어나 관객에게 인사를 한다. 지휘자 박종대씨는 지역주민이 원하면 어떤 환경에도 찾아가 연주한다며 <로스아미고스>의 수준 높은 연주 실력을 넌지시 귀띔했다. 클래식 아마추어 연주단체임에도 오랜 시간 함께 연습해온 덕에 정갈하고 품격있는 연주를 들려줄 것이라고 한다. 다가오는 11월 1일 제 17회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이날 연주 중에 클래식 몇 곡을 포함시켰다.



첫 곡은 보케리니의 '미뉴엣', 기타에 어울리는 상큼한 곡이다. 두 번째 곡은 영화 '엘비라 마디간'에 삽입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 셋잇단음표의 반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엇박자로 흘러 들어오는 멜로디가 아름답다. 기타로 4성부를 나누어 연주하니 소리가 그지없이 풍성하다. 건조하고 차가운 가을바람에 손가락이 굼은 연주자들이 제법 애를 먹는 모습이다. 실내에서 연주하면 손이 녹아 이런 어려움이 없으련만 한 곡의 연주가 끝날 때 마다 손을 불어 녹이는 모습에 좋은 음악을 거저 듣고 있는 청중은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다. 난데없이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바람소리, 주변 잔디밭에서 일하는 망치질 소리... 모든 것이 음악과 더불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즐길 줄 아는 <로스아미고스>의 분위기는 따뜻했다.



왈츠와 탱고, 마지막으로 귀에 익은 드라마 ‘하얀거탑’의 O.S.T가 끝나자 점점이 흩어져 앉은 남녀노소 모두가 앙코르를 외쳤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부부, 가족 나들이 온 사람들, 음악회를 위해 찾아온 지인과 주민들이 <로스아미고스>에 반한 것 같다. 마침 「사랑방문화클럽축제」를 벤치마킹하러 온 대구문화재단의 엄경훈씨와 김민희씨는 <로스아미고스>의 연주 실력에 감동받았다고 한다. <사랑방문화클럽>이 각 지자체마다 번지고 있는 생활예술 붐의 좋은 모델이라는 찬사를 덧붙였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울동공원 놀러온 불곡고 2학년 김채영 학생은 친구들과 책테마파크에 있다가 음악소리가 들려 왔으며 이렇게 좋은 음악을 우리끼리 들어서 아깝다고 한다. 시험 끝난 학생들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많이 오지 않았을까, 학생다운 참신한 제안이었다.

앙코르 곡으로 ‘오 솔레미오’가 연주되고 참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점차 높아지자 청중은 웃짓을 여미며 하나 둘 씩 흩어졌다. 광주 신현리의 고명석씨는 도로의 플래카드를 보고 이곳을 찾았지만 <전시음악회>를 하는지는 몰랐다고 가족이 함께 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단장 박경원씨는 홍보가 잘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싶지만 그래도 우연히 찾아온 이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아 보람되다며 뒷정리를 시작했다. 시월의 어느 멋진 날, 기타선율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행복하다. 짧지만 좋은 추억을 안고 야외공연장을 떠나는 이들의 뒷모습에 오후 햇볕이 주홍으로 뉘엿뉘었다.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전시음악회 3

바람 따라 낙엽 따라, <늘푸른색소폰앙상블>

일시_ 2015년 10월 9일 금요일 오후 4시 | 장소_ 울동공원 책테마파크 야외공연장 | 글·사진_ 최승은 시민작가



금관악기는 소리가 크다는 선입견이 있다. 사실이긴 하지만 연주 장소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넓게 트인 야외에서 색소폰 앙상블을 듣는다면 그것은 말에게 드넓은 벌판을 허락한 것과 비슷할 것이다.

10월 9일 한글날, 울동공원은 나들이 온 사람들도 북적였다. 마침 한글날 행사도 있어서인지 야외광장 무대엔 공연준비로 분주했다. 책테마파크에 들어서니 유난히 어린이들이 눈에 띈다. 달리고 공을 차고 연을 날리며 거침없이 웃는다. 오늘의 <전시음악회>는 <늘푸른색소폰앙상블>. 공연준비를 위해 클럽지기 김기덕씨가 반주기를 설치하고 있었다. 색소폰 합주와 독주를 합하여 1시간 30분가량의 프로그램을 준비한 터다. 가볍게 리허설을 하는 동안 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마침 김광혜 회원과 정혜정 회원이 악기를 꺼내는 참이라 그동안 색소폰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었다. 일명 써니 김으로 불리는 김광혜씨는 알토색소폰을 연주한다. 색소폰의 기본인 이 악기는 낮은 음역과 풍부한 소리를 자랑한다. 정혜정씨 회원의 악기는 테너색소폰. 호흡이 많이 필요하지만 기름진 소리가 매력 있다. 본래 악기를 좋아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색소폰을 시작했다는 회원 김광혜씨는 솔로 연주하기엔 무척 좋은 악기라며 생각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 적극 권한다.



〈늘푸른색소폰앙상블〉의 전체 회원은 약 스무명, 오늘 출연은 합주와 독주에 능한 십여 명의 실력자로 구성되었다. 첫 곡은 테너, 알토, 소프라노색소폰 합주로 영화 ‘놈놈놈’의 O.S.T와 ‘잊혀진 계절’, ‘만남’ 등을 연주했다. 야외공연장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첫 마디는 “멋있다”였다. 화려한 음원(MR)을 배경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추억의 가요를 듣게 되니 “멋있다” 소리가 나올 수 밖에. 게다가 연주자의 복장이며 매너가 예사롭지 않다. 자유로운 영혼, 색소폰의 낭만이 연주자의 안팎에서 풍겨 나왔다.

합주가 끝나고 독주가 시작되었다. ‘베사메무초’,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해변의 여인’ 등 귀에 익숙한 7080 멜로디가 그윽한 색소폰의 관을 타고 흘렀다. 전종국 회원이 아이리쉬 휘슬(Irish Whistle)로 ‘철새는 날아가고(EI Condor Pasa)’를 들려주니 원형극장 계단에 앉아 있던 가족, 부부, 연인들이 절절한 감상에 젖어드는 모습이다. 가수 이은미의 ‘애인...있어요’가 연주되자 잠시 잠깐 옛사랑을 추억하는 이들도 눈에 들어오는 듯 싶었다.



절정은 회원 최원수씨가 ‘Autumn leaves’을 연주했을 때다. 가을이 되어 낙엽은 뒹굴고 지난여름 사랑했던 당신은 떠나고 없다는, 바람 따라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을 그리워하는 가사가 떠오르며 청중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늘푸른색소폰앙상블〉의 연주를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이날처럼 멋진 연주는 처음이었다. 푸른 가을과 낙엽, 야외공연장의 울림과 쓸쓸한 바람 덕분에 더욱 빛난 연주회였다.

야외공연장의 주변을 맴돌던 분당동의 김지용씨 부부는 “참 좋다”를 연발하며 〈전시음악회〉가 어땠냐고 묻는 질문에 “어쩌면 이렇게 연주를 잘하냐”고 반문했다. 태재고개 〈어울림색소폰동호회〉 강희간씨는 음악을 워낙 좋아해 공연마다 찾아다닌다며 같은 색소폰 동호인 입장에서 참 잘한 연주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홍보가 잘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전시음악회〉를 찾지 못한 점이다. 책테마파크에서 작품을 전시한 〈은빛으로〉의 클럽지기 심인숙씨는 이렇게 좋은 행사에 홍보까지 활발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을 표현했다. 플래카드를 효과적인 곳에 부착하고 SNS를 통한 적극적인 행사홍보 등을 검토한다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을까, 몇 가지 의견을 내주었다.



히포크라테스의 명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처럼 삶은 빠르게 지나고 예술은 길이 남는다. 물론, 이때의 예술은 의술을 의미한다지만, 길어진 인간 수명을 고려할 때 의술과 예술 공히 인간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니 ‘인생은 짧고 생활예술은 길다’는 말이 새롭게 회자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

대한민국 생활예술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사랑방문화 클럽축제」 올해는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온 생활예술 클럽들이 성남을 찾아 축제를 더욱 빛내주었는데요, 바로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입니다.

올해는 경기·인천지역의 16개 시군에서 모두 36개의 생활 예술 클럽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과 기량을 뽐냈고 밴드·국악·퓨전·클래식 등 모두 네 개의 장르로 나눠 펼쳐진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는 그야말로 생활예술의 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경연의 장을 너머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

지금부터 감상해보실까요?



2015 경기·인천 생활예술클럽한마당 - 밴드장르 “우와~ 니네 엄마 밴드하는구나!”

일시_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12시30분 | 장소_ 율동공원 야외공연장 | 글·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사랑방퍼레이드>가 펼쳐지는 10월 10일 토요일은 비소식이 있어 <경기·인천 생활예술클럽한마당>의 4개 분야인 클래식·퓨전·국악·밴드 장르 중 밴드장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장르는 급하게 새마을연수원에서 치르게 되었다. <사랑방퍼레이드> 역시 동선을 대폭 줄여 율동공원 야외공연장 앞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모든 운영위원들과 재단직원들이 축각을 잔뜩 세우며 폭우에 대비 방안을 긴박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밴드장르 참가자들의 경연이 시작될 무렵인 오후 12시 반. 오락가락하던 비가 잠시 그치고 드디어 경연이 시작되었다. <비전콰이어> 대표이자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이기도 한 안예환씨가 사회를 맡았고 <여섯줄사랑>의 대표이자 사랑방문화클럽 기획팀장인 신용배씨가 진행과정을 체크하는 역할을 맡았다. 사회자에 의해 <밴드한마당>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임기용 사랑방명예위원장과 허진 한국소리터

예술감독이 무대에 올라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각 팀별 8분씩 주어지며 완성도 40, 호응도 40, 참여도 20으로 배점을 한다는 것. 경연자들 사이에서 살짝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막상 경연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경연을 떠나 축제에 참여한 자체로 즐기는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첫 번째 참가자는 구리시에서 온 <더프렌즈>(대표 이선우)로 이들은 조용필의 '잊혀진 사랑'과 '그대여'를 경연곡으로 선택해 불렀다. <더프렌즈>는 순수 직장인 밴드로 2012년에는 노원구 담벼락 축제, 구리시 코스모스 축제에 참여했고 2013년에는 구리시 유채꽃 축제, 고양일산 호수공원 장미꽃축제에 참



여한 경력이 있는 밴드인데 조용필의 노래만 선곡한 걸로 봐선 조용필의 팬이 분명할 것 같은 생각! 다음에 참가한 밴드는 화성시에서 온 <데이지밴드>(대표 정병구)로 이 밴드는 2013년에 창단해 화성시 문화재단에 소속된 동아리로 장르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화성시의 지역축제마다 열심히 참가하는 밴드라고 한다. 사랑방문화클럽과는 작년에 축제에 참가한 것으로 인연을 맺게 됐다며 이들이 경연곡으로 선택한 노래는 이글스의 'Hotel California'였다.





이진희씨가 대표로 있는 용인시 <하루밴드>의 선곡은 울랄라세션의 '달의 물락'과 마크 론슨 (feat. 브루노 마스)의 'Uptown Funk'. 이들은 창단한 이후 7년 동안 평택밴드 페스티벌, 신촌블루스 오프닝 공연, 용인거리축제, 자라섬 전국밴드경연대회, 평택밴드 페스티벌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경연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밴드는 <니네엄마밴드>(대표 백철기). 2014년 12월에 결성된 밴드로 통기타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주부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그룹사운드다. 7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검정색 교복을 입고 나와 서울패밀리의 '내일이 찾아와도'와 보니 타일러의 'It's a heartache', 이은하의 '돌이키지 마' 등 세 곡을 불렀는데 교복패션으로 등장해 편안한 느낌으로 연주를하자, 또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빗줄기 속에서도 관객들이 무대 앞까지 다가가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어지는 무대는 엄정화의 '포이즌'과 우연이의 '우연히'를 완벽하게 재연한 수원 출신의 <야간비행> (대표 김미진). 남양주시에서 온 <노래하는 풍선껌>(대표 홍정음)은 한스의 'Ummmbop'과 '토토가 모음곡'을 불러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고 군포시의 <딕시밴드>(대표 이경옥)는 'Just can't wait'와 'Bad case of loving you', 'Working for the weekend'를 불러 관객들의 흥을 돋우어주었다. 올해 <경기·인천 생활예술클럽한마당>의 밴드장르에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준 밴드는 <모아맘밴드> (대표 최순홍). 이들은 김창남의 '불새'와 소찬휘의 'Tears'로 마지막까지 뜨겁게 무대를 달궈주었다.

경쟁을 떠나 즐거운 커뮤니티의 장이었던 <경기·인천 생활예술클럽한마당> 밴드 장르. 경기도지사상에 <하루밴드>(용인시), 성남시장상에 <노래하는 풍선껌> (남양주시), 사랑방운영위원장상에 <딕시밴드>(군포시)가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15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 - 국악장르 북 장단에 마음이 춤춘다

일시_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12시30분 | 장소_ 새마을 연수원 2강의실 | 글·사진_ 조진희 시민작가

생활예술인들이 펼치는 공연을 보면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박자가 깨어난다. 특히 무대가 객석과 분리되지 않고 바로 눈 앞에 있을 때 국악의 장구나 북소리는 내 심장의 박자도 같이 움직이게 한다. 옛 우리의 가락이어서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가만히 있어서 자연스럽게 흥이 일어나고 물입이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국악의 매력. 내 앞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생활예술인들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그들이 연주하는 한 음, 한 음이 내 안의 나를 깨운다. 무대에 서서 공연을 막 시작할 때면 그들의 얼굴에 긴장한 티가 역력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페이스를 찾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어느새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들이 자신의 공연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나도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간다. 물아일체(物我一體)! 이것이 생활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순간 내 머릿속에는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공연 준비에 열심일까?’, 이런 우문이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이내 나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연습과 공연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 이들 생활예술인들에게 공연은 자아를 찾는 시간인 동시에 새로운 모습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도전인 것이다. 동동동! 그들의 북 장단에 맞춰 내 심장도 동동동! 그리고 내 마음도 동동동(動動動)! 춤추고 있었다.



2015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 - 퓨전장르 따로 또 같이, 감동을 자아낸다!

일시_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12시30분 | 장소_ 새마을 연수원 3강의실 | 글·사진_ 김미아 시민작가



오전 11시부터 울동공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경기·인천 생활예술클럽한마당>은 우천으로 인해 급히 새마을 연수원의 각 강의실에서 치르게 됐다. 밴드장르를 제외한 나머지 클래식·퓨전·국악장르 3개 부문의 경연을 펼칠 새마을연수원에는 행사 준비로 분주했고, 비가 내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 경기 지역과 인천에서 온 생활예술클럽 회원들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리허설에 참가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퓨전한마당>은 경기·인천 지역의 총 1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백만기 초대 운영위원장과 동서울대학 연기예술과 정지호 학과장, 이렇게 두 분의 심사로 진행되었다. 심사기준은 총 100점 만점에 작품의 완성도 40점, 관객의 호응도 40점 그리고 회원의 참여도가 20점. 관객의 호응도와 회원의 참여도 비중이 낮지 않아서일까? 한 팀, 한 팀 무대에 오를 때마다 뜨거운 환호와 함성이 이어졌다. 특히, 시니어 팀들이 경연을 벌일 때, 관객들은 더 큰 호응을 보내곤 했다.

<사랑방문화클럽>의 명예회원인 양희정씨의 사회로 진행된 <퓨전한마당>은 성남시의 청소년 힙합 동아리 <ASIAK(에이시악)>의 힙합 무대로 시작됐다. 관람석 맨 앞자리에서는 <ASIAK(에이시악)>의 부모님들과 친지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박수 치고 사진을 찍으면서 응원을 해주



었고, 힙합으로 시작한 무대는 조용한 발라드로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가감 없이 선보였다.

두 번째 순서는 이미 성남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벨리댄스로 명성이 자자한 <카밀라폴&벨리댄스>. 관객들은 이들의 화려한 무대에 눈길을 도저히 뗄 수 없는 듯 환호와 집중을 반복하며 공연을 감상했다. 이어지는 무대는 용인 시에서 온 <이분섬표>라는 통기타 밴드가 꾸며주었다. 깊어가는 가을에 어울리는 멋진 연주를 선보인 이들은 2002년에 결성된 시니어 밴드로 매년 30회 이상 공연하고, 여러 차례 수상도 했다. 화려한 경력만큼 연주 수준도 높았고 잔잔한 통기타의 연주에 맞추어 관객 모두가 하나가 되어 '뭉게구름'을 잔잔히 따라 부를 때는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밀려오기도 했다.



이어 4번째 순서는 2014년에 결성된 광주의 <제니퍼라인댄스>였다. 유산소 운동에 좋은 라인댄스 덕분일까? 모두

들 하나같이 늘씬한 몸매에 뛰어난 기량을 뽐내주었고 뒤이어 군포에서 온 <예랑하모니카봉사단>, 화성시의 <실버한마음하모니카>, 의정부 출신의 통기타 동호회 <따로또같이> 또 고양시에서 온 <오렌지통기타동호회>까지! 그야말로 열띤 경합을 펼쳤다. 특히 올해는 시니어 합주단과 통기타 밴드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모두들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지 그 노고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은 물론 각 공연의 완성도도 매우 뛰어났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팀, 한 팀이 공연할 때마다 이어지는 다른 팀들의 열띤 호응과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독려하며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였다.



한 편, 무대 밖 새마을 연수원 1층 로비에서는 <퓨전한마당>의 끝을 장식해 줄 9번째와 10번째 순서의 댄스 팀들이 맹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화려한 얇은 무대 의상을 입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드디어 실내에서 펼쳐진 8개 팀의 공연이 끝나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 야외무대를 감상할 차례! 9번째 팀인 화성시의 <해피나빌레라댄스스포츠>의 화려한 공연과 마지막 팀이자 10번째 참가자인 성남시의 <블루밍댄스클럽>이 눈에 띄는 오렌지색의 드레스와 멋진 가면을 쓰고 등장했다. 당당하고 매력적인 그들의 무대를 보고 모두들 입을 딱 벌릴 정도로 감탄했다.



올해 <퓨전한마당>에서는 <실버한마음하모니카사랑방>이 사랑방운영위원장상을, <블루밍댄스클럽>이 성남시장상을 그리고 <따로또같이>가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성남에서 열리는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에 참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부산히 움직였을 경기·인천지역의 생활예술클럽회원들. 그들이 펼친 무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뜨거운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2015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 - 클래식장르

조화와 단합으로 빛난 우리들의 음악회

일시_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12시30분 | 장소_ 새마을연수원 4강의실 | 글·사진_ 최승은 시민작가

가을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졌다. 날이 좋으면 울동공원 책테마파크에서 펼쳐질 공연이었다. 기상 탓에 새마을연수원으로 장소가 바뀌었지만 생활예술에 대한 지역단체의 호응은 높았다. 새마을연수원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사람과 자동차들로 행사의 열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각 강의실마다 장르별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클래식한마당>은 4강의실. 이미 강의실 안팎은 클래식 경연에 참가한 팀과 응원 나온 지인들로 북적인다. 팀마다 리허설을 한 후 심사위원인 <사랑방문화클럽> 명예위원 김용우씨와 성남시립합창단 단무장 박화일씨가 자리를 잡았다. 12시 30분, 경연을 알리는 사회자 김귀옥씨의 인사로 <클래식한마당>이 시작되었다. 작년 경연은 책테마파크에서 열렸기에 야외공연의 낭만이 있었다면 올해는 실내공연이라 외려 소리를 모을 수 있고 경연자 대기와 관람이 편리하다. 드디어 첫 번째 순서 <의정부하니원드앙상블>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음악이 못 말리게 좋아 모인 이 팀의 단원은 25명, 하지만 오늘 출연자는 지휘자까지 합하여 11명이다. 클라리넷과 트럼펫, 색소폰으로 이루어진 앙상블이라 소리는 우렁차고 다소 묵직하다. '밀양아리랑'과 '아리랑'은 재즈풍으로 마지막 곡 '아마데우스'는 관악에겐 다소 어려운 곡임에도 연주를 잘해주었다. 클라리넷의 아리랑 멜로디가 가슴에 와 닿는다. 아리랑은 역시 최고다.



두 번째 순서는 과천시 아카펠라동아리 <울타리강낭콩>이다. 2006년 동아리 창설 연 1회 정기공연과 다수의 찬조 및 행사활동을 해왔다. 노래를 사랑하는 20여 명의 단원이 찰떡 호흡을 자랑하며 공연뿐 아니라 봉사활동 또한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 그룹이다. 연주곡은 '러브', '장미', 'Mmm bop'이다. 클럽지기 임호영씨는 팀의 젊음과 활달함을 자랑했다. 비트박스도 멋있고 솔로의 유려함도 좋다. 화음이 매우 잘 맞아 듣는 이들의 입가에 미소를 자아냈다.



세 번째 순서는 성남시 <에듀플루트윈드오케스트라>다. 1997년 창단된 역사가 있는 클럽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정기연주회를 11회 개최하였고 봉사연주와 기금마련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20여명의 교사들로 구성된 덕분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을 전해주고 있다. 7명의 단원이 '마지막 왈츠' 등 세 곡을 연주하는 동안

청중은 플루트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음원(MR)을 활용하여 플루트의 단조로움을 채우며 리드미컬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네 번째 출연팀은 <드림인오카>. 성남의 초등학교 교사와 음악교사들의 모임으로 7가지 종류의 오카리나를 자유자재로 연주한다. 학교에서는 어린이의 인성교육에 힘쓰며 봉사연주도 열심히 하고 있다. 리듬과 화음을 적절히 배분한 뛰어난 편곡에 11명의 단원이 다양한 오카리나를 곡마다 바꿔가며 연주하니 마치 작은 오케스트라 같다. 연주곡마다 단순하지만 통일된 율동으로 보는 이의 마음까지 흥겹게 해주었다. 오랜 교직생활을 한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자유롭고 신선한 분위기다. 클럽지기





남미영씨는 클럽활동을 통해 배운 오카리나 실력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아이들과 공감의 장을 만들 수 있어 행복하단다. '도미니크'(7중주) 외 두 곡을 연주하며 풍성한 화음의 세계를 펼쳐주었다.

다섯 번째 순서는 인천시 <플룻양상블 라온>이다. 라온은 '즐겁다'는 우리 순수말로써 젊고 참신한 이 팀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즐거워진다. 플룻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순수모임

으로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올 해로 제 5회 정기연주회를 마친 이들은 'Mamma Mia' 등 네 곡을 연주했다. 특히 키보드 음원에 맞춘 깔끔한 연주가 호감을 주었다.

여섯 번째는 8명으로 구성된 <오카리나양상블다향>의 순서다. 인천에서 온 이 클럽은 리드미컬한 율동으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았다. 남성단원은 단 한 명, 검정색 의상과 모자가 돋보였다. 흘러간 옛 노래 '빈대떡 신사'(7중주) 외 두 곡을 들려주는 동안 음원 없이 오카리나 화음만으로 좋은 하모니를 들려주었다. 사회자 김귀옥씨는 옛 노래 '빈대떡 신사'를 이렇게 멋진 화음으로 연주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해 마지 않았다. 클럽지기 박상길씨는 직장에 다니며 매 주 화요일에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다며 겸손한 모습이었다.

일곱 번째 <분당챔버그린비그룹>은 <분당챔버오케스트라>와 <그린비남성합창단>, 두 팀이 합쳐져 만든 클럽이다. <분당챔버오케스트라>는 1996년에 창단, 30여 명의 단원이 마음을 합하여 병원, 교도소, 사회복지 단체 등을 찾아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그린비남성합창단>은 2013년 5월 창단, 그리운 선비를 칭하는 순수 우리말 '그린비'를 합창단 이름으로 지었다. 오케스트라 25명, 남성합창단 15명의 비교적 규모가 큰 이 클럽은 정지용의 '향수', 안토니오보첼리가 불러 널리 알려진 'Time to say good bye'를 들려주었다. 특히나 '향수'는 남성합창의 깊은 매력을 보여주었으며 음악감독 김승유씨의 다이나믹한 지휘도 보기 좋았다.





마지막은 화성의 <아마데우스클라리넷앙상블>의 순서다. 2013년, 인터넷 공고를 통해 클라리넷 배우고 싶은 단원을 모집한 이 팀은 배운 걸 꾸준히 연습하여 지역봉사와 자기계발에 힘쓰고 있다. 이들의 특색은 모든 곡을 오직 클라리넷만으로 연주한 점이다. 보통의 경우 솔로악기 하나로 앙상블을 할 때는 음원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마데우스클라리넷앙상블>을 이끌고 있는 박정미씨는 순수한 클라리넷의 화음을 들려주고 싶어서 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팀들의 수준이 높아 매우 놀랐으며 이번 경연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모든 회원이 입을 모았다. 순수 아마추어 클럽임에도 'The bridge on the river Kwai(콰이강의 다리)' 외 한 곡을 매끄럽게 연주했다.



심사위원 김용우씨는 지역 간 생활예술을 통해 실력과 즐거움을 나누는 모습이 훌륭하며 작년과 비교하여 참가팀의 수준이 높아졌

다고 평했다. 경연의 질적 향상과 적극적인 참여에는 관객 모두가 동의하는 바였다. 음악적 완성도뿐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와 단합심, 성실도와 열성 등을 고려하여 세 팀을 선발할 것이라며 두 심사위원은 그야말로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사회자의 끝인사로 <클래식한마당> 막이 내리자 참가팀 전원과 관객들은 다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삼삼오오 울동공원으로 향했다.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 퍼레이드 前 ...

사진_ 이은영 시민작가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

어느 덧 축제는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축제의 주인공!”



〈사랑방퍼레이드〉,
개봉박두(開封迫頭)!



사랑방퍼레이드

사랑방퍼레이드

생활예술향유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사랑방퍼레이드>! 보다 많은 클럽 회원들과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즉석에서 퍼레이드용 가면을 만들 수 있도록 각 종 재료와 공간을 마련했고 덕분에 울동공원으로 산책 나온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퍼레이드 시작과 함께 가을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야말로 우중(雨中) 퍼레이드가 됐지만 덕분에 오히려 더욱 돈독한 분위기에서 <사랑방퍼레이드>가 진행됐는데요, 여기에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직접 꾸민 자축 피날레 공연까지! <사랑방문화클럽>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행복했던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랑방퍼레이드 축제는 비를 타고...

일시_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 장소_ 율동공원 책테마파크 외 | 글·사진_ 조여일 시민작가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다. 아침부터 해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애를 태웠다. 오전에 큰비가 한바탕 소란을 피우며 지나갔으나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오후 내내 비는 내리지 않았고 묵은 숨 같은 구름만 이리저리 흘러 다녔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본 행사 전, 깜짝 이벤트가 있었다. 그동안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모은 의류, 가방, 신발 등을 권오석 본부장이 이끌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그린애플’에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됐던 것.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몇 달 간 모은 한 트럭 가량의 재활용품들이 ‘그린애플’을 통해 베트남 오지로 전달될 예정이라 한다. 올해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그야말로 10월의 산타가 되었다고나 할까?

그리고 잠시 후, 오후 4시 30분! 붐업콘서트와 함께 〈경기·인천 생활예술클럽한마당〉의 시상식이 사랑방문화클럽의 운영위원 김형미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시상식에 앞서 2014년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경기생활문화클럽한마당)〉에서 대상을 받은 〈소리파워〉의 난타 공연이 율동공원 야외공연장을 뜨겁게 달궜었다.





“<경기·인천 생활예술클럽한마당>은 생활 예술 활동을 하는 여러 지역 동호인이 교류하는 축제의 장입니다”라는 사회자 멘트와 함께 시상식이 시작됐다. 경기·인천 지역의 36개 클럽이 클래식·퓨전·국악·밴드 장르로 나눠 친목을 다지면서 실력을 발휘했다. 상상은 우위가 아닌 모범클럽에 주어졌다. 심사는 <국악한마당>의 정길선 사랑방명예위원장, 방승환 전통타악연구소장, <클래식한마당>의 김용우 사랑방명예위원장, 박화일 성남시립합창단 단무장, <밴드한마당>의 임기용 사랑방명예위원장, 허진 한국소리터 총감독, <퓨전한마당>의 백만기 사랑방명예위원장, 정지호 동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행사준비와 진행과정 그리고 클럽 회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심사위원들은 말했다.





사랑방문화클럽위원장상은 <실버한마음하모니카>(화성시)와 <딕시밴드>(군포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상은 <아마데우스클라리넷앙상블>(화성시)와 <태극무예단>(안성시), 성남시장상은 <노래하는 풍선껌>(남양주시), <국악사랑동당>(군포시), <드림인오카>(성남시), <블루밍댄스클럽>(성남시), 경기도지사상은 <분당챔버그린비그룹>(성남시), <따로또같이>(의정부시), <하루밴드>(용인시), <어사랑전통무용연구원>(용인시)가 수상했다. 각 각의 수상 팀이 불릴 때마다 클럽 회원들은 함성과 함께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갈채를 보냈다. 수상팀들은 생활예술을 통한 지역문화 나눔 활동에 공헌한 모범 클럽들이다.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드디어 오후 5시! 성남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 주최, 〈사랑방문
화클럽〉 추진위원회 주관 그리고 문
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후원하는 지역문화 대표브랜드인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대
단원을 장식할 〈사랑방퍼레이드〉와
폐막행사가 시작됐다. 이상했다. 고
요하던 하늘에서 〈사랑방퍼레이드〉
시작과 동시에 비가 쏟아졌다. 그러
나 그들이 누구인가! 지역을 사랑
하고 생활예술을 사랑하는 클럽 회
원들이 아닌가?



비 오는 하늘에 찬란한 일곱
빛깔 풍선이 수채화처럼 떠
올랐다. 그리고 행진! 행진!



〈사랑방퍼레이드〉에는 모두 1,800여 명의 경기·인천 생활예술클럽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했고 풍선 색깔에 맞춰 레드팀, 오렌지팀, 옐로우팀, 초록팀, 스카이블루팀, 블루팀, 퍼플팀으로 구성됐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가면을 쓰고 하얀 비옷을 입은 채로 신나는 음악에 맞춰 울동공원 야외공연장에서부터 책테마파크 앞 광장까지 행진하며 마음껏 기를 표출하는 사람들! 그들의 행진은 가히 장관이었고 내리는 비를 무색하게 했다.









그들의 행진을 마중이라도 하듯 어린이들로 구성된 <코리아주니어 밴드>의 멋진 공연이 한층 축제의 열기를 끌어 올렸다. 뒤이어 '복면가왕'이 무대에 올랐다. 복면을 쓴 <락&판> 클럽지기 이호덕씨가 '배 띄워라', '본조 아리랑'을 불러 울동공원 야외공연장은 축제의 도가니가 됐다. <버들피리음악봉사단> 클럽지기 이철문씨의 색소폰 연주에 뒤이어 <마틴팬더집스>의 이하윤씨가 '난 괜찮아', '환희'를 열창하면서 축제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색색의 조명이 무대와 가면을 쓴 관객들을 아름답게 비추었고 일곱 명의 <프리업엔터테인먼트>의 화려한 댄스 쇼로 분위기는 최고조를 향해 달렸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지만,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된 클럽 회원들과 시민들 누구 하나 공연장을 뜨지 않았다. 어느덧 축제도 막바지에 이르렀고 '춤추는 여자들'이 리더가 되어 모든 관객을 아우르며 축제는 비와 함께 절정으로 치달았다.

사람들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가면을 벗고 하나가 되어 곡선을 그리며 즐겼다. 그들의 표정은 환희였다. 비와 축제! 우려했던 비로 인해 축제는 더욱 빛났고 가을밤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깊어갔다. 비와 함께한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그 클럽 회원들과 시민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하나 가슴에 새겨주었다.





클럽 회원들이 주체가 되서 진행된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아름다웠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축제를 더 많은 성남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축제 장소가 찾아오기 어려운 곳보다 교통이 편리한 확 트인 광장이면 좋겠고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지역문화 대표브랜드인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나누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길 바란다. 이것 또한 지역문화 활성화며 확산이 아닐까.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많은 클럽 회원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끝났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축제 . . . Before and After

Before and After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닷새 동안 펼쳐졌던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비록 축제 기간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가을 축제를 위해 지난봄부터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회의하고 또 수많은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축제다운 축제를 즐길 수 있던 거겠지요.

「사랑방클럽축제」 기획 워크숍에서부터 장장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쳤던 「사랑방문화클럽축제展」 전시팀 워크숍 그리고 현장답사와 축제를 연출한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축제의 마무리인 「사랑방문화클럽축제」 평가 워크숍까지...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를 위해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애쓴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과정을 담아 봤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며...



2015 「사랑방문화클럽축제」 기획 워크숍 ‘올해 축제의 얼굴, 어떤 모습으로 가야하나?’

일시_ 2015년 4월 11일 토요일 ~ 12일 일요일 | 장소_ 가평 우리안의미래 연수원 | 글·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전국을 대표하는 생활예술 클럽들의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축제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 주제 선정과 주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축제 기획 워크숍이 4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가평에 위치한 ‘우리안의미래연수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정천석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박봉덕 <분당해드로잉>, 장계석 <동네사람들>, 김진숙 <분당챔버오케스트라>, 김민서 <해동문학>, 박미해 <토향>, 신용배 <여섯줄사랑>, 양석관 <메아리뮤직밴드>, 이영숙 <MJ색소폰>, 선순남 <여성사진작가회>, 조현숙 <도화지애>, 하미영 <이매우리춤>, 최윤혁 <점핑플리즈>, 이삼용 <사랑방합창단>, 서옥화 <분당민화>, 이대성 <사랑방합창단>, 한영애 <고을합창단>, 한영숙 <문화기획 모락> 등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들을 비롯해 축제 추진위원들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김보성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부장, 박지훈 차장, 정민혁 차장, 조성란 과장, 이현정 직원 등이 참여했다.

신용배 기획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축제 기획 워크숍에서는 축제 주제는 무엇으로 갈 것인지, 핵심프로그램은 무엇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하고 개요, 개·폐막식 행사, 상징조형물, <사랑방축제전(展)>, 전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등이 창출되었다. 또한,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추진방안,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사랑방퍼레이드〉와 특별공연, 효율적인 홍보와 집객,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재단직원과 축제추진위원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총괄은 정천석(〈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장), 신용배(〈사랑방문화클럽〉 기획팀장), 이영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이 하기로 결정되었다. 개막행사와 상징조형물제작, ‘사랑방문화클럽展’, 전시체험프로그램 구성은 전시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현숙, 박봉덕, 서옥화씨가 맡기로 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랑방축제’는 신용배 〈여섯줄사랑〉, 최윤범 〈마틴팬더깁슨〉가 담당하기로 했다. 생활예술 창작워크숍, 사랑방특별공연, 사랑방퍼레이드는 최윤희 〈점핑플리즈〉, 한영숙 〈문화기획 모락〉, 신미경 〈춤사랑〉이 맡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은 사랑방문화클럽 부위원장인 장계석 〈동네사람들〉, 김귀옥 〈정자만들린〉, 이삼용 〈사랑방합창단〉이 하기로 했으며 언론홍보, 인쇄, 온라인 회원참여 및 관객유치담당은 김형미 〈보네르플룻오케스트라〉, 한영애 〈고을합창단〉이 협력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자 운영, 후원협찬, 대외협력은 안예환 〈비전과이어〉, 이대성 〈사랑방합창단〉에게 임무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사랑방문화클럽〉 일년간의 활동을 보고하는 사랑방프로젝트북 작가 선정도 중요한 결정문제였고 2013년, 2014년의 사랑방프로젝트북을 총기획 진행한 이은영 전문작가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내용과 클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랑방사업에 대한 애정과 업무의 성실성 높은 전문





작가로 인정되는 바 선임하기로 만장일치되었다.

한편,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해 4월 17일(금) 오후 7시 야탑역광장 추모기간 중 추모공연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세월호 문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에 〈사랑방문화클럽〉이 주관단체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다만 정치적 행위로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나누었다.

축제 날짜는 10월 6일(화)에서 10월 11일(일)까지로 물론, 아침 저녁이 쌀쌀하긴 하지만 10월 8일 '성남시민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라는 공휴일을 끼고 있고 비가 가장 적게 오는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울동공원 책테마파크와 성남시 일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주제 콘셉트는 '〈사랑방문화클럽〉이 축제의 주인임을 깨닫고 〈사랑방문화클럽〉을 대내외에 알리는 내용'으로 주제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사랑방문화클럽이다.', '배우는 기쁨, 나누는 행복' 등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했다. 상징조형물 깃발展, 책테마파크에서 전시하면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사랑방을 상징하는 캐릭터 인형 (사랑이와 넘실이) 제작 등 밤늦게까지 롱런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었다. 4월, 아름다운 계절에 10월 축제에 대한 그림조각이 하나, 둘 맞추어지고 있었다.

2015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워크숍 ‘공동작품을 위한 전문가를 만나다’ ① 개막 퍼포먼스와 울동공원 내 책테마파크 〈사랑방문화클럽축제展〉을 위한 전시팀 기획회의

일시_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 장소_ 유지환 전시감독 작업실 | 글·사진_ 김미아 시민작가



말복이 지나고 아직 낮에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진 8월의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전시팀 클럽지기들과 함께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사랑방문화클럽축제展〉의 전시팀 기획회의를 위해 전시감독을 맡고 있는 유지환 작가의 작업실(청담동 낭만이 있는 화실)을 찾았다. 이 날 회의는 ‘공동작품을 위한 전문가를 만나다’ 워크숍의 1회 차로, 오는 10월 6일에 열릴 〈사랑방문화클럽축제展〉의 본 전시에 앞서,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날 회화·공예 분야의 전시팀의 각 클럽지기들과 유지환 감독은 다음 날 8월 20일에 있을 ‘전시 현장답사’에 앞선 사전논의를 포함해 9월13일, 야탑역에서 있을 축제 홍보 행사인 퍼포먼스 의상제작 및 10월 6일부터 진행되는 울동공원 책테마파크 〈사랑방문화클럽축제展〉을 위한 일정과 준비 과정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이번 2015년 〈사랑방문화클럽축제展〉의 전시 주제는 ‘사람(人)’으로 각 전시팀(회화·공예 등) 클럽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두 각 클럽의 특성에 맞는 색다른 작품들을 구상하고 계획하여 회원들과

함께 9월 한 달 동안 제작, 오는 10월 6일부터 울동공원 책테마파크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전형적인 전시장을 벗어나 책테마파크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열릴 올해 전시는 각 전시팀 클럽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사랑방문화클럽〉의 협업과 단합된 힘을 보여주리라 예상된다.

또한 9월13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탑역 광장에서 열릴 퍼포먼스 및 의상 제작 이벤트에서는 10월 6일 울동공원 야외조각공원에서 있을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개막 행사 및 퍼레이드에 직접 입고 참여할 의상들을 각 클럽 회원들과 성남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준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랑방문화클럽축제」를 널리 홍보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흔히 전시는 보는 것으로만 그 영역을 국한시키는데 이번에는 직접 참여하고 재미있는 색다른 전시를 기획한다는 유지환 작가의 설명에 벌써부터 다가 올 축제가 기대되었다.



2015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워크숍 ‘공동작품을 위한 전문가를 만나다’ ② 공연팀 퍼레이드 및 전시팀 조형물 작업을 위한 울동공원 책테마파크 현장 답사

일시_ 2015년 8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_ 울동공원 내 책테마파크 | 글·사진_ 김미아 시민작가

한 낮의 더위를 식혀줄 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전 11시, 전날 <사랑방문화클럽> 전시팀 클럽지기들의 기획회의에 이어 오늘, 오는 10월 6일 화요일부터 진행될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조형물 제작을 위한 전시 현장답사’가 울동공원 책테마파크에서 진행되었다. 아울러 2015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오프닝 행사로 10월 6일 오후 5시부터 열릴 퍼포먼스 공연 ‘사람 - 살아있는 조각’을 위해 <사랑방문화클럽> 공연팀의 각 클럽지기들도 함께 모여서 유지한 전시감독의 설명을 들으며 그 날의 일정과 책테마파크 내의 동선, 전시 및 공연 준비과정 등을 확인했다.

전시팀은 회화·공예 등의 약 20여 개 클럽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책테마파크 내의 도서관과 밖으로 연결되는 넓고 긴 복도를 따라 크게 A공간, B공간으로 나누어 공간을 분할해 각 클럽의 회원들이 모두 함께 ‘사람스’이라는 테마로 9월 한 달 동안 작업한 작품들(평면 및 설치 작품)을 유지한 전시감독의 총 지휘에 따라 각 공간에 맞게 설치할 예정이다(반입일-10월 2일, 설치일-10월 5일). 5월에 열렸던 전시팀의





〈오픈 아트페스티벌-1〉에서 함께 했던 문학팀의 시·서·화 작품들도 본 전시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책테마파크 앞 야외조각공원에서는 대형 1식, 중형 2식, 소형 4식의 액자 조형물이 설치되어 체험 및 포토존으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2015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홍보를 위해 9월 13일, 아탑역 광장에서 성남 시민들과 각 클럽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개인별로 만들어 두었던 퍼포먼스 의상과 오브제를 축제 개막식 날 당일 오후 1시~5시에 열리는 작업 리허설 및 개막 행사 본 공연에서 직접 입고 참여함으로써 약 10여명의 퍼포먼스 전문 작가들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도 직접 퍼포먼스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사랑방문화클럽축제」에 시민 참여를 높이고 이를 통해 모두가 동참하는 더욱 즐겁고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막 행사 퍼포먼스 공연에 참가한 개인의 의상과 오브제는 공연이 끝난 후에는 책테마파크 야외 공연장에 전시하는 것은 물론 〈사랑방퍼레이드〉에도 사용할 예정인데, 일반인이 직접 제작한 의상을 입고 전문가들과 함께 퍼포먼스에 참여한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경험일 될 터. 올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2015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워크숍 ‘공동작품을 위한 전문가를 만나다’ ③ 야탑역 광장에 모인 클리버들, “우리도 퍼포머들이다!”- 퍼포먼스 및 의상 제작

일시_ 2015년 9월 30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_ 야탑역 광장 | 글·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올해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큰 주제는 ‘우리는 <사랑방문화클럽>이다’이며 전시와 퍼레이드의 주제는 ‘생활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거대한 사람’. 작년 퍼레이드 때는 클럽 이름으로 피켓을 제작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면 올해 퍼레이드에는 가면과 흰색 페인트를 입힌 의상과 소품을 가지고 행진하기로 한 것이다. 햇살이 살포시 내려앉은 9월 30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질녘 오후 6시까지, 하루종일 축제에서 사용할 의상을 만들던 야탑역 광장은 이미 축제의 현장이었다. 의상은 신축성이 적은 옷, 정장이나 모직류, 드레스 등이 적합하다는 유지환 작가의 사전 당부에 의상 준비 이벤트에 참여할 클럽 회원들은 옷, 모자, 가방, 우산 등 개인이 활용할 오브제를 준비해 바리바리 싸가지고 광장에 나타났다.





야탑역 광장 한가운데 커다란 파란색 비닐이 깔리고 드디어 그 위에서 의상 페인팅 작업이 시작되었다.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와 묻는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멀쩡한 옷에 물러로 페인팅을 하고 있는 작업이 이상했을 것이다. 일탈하고 싶은 잠재적 욕구를 누구나 품고 사는지 페인팅 작업은 소풍 나온 아이들처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포토저널성남지국> 클럽 회원들은 대거 참여해 작업을 서둘러 마치고 미처 마르지도 않은 의상착用に 돌입, 패션쇼를 시작했는데 사진 동호회답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느라 여념이 없다.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부스 안에 걸어놓은 의상이 덕장의 황태마냥 꾸덕꾸덕 말려지고 있을 즈음, 유지환 작가와 장영지 퍼포머, 이영현 퍼포머의 행위예술이 펼쳐졌다. 주제는 'NO WAR'. 전쟁이라는 참혹함과 평화를 갈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진지하고 신기한 표정으로 빙 둘러 퍼포먼스를 감상. '아, 드디어 올해 축제가 시작되는구나!'

“행위는 몸짓이 아니라 발언이다.” (유지환 작가)

“예술은 우리 삶의 잉여이자 현실의 부정이며 저항이다.” (이영현 퍼포머)

“예술은 재미있는 도전의 연속이다.” (그리고...나)





2015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워크숍 ‘공동작품을 위한 전문가를 만나다’ ④ 「사랑방문화클럽축제展」작품들 햇빛 보던 날

일시_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 장소_ 울동공원 내 책테마파크 | 사진_ 선순남 포토저널성남지국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2015 「사랑방문화클럽축제」 워크숍 ‘공동작품을 위한 전문가를 만나다’ ⑤ 2015 「사랑방문화클럽축제」 평가 워크숍

일시_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_ 울동공원 내 책테마파크 야외공연장 | 글·사진_ 김미아 시민작가

단풍이 점차 물들어 가는 10월의 어느 멋진 가을 날, 10월 12일 월요일 울동공원 책테마파크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약 한 시간 반에 걸쳐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15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평가 워크숍이 있었다. 이번 2015 〈사랑방문화클럽축제〉에는 〈사랑방문화클럽〉 전시팀의 회화·사진·공예 클럽을 포함한 총 18개의 클럽이 참가했는데, 박봉덕 전시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평가 워크숍에서는 성남문화재단의 김보성 문화진흥국장과 문화기획부의 박지훈 차장, 유지환 전시감독 그리고 각 클럽의 클럽지기와 대표 회원들이 모여서 이번 〈사랑방문화클럽축제〉와 ‘개막 퍼포먼스’의 준비와 진행과정, 결과 전반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박봉덕 전시부위원장 : “이번 전시의 행사 진행은 다른 때에 비해서 투명하게 회원들에게 공개되고, 밴드를 통한 공지가 특히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평가회에 참석하신 각 클럽의 클럽지기 및 대표 회원들께서는 2015 〈사랑방문화클럽축제〉에 대하여 간단히 의견 및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다사랑회〉 이종열 회원 :** “이번 울동공원 책테마파크에서 열렸던 전시는 이전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렸던 전시보다 접근성 및 디스플레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전시장의 확보를 위해 이 점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포토저널성남지국〉의 정동주 회원 :** “무엇보다 〈포토저널성남지국〉은 열심히 이번 행사에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고, 전반적으로 모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도화지애〉 조현숙 클럽지기 :** “이번에 전시팀장으로 행사에 참여했지만, 중간에 외조모상을 당해 전시 오픈일 행사 당일과 ‘개막 퍼포먼스’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테마파크의 복도 벽면 전시장의 디스플레이와 설치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작품이 실제로 전시된 모습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전시장소를 좀 더 고려해서 선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 **〈분당헤드로잉〉 김수경 회원** : “먼저 2015 〈사랑방문화클럽축제展〉의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보다 많은 성남 시민들이 전시와 ‘개막 퍼포먼스’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막 퍼포먼스’의 콘셉트와 주제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었다면, 그것을 관람하는 일반인들에게 더욱 퍼포먼스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방문화클럽축제」 토요일, 본 행사 날에도 비오는 추운 날씨 속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식사(김밥)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 **〈수공예친구들〉 박선희 클럽지기** : “작품 반입 시, 좀 더 참여 클럽 회원들의 시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클럽은 토요일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시민 체험 행사로 참여했는데요, 갑작스런 우천 상황 속에서 체험 행사의 시간과 장소 등 변경사항이 본부로부터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부의 주제가 ‘사람(人)’이라는 것도 잘 알 수 없었고, 전시장 벽면의 어두운 회색톤과 〈수공예친구들〉의 신문지 공예 작품이 잘 안 어울려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 **〈은빛으로〉 심인숙 클럽지기** : “우리 〈은빛으로〉의 회원들의 작품은 금속공예인 만큼 벽면 설치와 디스플레이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에 다른 공예클럽들은 사실상 많이 참가를 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성남문화재단 측과 진행사항이나 공지사항의 전달, 전시장의 관리 등 협력하고 조력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간의 배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전시였습니다.”

■ **〈분당민화〉 서옥숙 회원** : “〈분당민화〉는 이번 〈사랑방문화클럽축제展〉에 처음 참여했는데요, 작품 설치 문제에 있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지환 전시감독의 ‘개막 퍼포먼스’도 새로운 발상과 구경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는 〈분당민화〉가 되겠습니다.”

■ **〈오방지회〉 김인선 클럽지기** : “먼저 공예팀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대한 공지를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참여가 늦어졌고, 〈오방지회〉의 작품은 한지공예인 만큼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 전시준비 기간인 한, 두 달 내에 ‘사람(人)’이라는 전시 콘셉트에 맞춰 작품을 완성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 주제와 작품 설치 등으로 인해서 공예 클럽이 참여가 저조해진 것 또한 유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참여 클럽에 대한 운영진의 더욱 깊은 배려가 있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개막 퍼포먼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 저녁 5시부터 7시 일몰할 때까지 퍼포먼스가 너무 오랜 시간동안 진행된 점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예다움〉 이복 클럽지기** : "저는 제1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해왔는데, 이전에 비해 각 클럽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각 클럽에게 성남문화재단 측에서 사소한 작은 부분(주차티켓, 점심 등)부터 배려하여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수목향기〉 신민정 클럽지기** : "저희 클럽은 회원이 4명이라 저 혼자 앞장서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시는 아주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전시장까지 작품을 운반하는 문제와 퍼레이드에 앞서 가면 제작의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점 등은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 **〈분당해드로잉〉 유서린 회원** : "〈사랑방퍼레이드〉에 앞서 비 오는 추운 날씨 속에 회원들에게 김밥과 빵을 제공했는데, 점심을 제공함에 있어 재단 측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인 대신 다른 방법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국물이라도 같이 제공되었다면 더욱 감사했을 것입니다."

■ **〈분당민화〉 서옥화 회원** : "우리 클럽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작품 제작 기간이 너무 촉박했고, 전시 장소의 특성상 민화와는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주차비와 주차장에서 전시장으로의 연결 문제 등 작은 부분에서 배려가 없어 많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년 전시의 주제는 모든 클럽이 다 함께 의논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길 바랍니다."



■ **〈아따파〉 조송주 클럽지기** : "우리 클럽은 그 특성상 노인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이번 전시가 아주 수준 높은 전시였다고 칭찬이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 **〈다사랑회〉 박봉덕 클럽지기** : "우선 〈전시음악회〉를 진행하기에 참 좋은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입과 반출에서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현대 미술의 개념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좋은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사의 진행이나 준비, 공지사항 등에 있어 좀 더 성남문화재단 측과 긴밀한 상호 연락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 **김보성 문화진흥국 국장님** : “먼저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주최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남문화재단도 아니고, 더 많은 관객(대중)을 끌어들이고자 함도 아니며, 생활문화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자신들만의 축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작가주의적 관점에 있어 예술가로서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 입니다. 대중과의 교감을 넓히고 전시 공간과 작품성에 대한 고민도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올해의 전시팀의 성과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틀에 박힌 전시장에서 벗어나 도서관인 책테마파크를 예술적으로 활용한 것이 좋았고 전시팀의 수준 높은 작품들도 참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주제와 공간에 맞는 좋은 전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 **유지환 전시감독** : “전시공간의 편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은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책테마파크의 전시 공간인 벽면 디스플레이 작업에 있어 한계점이 있었고, 반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간 자체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22년째 퍼포먼스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관객객들에게 있어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 퍼포먼스의 내용에 대해 미리 설명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부족하셨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전시와 퍼포먼스에 있어 각 클럽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박지훈 차장** : “초창기의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때보다 지원과 혜택이 줄어들은 것은 사실이나 더 많은 부분을 배려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홍보나 성남 시민들의 참여도 향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시 공간에 대해서는 각 클럽들과 더욱 많이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시팀의 평가 워크숍이 끝나고, 모두 서로의 수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각 클럽들의 작품 반출이 이루어졌다. 책테마파크 앞, 조각공원 잔디밭의 ‘개막 퍼포먼스’를 위해 설치되었던 크고 작은 액자들이 철거되는 것을 보면서 2015년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끝이 난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내년 2016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





춤 워크숍

“자, 한 바퀴 돌고 다시 모여서 앞으로~”

일시_ 2015년 10월 5일 월요일 오후 6시 | 장소_ 큐브사랑방 2층 야외이벤트 광장 | 글·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내가 주인공,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던 작년 축제의 피날레는 울동공원 책테마파크 야외공연장에서의 대동놀이였다. <우리마당>의 신명나는 풍물가락에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며 자이로 형태의 야외공연장을 오르락내리락. 축제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놀며 동지애를 느꼈고 진한 감동의 여운을 남겼다.

올해 축제 피날레의 대동놀이는 ‘춤’이다. 그렇다고 막춤은 아니다. 대동놀이 한판으로 기획되는 ‘춤’이다. 정형화된 대동놀이가 아닌 새로운 장르의 춤판이 벌어질 거라는 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이런 우리를 리드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춤추는 여자들’이었다. 10월 5일, 축제 개막을 하루 앞



둔 날이기에 다소 들뜬 표정의 클럽 회원들이 큐브사랑방 2층 야외 이벤트 광장에 모여들었고, 문화기획부 정민혁 차장이 축제 퍼레이드의 진행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차분히 설명주었다. 이윽고 드디어 춤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축제를 총기획한 임형수 감독을 비롯해 사랑방운영위원들과 재단 직원들이 ‘달이 차오른다’, ‘Tumbalalalaika’, ‘쇼스타코비치 재즈 왈츠 2번’, ‘날 따라해봐요’, ‘아라리 12고개’, ‘Over the rainbow’ 음악에 맞춰 ‘춤추는 여자들’이 리드하는 대로 앞으로 뒤로, 옆으로, 다시 돌고를 반복하는 동작을 취했다. 엉덩이까지 흔들흔들.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춤추는 여자들’은 2011년에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으로 춤을 통해 예술의 일상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날 춤 워크숍에는 장은정, 김혜숙, 최원석, 주하영, 이주원, 공영선, 조수진, 홍경우, 유운호씨 등이 댄서로 참여했다.





춤 워크숍은 축제기간에 비가 온다는 예보에 어찌나하는 걱정도 차치할 만큼 즐거운 시간이 연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축제 당일 하루 종일 내렸다, 그쳤다가 반복하던 빗줄기가 <사랑방퍼레이드>와 동시에 격렬해지면서 결국 춤 퍼포먼스는 빗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비가 퍼붓는 가운데서도 춤 퍼포먼스를



열정적으로 진행해 무대 스태프들로 하여금 마치 종교집단 같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게 한 '춤추는 여자들'. '춤추는 여자들'의 김혜숙 씨는 "본래 구상했던 장소가 아니고 비가 오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참가자들의 모습에 오히려 우리가 감명 받았다. 결코 잊지 못할 꿈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축제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사람 중심 축제, 빛속의 축제! 가슴 뭉클...

인터뷰어_ 임형수 감독 | 인터뷰어_ 조여일 시민작가

〈사랑방문화클럽〉회원들과 함께 제9회「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사랑방퍼레이드〉를 기획한 임형수 감독은 뮤지컬 연극학과 교수며 공연학 박사다. 50여 편의 연극과 무용극, 오페라, 뮤지컬, 음악극 등을 연출한 문화예술교육가다.

Q. 올해 축제 콘셉트는?

A. 축제의 전체 주제는 〈우리는 사랑방문화클럽이다〉이며 〈사랑방퍼레이드〉는 가면을 소재로 한 〈생활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난 6월부터 콘셉트를 개발하고 실제 방안과 역할분담에 대해 운영위원들, 문화재단 직원들과 토론하면서 구체화했다.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자발적 참여로 즐길 수 있고 예술적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 올리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Q. 작년과 어떤 점을 차별화했는지?

A. 되도록 많은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장르에 상관없이 다 함께 놀 수 있는 놀이의 장을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축제는 일상의 탈출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클럽 회원들과 관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함께 즐기고 좋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 중심의 축제가 되길 바랐다.

Q. 날씨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고 「사랑방문화클럽축제」에 이례적으로 비가 왔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A. 처음엔 황당했죠. 몇 달간 준비했는데 혹시 허사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긴급회의로 프로그램 축소와 최소한의 프로그램만으로 짧지만 강한 인상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했습니다.

그는 축제가 클럽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조금씩 발전하고 프로그램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한다.

Q. 결국 비가 왔는데,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A. 비가 와도 끝까지 클럽 회원들과 시민들이 행사장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서 무척 감동했습니다. 오히려 그 비를 피하지 않고 즐기며 춤추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고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생활예술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 매년 10월 성남에 오면 근사한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Q.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어떤 축제였는지?

A. 여전히 갈 길이 조금 멀지만 희망과 비전이 보였던 축제, 우천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은 축제. 사람이 중심이었던 축제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랑방문화클럽〉, 응원하고 「사랑방문화클럽축제」도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 사전 워크숍

경쟁 No~~ 그저 만나게 되어 방가방가!!

일시_ 2015년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 장소_ 율동공원 일대 | 글·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자~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가 책테마파크고요. 저쪽에 특설무대가 설치될 겁니다.”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박지훈 차장의 인솔 하에 40여 명의 생활예술인들이 눈을 반짝거리며 그 뒤를 따른다.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경기·인천지역의 순수 생활예술 동호회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에 참가의사를 밝힌 생활예술인들이 축제가 열릴 예정인 율동공원에 삼삼오오 모여 공연장 투어를 시작한 것이다.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 팀분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참가하는 팀들이 당일 공연장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다 낭패를 겪지 않도록 배려차원에서 사전답사와 더불어 사전 교류의 장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갖





게 된 사전 워크숍이다. 〈에듀플루트윈드오케스트라〉, 〈드림인오카〉, 아카펠라 동아리 〈울타리강낭콩〉, 〈다향오키나양상블〉, 〈플루트앙상블라운〉, 〈분당챔버그린비그룹〉, 〈안양가족합창단〉, 〈아마데우스 클라리넷앙상블〉, 의정부 〈하니윈드오케스트라〉 등을 포함한 40여 팀의 대표가 참가해 울동공원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울동공원 만남의 광장 야외공연장에서는 밴드 중심의 〈밴드장르〉가, 관리사무소 앞 광장 특설무대에서는 소리, 풍물, 민요, 한국무용, 전통극 등 〈국악장르〉가, 야외조각공원 특설무대에서는 통기타, 색소폰, 댄스 등 〈퓨전장르〉가, 책테마파크 야외공연장에서는 오케스트라, 합창, 만돌린, 클래식 기타 등 〈클래식장르〉가 각각 펼쳐진다고 하니 장르별로 참가팀들끼리 벌써부터 정보를 교류하느라 분주하다. **왠지 올해도 축제의 열기가 후끈후끈할 것 같은 예감이 솔솔, 이제 곧 축제다!**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 평가회의

“우리는 진정 사랑방문화클럽이었을까?”

일시_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 장소_ 사무동 컨퍼런스 홀 | 글·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축제가 끝났다. 비가 왔고 사전에 준비한 의상 퍼포먼스는 우비 속에 가려져 빛을 발하지 못했다. 회원들의 참여도도 저조했다. 올해 「사랑방문화클럽축제」에 대한 평가회는 내년 〈사랑방문화클럽〉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 어느 해보다도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10월 22일 목요일 컨퍼런스 홀에서 포트락 파티로 진행된 2015 〈사랑방문화클럽축제 평가회의〉. 클럽 회원들이 하나, 둘씩 먹을 거리를 들고 컨퍼런스 홀에 도착했다. 재단 측에서 준비한 음식과 회원들이 가지고 온 음식으로 간단한 요기와 인사를 나눈 후, 〈여섯줄사랑〉 신용배 클럽지기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자유토론 형식의 평가회가 이루어졌다.

성남문화재단 김보성 문화진흥국장은 “날씨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클럽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 우선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전화위복이라고 ‘비가 와봤자 얼마나 오겠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수량이 많아, 급하게 새마을 연수원을 섭외해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 경연을 치르게 되었는데

다행히 분위기가 좋았다. 〈사랑방퍼레이드〉는 우비를 입은 채로 울동공원에서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 대동 놀이로 클럽 회원들이 춤추고 놀 때 재단 직원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도 받았다. 또한, 날씨가 좋았더라면 더 잘했을 텐데 하는 자만심까지 덩으로 얻었다. 제약은 많지만 새로운 도약이었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축제가 아닌 스스로가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사랑방이 9년 차인데 4천 여 명이라는 클럽 회원들이 보고서에만 존재하는 허수가 아닌 진정한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돌아봐야한다. 모든 준비와 동호회의 힘은 절실하다. 내년은 〈사랑방문화클럽〉이 출범한 지 꼭 10년째로 원년이 되는 해가 될 것이다. 온 몸을 다해 축제 한마당을 펼치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문화기획부 박지훈 차장은 “이번 축제는 우천 관계로 클럽 회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했다. 야탑역 광장에서 의상 페인팅 제작을 하면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꼈고, 가면을 제작하면서 일탈의 재미도 느꼈다. 퍼레이드 형식의 축제는 작년에 처음 시도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과정 역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장 참여도와 관객들 반응은 앞으로 우리가 축제에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생활속의 예술’을 추구하는 생활예술 동호인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일은 축제라는 형식을 떠나 생활화해야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사랑방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삼용씨는 “클럽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단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 서로의 이해와 생각이 소통이 되어야한다.”고 했고 〈로망스기타합주단〉의 박유진씨는 “이번 축제는 운영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참여했는데 그러다보니 스트레스 없이 참 재미있게 즐겼다. 다만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이유인지 꼼꼼히 준비해온 수준 높은 전시과 공연에 많은 클럽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다. 어쨌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즐겼다. 비도 왔고 허수가 많았지만, 빗속에서 미친 듯이 놀아볼 수 있어 오히려 참 좋았다. 언제 그렇게 해보겠는가. 정말 즐거운 축제였다. 다만, 축제 날짜를 국경일처럼 10월 몇째 주 토요일로 아예 정해두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장계석 부위원장은 “우리 클럽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 놀아보자는 마음으로 클럽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야했는데 스스로 축제의 주인이 되어 즐기는 분위기를 형성하기에는 아직도 축제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도도 부족하고 그래서인지 마냥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다. 같은 날 성남시에 행사가 너무 많아 시민들도 분산된 이유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로 아쉬웠다. 물론 보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했다가 이방인처럼 존재하는 클럽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사랑방문화클럽〉 부위원장인 박봉덕씨는 “〈사랑방문화클럽〉은 자유롭고 따뜻한 놀이터라고 생각한다.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하는 일을 일거리로 생각하게 되면 피곤한 노릇일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면 즐겁기만 하다’, 이런 것이 사랑방의 정신이 아닐까?”하며 명제를 던졌다.



문화기획부 이영진 부장은 “축제라는 건 참여자들이 짜릿한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비가 와서 재단 직원들이 정말 애가 타고 어느 때보다 순발력 있게 움직였어야 했다. ‘우주공연’을 해도 무방하게 지붕이 있는 야외공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무대는 모두 철수했고 새마을 연수원 회의장, 로비 등의 공간을 급조해서 <경기·인천 생활예술클럽한마당>을 무사히 치렀다. 이번 축제는 너무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으고 짜릿한 즐거움이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다.”고 했다.

<그린비남성합창단>의 장종원 클럽지기는 “우리 합창단은 <경기·인천 생활예술클럽한마당>에 참여한 후, <사랑방퍼레이드> 장소로 왔던 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다. 가면을 제작할 시간도 부족했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일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해동문화회> 회원이며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인 김민서씨는 “축제기간 동안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공연이 겹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공연시간과 날짜를 조율해서 운영위원들이 서로 찾아가 얼굴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며 독려해주면 좋겠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블루밍댄스클럽>의 강수분씨는 “이번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 행사가 겹쳐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우리마당>의 곽윤부씨는 “<사랑방문화클럽>의 운영팀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다. 그런데 <사랑방문화클럽>과 재단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사랑방문화클럽>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축제에 대한 인식의 재정비 또한 필요할 것이다.”며 새로운 도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심탄회한 소감들을 듣고 있으려니 문득 드는 생각.

‘사랑방문화클럽은 어디만큼 왔을까?
우리는 얼마나 걸어왔을까.’



03

PART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장르 열전

“

올해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한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 사업.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은 〈사랑방문화클럽〉 가운데 뜻을 같이하는 클럽들이 단합해 보다 다채로운 전시 및 공연 활동을 펼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각각의 클럽들을 동일·융복합·창작 장르로 구분지어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정해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전시와 공연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향후 〈사랑방문화클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장르별로 구성해 보다 탄탄해진 콘텐츠로 관객들은 물론, 공연하는 이들에게도 신바람을 불어넣어 줬던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2015년, 그들이 걸어온 여정을 만나보시죠.

”



〈클럽데이〉, 커피와 음악이 있는 쌀롱콘서트 ‘포크? 포~크!’

일시_ 2015년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 장소_ 큐브사랑방 | 글·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1960년대 말부터 한국에 출연한 포크음악. 음악감상실 세시봉에서 흘러나온 번안가요로 시작한 포크 음악은 낭만적인 선율에서 밥 딜런, 조안 바에즈 등 저항을 내건 포크로 전환되면서 반항적인 청년문화의 영역을 구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클럽데이〉를 기획하고 있는 나명철(〈이구동성〉 클럽지기) 팀장의 올해 첫 번째 야심작은 포크. 분위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가 이어졌고 예술계에서 잔뼈가 굵은 장운섭 성남예총 사무국장이 코디네이터로 참여해 가닥을 잡게 되었다. 7080의 시대적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공연장인 큐브사랑방을 추억의 다방으로 연출하고 출연진들과 선곡, 컬래버레이션, 자료영상, 대사를 공유하기로 했다. 달달하고 아스라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포스터, LP판, 미니 웨딩드레스, 커피 그리고 다방마담. 큐브사랑방이 제법 다방 같아졌고.... 드디어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다방의 마담 역을 맡은 〈레이디고고〉의 맏언니 김해수씨의 반말 섞인 건방진 연기를 시작으로 공연의 막이 올랐다.





첫 곡은 <라푸노스>(클럽지기 홍경숙)의 'Moliendo Cafe' 연주. 아프리카 리듬과 라틴 리듬이 합해진 아프로라틴 댄스곡의 'Moliendo cafe'가 연주되자 공연장 분위기가 훈훈해졌다. 다음 곡은 <라푸노스>의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이구동성>의 'Java Jive'. 이후, 밥 딜런의 'Blowin' in the wind', 김민기의 '작은 연못'이 <사랑방문화클럽>의 회원들이 포크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묻는 사전 인터뷰 영상 뒤에 이어졌다. 두 곡이 끝난 후에 다시 무대에 오른 <이구동성>. 이들은 '백일몽', '웨딩케익',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등 3곡을 사랑과 이별 연기를 가미해가면서 불렀고, 덕분에 자연스럽게 '세시봉의 시간'으로 거슬러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포크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기타일 터. <세실기타>(클럽지기 이희일)가 선보인 무대는 스페인의 민속 음악인 플라멩코였다. 연주곡은 '세빌리아나스(Sevillanas)', '파소도블레(Pas Doble)', '베사메무초(Besame Mucho)'로 갤러핑을 연상하게 되는 발구름 사파떼아도(Zapateado), 박수치기 팔마스(Palmas)가 인상적인 쾌활하고 율동적인 리듬을 기타선율에 고스란히 담아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반부에 70년대 음악이 흘렀다면 후반부에서는 80년대로 마무리하는 게 수순. 버스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마틴팬더깁슨>(클럽지기 최윤범)이 등장했다. 카혼 연주의 최수범, 보컬 이가희, 기타 연주 최윤범. 이들 트리오는 '서른 즈음에', '금요일에 만나요', '씨쓰루', '늑대와 함께 춤을'을 선보였고 젊은



이들답게 고요하면서도 정갈한 노래로 관객들의 숨소리조차 멈추게 하는 매력을 한껏 선보였다. 점점 분위기는 고조되었고 <이구동성>과 공연장을 찾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하면서 공연은 정점을 찍었다. <세실타> 리더인 이희일씨가 편곡한 '사랑해'와 이정선 작곡의 <몽계구름>이 출연진들과 관객들 모두가 하나 되는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또 하나의 추억을 가슴에 담은 소중한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이 되기에 충분했다.



공연자가 아닌 촬영 스태프와 연기자로 참여한 <오카리나성남마을>의 최정호 클럽지기와 <레이디고고>의 김해수 회원의 활약 그리고 무대를 꾸미고 차를 준비하는데 솔선수범을 보였던 <이구동성>과 <레이디고고> 멤버들. 세대와 장르에 관계없이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된 큐브사랑방 <클럽데이>의 '쌀롱 콘서트'는 그야말로 '세시봉(C'est si Bon : It's Good)'이었다.





삼계(季)삼색(色) <클럽데이>, 그곳에 가면... 여름이 노래하고夏去! 가을이 춤추래秋來!

일시_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저녁 7시 | 장소_ 큐브플라자 이벤트광장 | 글·사진_ 조여일 시민작가



<클럽데이>는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공연 참여자가 관객이 되고 관객이 공연 참여자가 되는 소통의 한마당이다. 클럽 간의 건강한 교류와 공감기가 그 안에 있다. 입추와 칠석의 지나면서 어느새 더위가 저만큼 물러나고 가을이 성큼 와 있었다. 여름과 가을 사이, 클럽 회원들이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이벤트광장에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는 자리를 마련했다. 삼계(季)삼색(色)! 봄과 여름과 가을, 각각의 계절에 어울리는 색다른 주제로 음악과 음료로 클럽 간의 문화 공감은 물론, 즐기고 나누는 화합과 소통의 <클럽데이>다.



지난 5월 '포크송과 커피'에 이어 이번엔 젊음과 맥주와 함께 지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즐기는 가족소풍이다. 5개 클럽의 회원들은 일찌감치 큐브플라자 이벤트광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마련했다. 테이블 위엔 맥주와 치킨, 김밥, 과일 등 먹을거리가 풍성했다. 어디선들 이토록 편안하고 즐겁게 공연과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을까.

오후 일곱 시, <분당요들> 회원이며 강사인 신성봉 씨가 진행을 맡았다. 총 5개 클럽 중 첫 번째 공연은 아름다운 소리의 <오카리나성남마을>이다. '바람풍', '잊어야 한다는 이유로'를 클럽지기 최정호씨가 독주했다. 뒤이어 회원들이 'La Paloma', 'Top of the world'를 연주했다. 서서히 저녁이 내리는 공간에 오카리나의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연을 끝낸 <오카리나성남마을> 회원들은 자리로 돌아가 관객이 됐다.

두 번째 무대는 플라멩코 기타 연주와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세실기타>다. 'Espana Cani', 'Attende Domine', '목포의 눈물' 등 모두 5곡을 연주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세 번째 무대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야탑동주민자치센터에 모여 연습한다는 <라푸노스>다. 'La Playa', 'Romance' 등 4곡을 연주했다. 성실한 연습벌레라는 별명을 가진 <라푸노스>는 실력 또한 뛰어났다. 가는 기타 줄이 어서 오라고 가을을 부르는 것만 같았다. 회원들 모두 눈과 귀와 마음을 무대에 두고 있었다. 앙코르! 앙코르! 관객들의 앙코르로 '나성에 가면'을 마지막 곡으로 연주한 <라푸노스>!

점점 밤이 깊어갈수록 <클럽데이>의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누구하나 자리를 뜨는 이 없이 함께 즐기고 나누었다. 네 번째 공연은 <분당요들>이다. 밝고 경쾌한 '요들메들리', '테네시요들폴카'로 공연장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올린 <분당요들>에 이어 오늘의 마지막 공연은 송림중·고등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밴드 <자율학습>이다. '세상에 부러진 사랑만큼', '사랑의 트위스트', '가을 우체국 앞에서', '밤이 깊었네'를 보컬의 열창과 함께 근사한 연주를 선보였다.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회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올렸다. 그리고 무대 앞으로 나와 앞사람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기차를 만들어 리듬을 탔다. 그 장면은 감동적이었다. 5개 클럽의 순수한 생활예술을 통한 진정한 화합이며 소통이며 즐거운 나눔이었다. <클럽데이>를 <클럽데이>답게 했다. <자율학습>은 준비한 곡보다 더 많은 곡을 멋지게 공연했고 회원들의 가슴에 따뜻한 추억을 남겨주었다.

<클럽데이>를 준비하고 구성하고 연출한 나명철 팀장과 신성봉 회원, 그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클럽데이>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곳에서의 <클럽데이>를 진행한 것은 올해로 두 번째다. 앞으로도 여기서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큐브플라자 이벤트광장, 그곳에 가면 편안하고 즐거운 공연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 현상이 지속되면 새로운 문화가 될 것이고 특정 브랜드가 될 것이다.”라는 신성봉 회원은 클럽 회원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클럽데이>와 클럽 회원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88의 날, 팔팔한 무대. 우리는 프라임이다!” 〈프라임밴드〉

일시_ 2015년 8월 8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_ 아탑역 광장 | 글·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24절기 중 13번째 절기인 입추(立秋). 〈프라임밴드〉 공연이 있던 8월 8일이 올해의 입추가 되던 날이다. 그동안 한반도를 강타한 메르스로 예정되어 있던 공연들이 전면 취소가 되거나 기약없이 지루한 기다림을 안겨주었는데, 입추인 8월 8일은 메르스도 거의 종식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날씨도 청명했다. 게다가 8월 8일은 중국에서 거금을 주고라도 산다는 8이라는 숫자가 두 개나 겹친 날이다. 덕분에 기분도 상쾌해지는 토요일 오후 7시, 아탑역 광장을 찾으니 소풍 나온 사람들처럼 관객들 표정이 한결같이 밝다. 모두들 메르스를 피해 오랜 칩거생활을 해왔을 테니 당연지사일 터. 동병상련(同病相憐), 이심전심(以心傳心)! 이날 공연밴드는 〈LH밴드레퍼토리〉, 〈젠틀브리즈-레드〉, 〈크로노스〉, 〈해피색소폰〉이다. 이들 모두가 공연을 기획, 연출한 이현창 사단이라고 하면 과언일까?

첫 무대를 장식한 팀은 〈LH밴드레퍼토리〉(기타 김흥재, 서홍원, 피아노 박지형)였다. Gary Moore의 'Still got the blues', The Police의 'Every breath you take', Deep Purple의 'White snake', Queen의 'Bohemian rhapsody', 'I want to break free' 등의 곡을 시원시원한 연주와 보컬로 야탑

역 광장을 흔들어 놓자 객석에서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도 불러주세요!”하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어진 무대에 등장한 밴드는 <젠틸브리즈-레드>(리드 기타 이용찬, 기타 김정연, 베이스 임재홍, 보컬 박지혜, 건반 김송현, 드럼 김춘오)로 주로 분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이다. 이들이 들려준 노래는 D sound의 ‘Do I need a reason?’, 도로시밴드의 ‘소풍’, Natalie Imbruglia의 ‘Torn’, Skool의 ‘줄리앙’. 이들은 밴드 이름 그대로 산들바람, 그것도 레드 화려함이 느껴지는 산들바람과 같은 여운을 남겨주는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젠틸브리즈-레드>가 오묘한 매력을 발산하며 공연을 마친 후 무대에서 내려오자 아쉬움이 컸던지 여기저기서 앙코르를 외친다.

이윽고 등장한 밴드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아버지 이름으로 ‘시간의 신’이라는 뜻인데 성격이 무자비하여 ‘낮을 든 사신’, ‘죽음의 신’으로 비유된다고. ‘시간’과 ‘죽음’이라는 다소 폐이소스한 의미를 담고 있는 밴드 <크로노스>는 지금은 카피 곡 위주로 공연을 하고 있으나 자작곡을 준비 중인 열혈 직장인들로 구성된 밴드이다. 이날 <크로노스>(보컬 기타 최성길, 기타 안왕산, 드럼 성하윤, 베이스 성시현)의 레퍼토리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뮤즈의 ‘Time is running out’, 뮤즈의 ‘Hysteria’, 윤도현 밴드 버전의 ‘담배가게 아가씨’였고 활화산처럼 뜨거운 열정의 무대를 보여주었다. 헤비메





탈, 록 장르 위주의 밴드 공연에 야탑역 광장이 후끈 열기로 달아올랐고 간간이 취객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소란을 피우는 해프닝도 있기도 했지만 이날 사회를 맡은 박유진씨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이영진 부장님을 비롯한 재단 직원들이 원만하게 잘 대처해나갔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팀은 <해피색소폰>(황병진, 박미자, 최연정, 함태식)으로 ‘고래사냥’, ‘그건 너’, ‘그대 그리고 나’, ‘아빠의 청춘’을 연주하자 관객들이 모두 가수가 된 듯 ‘핸즈 업’을 하고 목청 높여 노래를 불렀다.

“따봉, 따봉~”, “‘이름 모를 소녀’도 불러주세요~!” 요청도 많고, 주변 거주자들의 소음민원도 많고, 취객들도 많고, 팬들도 많고... 다종다양(多種多様), 각양각색(各樣各色)의 사람들이 모여 파란만장, 현장감 있는 무대가 연출된 야탑역 광장의 <프라임밴드> 공연은 그렇게 입추의 저녁을 건넜다.



버스커, 길거리 공연의 향연 성남어쿠스틱페스티벌

일시_ 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 장소_ 야탑CGV | 글·사진_ 김미아 시민작가

아직은 한낮의 무더위가 계속되는 8월 중순의 여름날, 시원한 음악으로 무더위를 식혀줄 버스킹 라이브 공연이 야탑 CGV 지하2층 극장 앞 로비에서 열렸다. 오늘 공연은 <성남어쿠스틱페스티벌(S.A.F)> 행사의 일환으로 <사랑방문화클럽> 중 어쿠스틱 밴드로 구성된 <YD>, <JD>, <티머프>, <락쿠스틱>, <기타홀릭>, <고은소리>이 참가했다. 지난 7월11일 성남시 거리 공연에 이은 두 번 째 공연이다.

공연이 시작하는 3시 전,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에 들어서니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로 붐비는 극장 로비 한쪽에서 밴드들이 한창 준비하느라 바빴고, 공연장 앞쪽 벤치에는 벌써 공연을 관람할 관객들이 하나, 둘 모여 앉기 시작했다.



이윽고 3시! 공연이 시작되었다. 다소 어둡고 협소한 공간과 영화 관람객들이 표를 사기위해 오고 가는 혼잡한 통로이긴 하지만,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리듬감 있는 어쿠스틱 기타 연주와 노래 소리는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귀를 기울이게 하였다. 아는 노래가 연주되면 관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기도 하였고, 다음 팀은 또 어떤 연주를 할지 작은 기대에 부풀어 공연에 동참하였다. 이들 참가 밴드는 모두 아마추어로 구성된 클럽들이며, 주로 통기타를 연주하는 어쿠스틱 밴드로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며 공연에 참가하는 등 그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었다.

오늘 공연의 문을 연 〈락쿠스틱〉은 민경빈, 노용성 회원 두 사람이 올해 6월에 결성한 통기타 연주 듀오로 일본 통기타 밴드인 ‘데파페페’의 곡을 주로 연주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계속 거리 공연 위주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란 다. 〈J.D〉 역시 어쿠스틱 사운드를 추구하는 2인조 직장인 밴드로 이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조용한 통기타 선율 속에서도 젊은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패기가 느껴졌다.

이 날 세 번째로 무대에 올랐던 〈티머프〉는 김라임, 김희준, 장세은, 남은선 회원으로 구성된 30대 여성 버스킹 밴드!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해 주로 화음이 있는 곡들을 부르고 있다. 대중적이면서도 잔잔한 음악들을 그들만의 따뜻한 색깔로 옷을 입힌다는 그녀들은 기타 연주와 함께 맑고 고운 노랫소리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YD〉는 ‘Young Duck’의 약자로 중학교 친구들 3명으로 구성된 30대 남성 어쿠스틱 밴드다. 주로 대중적인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데 오늘 공연에서는 네 번째 순서로 참가해 어쿠스틱 버전으로 편곡한 박지윤의 ‘성인식’을 연주했고 마지막으로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도 멋지게 연주해 젊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또 <기타홀릭>은 20대부터 40대까지의 청년들로 구성된 동호회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사랑방 큐브사랑방에서 2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함께 연습하며 호흡을 맞춘다. 용인, 성남, 분당 지역의 청년들로 구성된 <기타홀릭>은 벌써 온라인 카페를 통한 회원 수만도 벌써 500명이 넘는다고 하니, 그들의 저력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고은소리>. 공연 전, 50~60대 어머니들로 구성된 ‘아줌마 밴드’라고 웃으면서 자신들을 소개한다. 주로 70~80년대의 노래들을 연주하고 부르는 <고은소리>는 즐겁게 노래하고 기타치고 봉사하는 클럽으로 약 50여 명의 회원 가운데 6명의 회원들이 무대를 꾸며주었다. 오늘 그녀들의 레퍼토리는 ‘무뚝뚝한 사나이’, ‘웨딩케익’ 등 70~8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련하면서도 구수한 멜로디의 노래들. 객석에서 박수가 끊이지 않는다.

공연을 마친 <기타홀릭>의 클럽지기 민경빈씨는 “무엇보다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 동호회의 활성화와 연습실 구비, 공연장의 확보 등 아마추어 밴드가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좋다”며 소감을 밝힌다. 아울러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와 공연을 통해 성남 시민들과의 열린 화합의 장을 열어 나갈 수 있어 부듯하다”면서 “앞으로도 <성남어쿠스틱페스티벌>의 거리 공연을 통해 더욱 많은 성남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자리가 되길 희망해 본다.”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흥을 돋우는 그래서 흥이 넘쳤던 시간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국악축제 혼〉

일시_ 2015년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 장소_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 글·사진_ 조진희 시민작가

중앙공원에 들어서자 야외공연장은 아직은 조용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더 좌석이 채워지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어느 새 공연은 시작되었다. 공연무대와 관객 좌석 사이로 풍물패 〈돌〉이 신나게 들어왔다. 20명의 회원들이 치는 팽과리, 북, 소고 등이 소리를 내자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였다. 풍물패 단원들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흥을 누를 수는 없었다. 상모를 돌리면서 땀을 흘리고 신나게 한 판을 놓고 나갔다. 무대를 떠날 때는 다소 느리게 그리고 더 흥을 내려고 미적거리면서 나가듯이 천천히 무대를 떠났다. 〈가악풍류회〉의 정가는 선선한 공기에 운치를 더하였고,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을 한 그들을 보니 마치 내가 한량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기도 했다. 〈천향국악단〉과 〈락&판〉의 무대는 익숙한 가락으로 객석을 들썩이게 했다. 또 이효덕 클럽지기의 ‘배 들어간다’는 우리의 가락이 우리 안에서 늘 꿈틀거리고 있었던 듯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마지막 공연을 장식한 타악





그룹 〈울〉은 관객과 공연자를 동시에 한 지점으로 몰입시키게 하였다. 음의 낮음과 높음으로, 조용함과 과격함으로 사람을 두근대게 하고 모이게하고 흠뻑하게 하였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싶다. 하지만 문화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점점 사람의 입소문과 SNS로 사람들은 모일 수 있고 이 흥겨운 판에 끼어두고 싶을 것이다. 맥주를 한 잔 들고 잔디에 앉아 무심한 듯 앉아있다가 돌연 흥을 이기지 못해 무대로 뛰어 올라가 이 판에 끼어서 같이 놀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공순이>의 수공예 체험한마당 우리 함께 ‘핸드메이드’ 만들어 봐요

일시_ 2015년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12시 | 장소_ 성남아트센터 큐브사랑방 앞마당 | 글·사진_ 최승은 시민작가



햇살이 눈부시다. 하지만 손이 시릴 만큼 쌀쌀하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어른도 아이들도 어깨를 움츠리고 다닌다. 제법 두툽한 겹옷을 꺼내 입었지만 첫 추위가 만만치 않다. 10월의 마지막 날, 큐브사랑방 앞마당에서 공예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인 <공순이>의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정오부터 시작된 체험한마당에 도착하니 두런두런 공예체험이 한창이다. 부스마다 어린이들의 재잘거림으로 분위기는 사뭇 따뜻했다. 도자기 작가들의 모임인 <토향>, 다양한 수공예품을 만들고 가르치는 <행복한수공예>와 <메이크그로우> 그리고 실과 바늘만 있으면 어떤 아름다운 작품도 만들 수 있는 <정림규방공예> 등 <사랑방문화클럽> 네 팀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예체험행사에 나섰다.



본래는 한여름 행사로 기획된 것이었으나 다른 모든 행사가 그랬듯이 메르스 여파로 <공순이> 역시 가을로 연기되었다. 마침 주말 나들이 온 가족들과 아트센터 공연을 보러 온 어린이들이 신이 나서 모여들었다. 여자 어린이들은 앞다투어 예쁜 장식품을 만들려 했고 남자 어린이들은 뒷전에서 기웃대기만 한다. 아기자기한 수공예품은 여자 아이들의 것이라 여긴 걸까? 그중 몇몇 남자아이들이 엄마의 권유에 못이기는 척 큐빅장식품을 만들려고 자리에 앉았다.

한꺼번에 몰려온 아이들을 맞이한 <행복한수공예>의 클럽지기 이수녀씨는 양증맞은 목걸이며 큐빅반지를 만들 수 있도록 스톤아트에 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깨알 같은 색색의 스톤을 붙이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아이들은 하나같이 열심이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정림규방공예> 회원인 정윤희씨가 레이스코사지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었다. 두서넛 아이들이 자쫓빔 레이스를 시치고 있었다. 작은 손에 레이스를 한 움큼 쥐고 열기설기 바느질하는 모습이 진지하다. 분당 초등학교 2학년 신지아 어린이는 레이스꽃이 완성되자 엄마에게 선물할 거라며 기뻐했다. 하나씩 만들어 집으로 가져가는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정림규방공예>는 바느질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다양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클럽지기 정경옥씨는 4살부터 바느질하며 놀기 시작하여 한 평생을 규방공예와 함께 했다. 회원들은 동양매듭, 조각보, 전통바느질 등을 배우고 가르치며 체험봉사나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점토공예 체험부스를 지키고 있는 <토향>의 회원 김부선씨는 찬바람에 점토가 굳을까 시종일관 걱정이다. 마르면 바로 도자기 같이 단단해지는 점토로 아이들이 메모꽃이, 도자목걸이, 펜던트 등을 만들 수 있게 지도하고 있다. 8명의 도자기 작가들이 모여 만든 <토향> 역시 체험봉사와 행사참여로 지역사회에 도예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서현중학교 2학년 임수민 학생은 평소에도 흙으로 빚어 만드는 걸 좋

아한다며 친구들과 함께 편지꽃이와 장식품을 공들여 만들었다. 이후 머리핀도 만들기 위해 <메이크로우> 부스에 줄을 섰다. 정자동에 살고 있는 남아연(6세) 어린이는 엄마와 함께 어린이 뮤지컬 보러 왔다가 공예체험을 하게 되었다. 아이와 함께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어 두고두고 추억이 될 거라며 곁에 앉은 엄마도 즐거워했다.

수공예클럽 <메이크그로우>는 클럽지기 서지혜씨 외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리본공예, 인형, 냅킨, 와이어, 비누, 양초 등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공방에서 가르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핸드메이드 체험봉사 나온 회원 정은숙씨는 완성도 있는 장식품을 위해 아이들의 마무리를 도왔다. 전서현, 고안나 일곱 살 두 친구는 머리 고무줄과 꽃핀을 만들어 그 자리에서 뽑아보기도 했다. 모두가 즐거운 <공순이> 체험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다면 날씨가 추워 더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이다. 여러 가지 수공예 체험을 하고 직접 만든 작품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멋진 기회를 지역주민과 나누고 싶던 <공순이>의 훈훈한 마음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다문화생활예술아카데미, 행복한 성장의 장이었음을...

인터뷰어_ 조여일 시민작가 | 사진_ 다문화예술아카데미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다문화생활예술아카데미〉 팀장인 박봉덕씨는 열한 번의 개인전과 백오십 여 회 단체전을 연 현대미술작가다. 현재 분당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와 MBC 문화센터 등에 문하생을 둔 문화예술교육가기도 하다.

Q. 〈다문화생활예술아카데미〉란 무엇입니까?

A. 대한민국에 이주해 온 다양한 국가의 이주민과 내국인의 문화예술 동아리입니다. 미술과 한지공예를 전공한 실력 있는 강사들의 지도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익히고 나눕니다. 즉 그들에게 동아리 활동은 문화 예술이 매개체인 된 문화시민이 되는 소통의 공간이지요. 교사와 학습자를 떠나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감하며 돈독한 우정을 키워가는 문화예술동아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시선이 따뜻한 박봉덕 씨는 <다문화예술아카데미>와 함께 할 때 더 할 수 없이 즐겁고 행복하다.





Q.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에 있어 <다문화 생활예술아카데미>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A. 이주민들이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을 통해 배우고 익혀서 클럽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함께 전시하고 함께 나누는 문화시민이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회성과 시민교류를 통해 이 땅에서 평온한 삶의 뿌리를 내리는 아름다운 성과를, 축제를 통해 행복 지수를 높이고 <사랑방문화클럽>의 지역사회 공헌에 함께 이바지한 것 또한 큰 성과입니다.



Q. <다문화생활예술아카데미>의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회원들의 실력 향상과 내국인과의 소통을 위한 문화적 교류의 장을 자주 만들고 싶습니다. 아마추어를 넘어 프로들의 전시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문화적 정체성을 키워줄 것 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고 성숙한 문화국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한국미술협회의 여류작가전에도 초대 돼 전시했고 미조구치 마끼 회원은 올 연말 성남시 기성 작가들과 전시를 함께 하는 행운의 문화시민이 됐습니다. 그들도 화가의 꿈이 큼니다. 무엇이든 오래, 꾸준히 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박봉덕 팀장은 그들이 수업시간 외에도 자연스럽게 친목과 문화소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림과 공예 실력을 갈고 닦아 취미활동을 높이고 더 나아가 소득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한 다문화 체험 강사의 역할과 높은 교육문화 수준을 위해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그러려면 문화재단의 후원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박봉덕 팀장이다.





〈품앗이소리바람〉의 마을 속으로 주민 속으로

일시_ 2015년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소_ 산성공원 놀이마당 | 글·사진_ 조여일 시민작가

그렇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방문화클럽〉, 그들은 〈품앗이소리바람〉이 되어 푸른 잎이 잔바람과 햇볕에 끊임없이 산란하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산성공원 놀이마당에 모였다. 마을의 주민들과 신나는 문화마당으로 문화 공감을 통한 나눔과 소통의 행보였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공연을 위해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정오부터 공연 준비를 시작했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들기 시작했다. 관객들은 다양했다. 공원으로 산책을 나온 사람들, 남한산성을 산행하고 내려오는 사람들, 동네 주민들...

무대 뒤에선 오늘의 공연을 한바탕 신명 나는 문화마당을 만들기 위한 출연진들이 꽃단장하면서 하하호호 서로 즐겁다. 공연을 기획한 양석관 총괄팀장을 만났다.

Q.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의 축제가 다른 축제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메아리뮤직밴드〉 클럽지기 양석관 : 문화는 삶이고 삶 또한 문화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시민들과 함께 문화의 장을 만들어 잠시나마 일상의 피로를 잊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함께 공유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문화 나눔의 축제다.





드디어 2시! 〈메아리뮤직밴드〉 박성훈씨가 사회를 맡아 축제는 진행됐다. 클럽지기 양찬석씨가 이끄는 〈성남취타대〉의 ‘고종황제 어가행렬’을 첫 무대로 클럽지기 고경숙씨가 이끄는 평균나이 70세인 〈우리춤〉의 ‘화관무’ 공연이 이어졌다. 우리의 옷 한복이 찬란한 오월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수놓았다.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고 뒤이어 〈메아리뮤직밴드〉의 ‘나성에 가면’, ‘물레야’, ‘봉선화연정’ 등 색소폰 연주에 양 어깨를 들썩이고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다.

Q. 〈풍아이스소리바람〉의 뜻은 무엇입니까?

A. 〈메아리뮤직밴드〉 클럽지기 양석관 : 예부터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선조들의 정신을 되살리는 작은 의미로 공연이 있을 때 여러 단체가 서로 힘을 모아 돕자는 뜻을 담았다.

잠시 〈메아리뮤직밴드〉의 색소폰 연주와 초대가수 정일씨의 무대로 공연장은 더욱 흥의 도가니가 되었고 그 흥을 더욱 흥겹게 만들고 관객들의 혼을 쏙 빼놓은 공연이 이어졌다. 이듬하여 박이순씨가 클럽지기인 〈한국스타벨리〉다. 고대의 다산의식 춤이라고도 알려진 벨리댄스의 강렬한 음악과 아름답고 매력적인 춤에 관객들은 어떤 의식을 치르듯 잠시 숨을 멈추었다. 어린 댄서들의 벨리댄스는 더욱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늘엔 강렬한 햇빛과 음향기기엔 강렬한 음악과 무대 위엔 강렬한 댄서들과 강렬한 관객들! 이 모두 강렬하게 빛나는 시간이었다. 그 다음은 초대가수 정지운씨의 무대가 이어졌고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경직했던 몸을 풀며 미녀 가수 정지운씨의 노래를 즐겼다.



Q. 오늘 공연의 콘셉트와 축제를 통한 <품앗이소리바람>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A. <메아리뮤직밴드> 클럽지기 양석관 : 가정의 달이다. 가족과 함께 또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공연장에 오신 관객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가족이 되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도 시원해졌다. 클럽지기 김순옥씨가 이끄는 <하모니 무용단>의 '수건입춤'과 '장구춤'이 무대에 올랐고 김영자씨가 클럽지기인 <김영자 민속예술단>의 '지게 춤', '한강수타령', '뱃노래', '자진 뱃노래'가 이어지고 본 공연의 마지막 순서로 클럽지기 장금자씨가 이끄는 <아침울타리>의 난타공연이 이어졌다. 그러나 본 공연의 마지막일 뿐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었다. 바로 출연진과 관객들이 하나 되는 대동놀이인 '아리랑'이다. 대동놀이야말로 나눔과 화합과 소통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2015「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 목적을 위해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움직여서 마을 속으로 주민 속으로 들어가 함께 즐기고 나누면서 신명 나는 문화의 장을 만들었다.

〈오리뜰문화축제한마당〉 오리뜰 동네사람들, 우리는 ‘너나들이’ 여~

일시_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저녁 7시 | 장소_ 오리공원 | 글·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오리뜰문화축제한마당〉이 펼쳐진다는 소식에 동네 사람들이 마실 나오듯 나와 객석을 가득 메웠다. 이날 내게 자신과 공동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장계석씨는 〈동네사람들〉의 클럽지기이며 〈사랑방문화클럽〉 부위원장으로 ‘오리뜰’과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라는 옛날 명칭에서 현재는 분당구 구미동으로 바뀐 오리뜰은 마을앞 큰 웅덩이가 겨울에도 얼지 않아서 오리가 많이 모여 들었으므로 오리뜰이라는 설과 마을에 방풍림으로 하천을 따라 오리나무를 많이 심어서 생긴 지명이라는 설도 있는 곳이다. 장계석씨는 오리뜰에서 3대째 거주하고 있는 터줏대감이다. 또한, 그의 부친께서는 오리뜰 농악의 보존자이며 장계석씨도 현재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 감회가 새로울 터. 공연 전부터 그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감회가 느껴졌다.

드디어 〈동네사람들〉의 신명나는 길굿 한판이 행사의 서막을 알렸고! 장계석씨의 부친인 장양천 선생이 무대에 올라 너나들이하며 평생을 함께 해오던 풍물벗들과 함께 ‘삼재비놀이’를 펼쳤다. 오랜 암투병을 하신 터라 수척하기 그지없는 장양천 선생이 제금을 치는 순간, 선생은 다시 오리뜰을 휘잡으며 펄펄 날던 청년의 모습이 되어 한



껏 에너지를 발산했다. 장계석씨는 관객들에게 “오리들은 관내에서 농악으로 명성을 떨쳤던 마을이며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혈연이며 현재 수령 300년인 느티나무가 보존되어 있는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유구한 역사가 있는 곳에서 저희 아버님께서 오리돌 농악의 산 증인으로 살아오셨고 현재 건강이 안좋으십니다. 제발 오래오래 곁에 계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멘트를 하다가 그만 울컥 눈물을 쏟아부렸다. 끝 말을 잊지 못하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내 마음마저도 찡해졌다.

〈모듬북두드림〉(클럽지기 장금자)의 연주자 10명이 무대 아래에 세팅된 모듬북으로 ‘신평류의 향연, 리듬난타 아리랑’을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연주해 분위기를 전환시켰고 〈락&판〉의 이효덕씨가 판소리 ‘사랑가’ 중 한 대목을 뽑았다. 이어 우리 악기 중 유일한 화음악기인 생황의 대가인 김계희씨가 단장으로 있는 〈천향국악실내악단〉이 무대에 등장해 ‘여행을 떠나요’, ‘가을이 오면’, ‘아름다운 나라’를 연주해주었다. 생황(笙)이 오리돌에 울려 퍼지면서 마치 김홍도의 ‘송하선인취생도(松下仙人吹笙圖)’속에 내가 들어가 앉아있는 듯한 상상도 하게 되었고! 〈청실홍실〉(클럽지기 강지숙)이 ‘노래가락’, ‘청춘가’, ‘태평가’, ‘뱃노래’ 등 경기민요를 불러주었다. 이윽고 〈카밀라폴&벨리댄스〉(클럽지기 김도연)가 등장해 ‘레이나팬베일’, ‘Wanna dance’, ‘오프닝 댄스’, ‘칼스드림’이라는 신비로운 음악에 맞추어 벨리댄스를 멋지게 공연해주었다.





다음 무대는 '여섯줄사랑과 드림의 만남'으로 <여섯줄사랑>(클럽지기 신용배)과 드러머 정희준씨가 함께 세시봉 레퍼토리 중 '백일몽',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과 김건모의 'My son', 녹색지대의 '그래 늦지 않았어'를 연주해주었다. 연주가 끝나고 드러머 정희준씨에게 앵콜을 부탁하자 그는 거의 광적(?)일 정도로 드림 삼매경에 빠져들며 에너지 넘치는 연주를 관객들에게 선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토크연주자 김태우씨가 'Amazing Grace', '옥경이'를 연주했고 보기드문 토크연주의 향연에 관객들이 앙코르를 외쳤고 '토요일 밤' 연주로 그가 화답했다.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참석한 초대가수 한성애씨는 주변 일부 거주자들의 소음 민원 제기로 준비해 온 MR과 음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래를 불렀고 제대로 공연을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는 말과 함께 공연장을 빠져나갔다. <우리들문화축제한마당>은 단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떠나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해야한다는 의지를 환기시키는 의미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였다.





“마을 속으로 주민 속으로” 시민과 가까이 하고픈 문화클럽한마당

일시_ 2015년 5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_ 울동공원 야외공연장 | 글·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한낮의 찌는 더위가 호수 바람을 타고 누그러지다 못해 선선해진 5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 술시(戌時)! 울동공원 야외공연장에 <사랑방문화클럽> 통기타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기타홀릭>, <고은소리>, <포엠송>, <여섯줄사랑> 그리고 퓨전 국악팀인 <양상블그랑>이 그들이다. 이날 사회는 <사랑방문화클럽> 기획팀장이자 <여섯줄사랑> 클럽지기인 신용배씨와 경기방송 DJ인 김정미씨가 공동으로 맡아 진행했다. <여섯줄사랑> 회원들이 오프닝 송으로 ‘여행을 떠나요’





로 분위기를 띄워 공원을 산책하러 온 시민들을 무대 앞에 앉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오늘같은 시간에 중앙 공원에서는 김건모씨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못가 싶어도 절대 아쉽지 않은 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신용배씨의 공격적인 멘트가 끝나고 이어진 본격적인 첫 무대는 <기타홀릭>(클럽지기 이광호)의 것이었다. 20~30대가 주축인 통기타 동호회 <기타홀릭>은 온라인 카페 인원수가 400명 가량이라고 하니 가히 통기타 저변확대의 일등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길거리공연, 커피숍 공연 등 장소 불문, 스트로크스타일과 핑거스타일 불문, 통기타와 클래식기타를 불문한 공연으로 자유롭고 즐거운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팀답게 선곡 또한 신선하기 그지없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내 사람’, 송창식의 노래 중 ‘담배가게 아가씨’, ‘불나방스 타소세지클럽’의 ‘석봉아’라는 곡을 부르자 관객들이 모

두 호기심 가득, 즐거움 가득한 눈빛을 발사하며 박수를 보냈다. 이어진 공연은 외국에서도 고유명사가 되고 있는 ‘아줌마’ 부대인 <고은소리>의 무대. 40~50대 주부들로 구성된 <고은소리>(클럽지기 김숙자)는 재능봉사를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로 ‘섬집아가’, ‘Eres tu’, ‘아름다운 사람’ 등 3곡을 여성만의 섬세하고 포근한 화음으로 밤하늘을 수놓았다. <고은소리>가 불러주는 아련한 가사와 멜로디가 끝나자 노란 점퍼를 입은 <포엠송> 회원들이 무대에 등장했다. ‘Poem’과 ‘Song’의 합성어로 시와 같은 노래를 부르





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인 <포엠송>은 성남시에서 재능봉사로 추종불허! 유명세를 타고 있는 단체이다. 전업 연주자들도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2012년에는 10회 공연, 2013년에는 39회 공연, 2014년에는 26회 공연을 통해 자원봉사에 앞장서고 있으니 내로라하는 모범 클럽이라 할 수 있겠다. 이날 연주곡은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통기타와 쎄메가 어우러지는 신 나는 공연에 관객들로부터 앙코르가 연호되었고 <포





엠송)은 ‘SG워너비’의 ‘라라라’로 화답했다. <사랑방문화클럽>의 신규가입 클럽인 <양상블그랑>(클럽지기 이상호)은 6인의 국악도들이 2014년에 만든 퓨전 국악 밴드로 전통음악, 팝, 재즈, 라틴, 뉴에이지, 탱고 등 여러 장르를 소화해 가며 국악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 ‘Fly to the sky’, ‘바다로 간 연어’, ‘비틀즈 메들리’가 25원 가야금이 자아내는 바람결 속 삭임 같은 선율에 실리고 여기에 소금과 아쟁, 타악기의 소리가 얹어지니 펼쳐지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연주되었고 관객들이 환호성과 함께 앙코르를 연호했다.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받은 <양상블그랑>은 악기 하나, 하나를 소개하며 악기 소리를 들려주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지기도 했다. 이날 마지막 무대는 오프닝 무대를 가졌던 <여섯줄사랑>(클럽지기 신용배)이 맡았다. ‘40~60대 멋진 아줌마, 아저씨 통기타 부대’라고 자처하는 <여섯줄사랑>은 ‘백일몽’,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My son’, ‘고백’, ‘Evergreen’, ‘Let it be’를 불러 주었고 출연진들 모두가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함께 ‘만남’을 제창하며 오월의 밤을 행복하게 수 놓았다.





시민과 가까이 하고픈 문화클럽한마당 - 두 번째 이야기

오월에 모였던 통기타 클럽들이 다시 모였다

일시_ 2015년 5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_ 울동공원 야외공연장 | 주관_ 문화사랑 행복만끽 | 글·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시민과 가까이 하고픈 문화클럽한마당 - 두 번째 이야기’가 열리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울동공원 야외공연장. 공연장을 찾으니 무대 옆 잔디밭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클럽 회원들이 보인다. 공연을 위해 목을 풀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공연이고 즐거운 파티라 여겨졌다. 대부분이 지난 5월에 같은 장소에 모였던 통기타 팀들이고 사회자 역시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여섯줄사랑>의 리더이자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에서 기획팀장으로 올 한해 수고하고 있는 신용배씨와 경기방송 DJ 김정미씨가 맡았으니 준 비과정부터 공연 분위기가 더욱더 화기애애하게 느껴졌다.

첫 번째 무대는 성남의 아줌마 통기타 부대 <고은소리>(클럽지기 김숙자)로 ‘너는 내운명’, ‘백일몽’, ‘웨딩케이크’가 이들의 레퍼토리였다. 사, 오십대가 느낄 수 있는 여유와 낭만이 묻어 있는 무대를 <고은소리>가 만들어주었고 시처럼 노래처럼 그렇게 음악활동을 하고 싶다는 <포엠송>(클럽지기 이석우)이 ‘나의 기타 이야기’, ‘새들처럼’, ‘사람들’, ‘통나무집’, ‘붉은 노을’을 불러주었다. <포엠송>은 레퍼토리만 해도 100여 곡이 넘는 클럽이며 <사랑방문화클럽>에서건 재능봉사 현장에서건 노래를 원하는 곳이면 언제건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있는지라 최고의 모범클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단체이다.



이어진 무대는 <기타홀릭>으로 조
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무한게도
의 ‘그대에게’, GOD의 ‘촛불하나’
를 불러주었다. <기타홀릭>은 이
대로 기타에 푹 빠져 살고 있는 사
람들로 주로 2~30대로 주축이 된
통기타 동호회이다. 현재 온라인
카페 인원수가 약 600명에 다다
르고 있으며 길거리 공연과 커피숍 공
연들로 주로 활동하고 있다. <기타
홀릭>은 스트로크스타일, 핑거스타
일, 통기타, 클래식 기타를 망라하고
있는데 ‘왕초보돌봄’이라는 신규 프
로젝트로 초보연주자들도 함께 어
우러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즐거운 음악 놀이터같은 통기타 팀
이다. 통기타 팀들의 공연이 이어지
는 가운데 깜찍 발랄한 어린이들이
무대에 등장했다.

아름답고 소나무처럼 마음이 푸른
사람이 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리술>.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
년에 재학 중인 김다예, 문지빈, 최
준희, 양가현, 이초희, 박수빈이 멤
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Problem
리멤버 셰이킷’이라는 곡에 맞추어
댄스를 선보이자 엄마미소, 아바미
소를 발사하며 관객들이 열렬한 박
수갈채와 함께 환호했다. 대견하고
예쁘기만 한 <아리술>의 무대가 끝
나고 무대에 등장한 팀은 <통클>이
다. <통클>은 2010년부터 사랑방



문화공헌 참여를 시작으로 데뷔한 통기타팀이다. 성남, 용인에 거주하는 2~30대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클럽이라서 그런지 레퍼토리도, 무대매너도 신선하고 상큼하다. 이날 이들이 불러준 노래는 M.N.J의 '후애', 김건모의 '첫인상', 버스커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인가'였다. <통클>의 공연을 보다보니 이들의 연습장도 언젠가는 한 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다.

이 날의 피날레는 사회를 본 신용배씨가 클럽지기로 있는 <여섯줄사랑>의 무대였다. 배따라기의 '은지', 펄시스터즈의 '커피한잔', 박강수의 '바람이 분다', 고은희·이정란의 '사랑'이 불리워졌고 <여섯줄사랑>에게 무대는 삶의 전부인 것처럼 행복이 느껴지고 즐거움이 느껴졌다. <고은소리>, <포엠송>, <기타 홀릭>, <통클>, <여섯줄사랑>... 음악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어찌 살았을까하는 생각이 든 한마당 공연이었고! 아바의 노래 'Thank you for the music',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의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라는 말이 떠오르는 가을저녁이었고, 공연명에서 명시한 '시민과 가까이 하고픈' 바람대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간 행복만끽의 공연이었다.





오픈아트페스티벌 I - 五月에... 詩書畵展

일시_ 2015년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_ 성남아트센터 큐브사랑방 앞마당 | 글·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곽재구, 김소월, 안도현, 하이네, 김영랑, 피천득, 조병화, 릴케, 정지용, 신석정 황금찬, 괴테, 김유정, 밀턴, 도중환, 노천명, 벤 존슨의 공통점은 오월을 노래한 시인들이라는 것이다. 태양이 작열하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성남시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관 전시실에서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사업으로 <오픈아트페스티벌> 첫 번째 이야기의 오프닝 행사가 열렸다.

일반적인 전시회와는 다르게 시와 그림과 서예와 캘리그래피와 작가와의 토크, 북 콘서트와 연주가 있는 감쪽 발랄하며 도발적인 종합예술의 장이기에 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이 제법 잘 어울린다. <다사랑회>, <도화지애>, <바림>, <분당민화>, <분당수채화가회>, <분당해드로잉>, <서현아티스트>, <수묵향기>, <수선화>, <아파피>, <아름아피>, <예다움>, <포토저널성남지국>, <하늘빛아플리에>, <산성문학>, <탄천문학>, <해동문학>, <늘푸른챔버오케스트라> 회원들을 비롯해 서예가인 학천 이상명, 캘리그래퍼인 봉산 김시형, 예향 염은숙, 청연 곽은영, 청향 신민정 등까지 대거 참여했으니 전시장이 온통 잔치분위기였다.

벽에 걸린 그림들과 시를 둘러보는 동안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늘푸른챔버오케스트라>가 오프닝 연주를 시작하자 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랑방문화클럽> 정천석 운영위원장의 개회사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이영진 부장의 축사에 이어 본격적으로 시낭송이 이어졌다. “일탈을 꿈꾸며 푸른 물감 한바가지 풀어놓는다/ 산 그림자이고 흔들리는 이랑마다 푸른 물결 호숫가에 묻어나면/ 떠도는 꽃잎 겨안고 분수대 물줄기에 앉아 오르락 내리락 한낮의 꿈속으로 빠져든다.” 〈해동문학회〉 소속 양 호 시인이 문학소년으로 돌아가 또박또박 그리고 담담하게 ‘일탈을 꿈꾸며’라는 자작시 낭송을 시작했고 손종구 시인이 자작시 ‘봄마중’을, 석용호 시인이 자작시 ‘청풍호’를 〈늘푸른챔버오케스트라〉 박숙종씨의 바이올린 연주를 배경으로 낭송해 주었다. 또한 〈산성문학회〉 회원인 정영례 시인이 신석정의 시 ‘그 먼나라를 알으십니까’를, 마금숙 시인이 한용운의 시 ‘사랑하는 까닭’을, 박 향 시인이 ‘알밤의 사랑이야기’를, 김정일 시인이 이정하의 시 ‘그립다는 것은’을 낭송했으며 〈탐천문학회〉 회원인 조선형 시인이 유치환의 시 ‘행복’을, 박영애 시인은 피천득의 시 ‘오월’을, 선정화 시인은 조지훈의 시 ‘승무’를 낭송해 경청자들로 하여금 가슴 한 켠 묻어두었던 감성을 도출시키게 했다.



시서화전에서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던 코너는 석용호 시인의 북 콘서트였다. 석용호(필명: 石花) 시인은 ‘꽃잎 허공에 파문을 빔다(2009년)’, ‘석정원 마음에 그림 그리며(2013년)’, ‘석정원 뜰에 꽃이피며(2015년)’의 저서를 펴낸 바있으며 월간모던포엠 신인상 등단(2009년), 한울언론문학대상 수상(2004년), 한국문인





협회 정회원, 해동문학 정회원, 광주문학 정회원, 한국도로공사 수리터널관리소장이라는 다채로운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석용호 시인은 우병택 시인과의 대담에서 다작을 한 계기에 대해서 그 에너지는 어머니이며 관절염의 통증을 안고 사시는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사랑을 담아 시를 쓰게 되었으며 꾸밈없이 마음가는대로 적어 가다보니 3집까지 연작시집을 내게 되었다고 피력했다. 시가 한쪽의 서화에 담기고 육성으로 전시장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 <오픈아트페스티벌 I - 오월에...시서화전>은 화기 애매한 리셉션으로 마무리하면서 첫 날의 테이블을 끝냈다. 한편 이날 1부 사회는 <도화지애>의 조현숙씨가 맡았고 2부는 <해동문학회> 김민서씨가 맡아 진행했으며 석용호 시인은 자작시집 3권 모두 참석자들에게 선사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한다/ 두 눈을 감고 잠을 청할수록/ 눈동자만 점점 커져갈 뿐이다/ 팔다리에서 송곳 통증이 시작된다/ 한쪽에서 시작하더니/ 장단 맞추어 양쪽을 오간다/ 못이라면 뽑아 버리면 그만일 텐데/ 평생을 눈발에 쫓그려 앉아/ 오로지 흙냄새 맡으며 살아온/ 보은의 선물로 대신 받는 걸까/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206개의 뼈마디가 망가지는 줄도/ 모른 채 달려온 세월의 끝자락/ 병상까지 가져온 어머니의 고통을 자식이 대신할 수만 있다면/ 시작은 있어도 끝자락이 보이지 않아/ 회한의 눈물이 가슴타고 흘러내린다” (석용호 시)





시원한 가을, 초승달 아래 색소폰 음이 울린다 가을맞이 어울림 한마당

일시_ 2015년 9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_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 글·사진_ 조진희 시민작가

〈해피색소폰〉 그룹에서 한 주자는 늦은 나이에 배우니까 운치 있어서 와이프가 좋아한다고 자랑한다. 〈씨밀레콰이어〉는 때로 피아노 반주자와 사인이 맞지 않기도 하고 남성 단원은 첫 음 시작이 조금 늦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모두 아마추어 합창단이 가지고 있을 법한 애교로 넘어갈 수 있다. 오히려 멋쩍어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친근감이 느껴진다.

〈고은소리〉의 공연을 보니 나도 모르게 저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관중에게 재치있는 멘트로 답을 해주면서 분위기도 살릴 줄 아는 아줌마들의 소탈함과 원숙함이 느껴지던 〈고은소리〉. 슬픈 노래 ‘웨딩케익’에서부터 ‘You are my sunshine’까지 분위기있는 연주가 선선한 날씨에 젖어 들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나온 〈해피재즈앙상블〉은 색소폰과 리듬 파트 악기를 연주하며 유려한 색소폰 연주가 가을 밤을 근사하게 만들어 준다.





가을밤에 보내는 음악편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일시_ 2015년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_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 글·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아, 가을이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가을밤에 보내는 음악편지>를 취재하러 가는 길. 차창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문득 낙엽그림이 있는 편지지에 시를 적어 빨간 우체통에 넣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청마 유치환, 박인환, 안도현의 시들이 떠올랐다.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질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안도현. 가을엽서)”, “너의 추억을 나는 이렇게 끌고 있다 (유치환. 낙엽)”

마치 천사들의 합창인듯, 어린이 합창단인 <작은물소리합창단>은 ‘아기나뭇잎’, ‘노래로 만든 세상’, ‘숲의 요들’, ‘숲속’, ‘풍선’ 등 순수하고 맑은 음색으로 가을밤에 보내는 첫 번째 음악편지를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이어진 무대는 <늘푸른 챔버오케스트라>와 <분당청소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Allan Silvesrti 작곡의 ‘Forrest Gump Suite’와 Andrew Lloyd Webber 작곡의 ‘The Phantom of The Opera’를 선보였다. 실버 합창단이긴 하지만 개성 넘치고 끼로 뽐낼 뭉쳐있는 <고을합창단>의 무대는 역시나 멋지고 훌륭했다. John Luther가 작곡한 ‘For the beauty of the earth’와 윤용하 작곡의 ‘나뭇잎배’. 그리고 Mocedades ‘Eres Tu’가 세 번째 음악편지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과 성인으로 이루어진 플룻연주단체 <The golden flutes>의 황규리, 강진리 듀오 연주자가 Franz Doppler 곡인 'Andante and Rondo for 2 flutes and piano. op. 25' 를 음악편지에 담았고 <아주소년소녀합창단>이 '맘마미아 메들리'와 'La Bamba'를 들려주었다. <사랑방문화클럽>에서 올 한해 어떤 단체들보다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던 <카밀라폴&벨리댄스> 팀의 무대는 인도 정통 음악에 맞추어 신비하고도 오묘한 아름다움의 세계를 관객들의 눈과 귀를 호강시켜주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뮤지컬과 팝을 망라하며 연예인 못지 않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비전콰이어>가 등장했다. 변진섭의 '새들처럼', 'Les Miserables' 주제곡을 불러주었고 비장의 카드인 '빠빠빠'를 일명 '5기통춤'과 함께 불러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아카펠라를 중심으로 어쿠스틱, 재즈를 아우르는 음악을 추구하고 있는 <하이파이브>가 이날 관객들에게 마지막 음악편지를 보내면서 <가을밤에 보

내는 음악편지>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공연을 총 기획했던 <하이파이브>의 고웅씨는 "연초 4월부터 '음악의 향기'팀을 조직해 아이디어 기획 회의를 해왔고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 단체가 출연하다보니 무대 전환에 따른 순서배치에 고민이 많았어요. 공연 순서에 불만이 생길까 우려도 했지만 다행히 이견 없이 모두가 협조한 덕에 잘 끝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무대운영 스태프분들이 발빠르게 적재적소에 음향과 장비를 배치해주셔서 연주 시간이 늘어지지 않고 탄탄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공연을 준비한 클럽들,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준 관객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신 재단 식구 여러분들, 음향·조명·무대 감독님들, 스태프분들! 이들 모두가 풍성한 가을밤의 음악회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라며 소감을 밝혔다. **중앙공원의 가을밤은 어느덧 깊어가고 공연의 감동도 깊어가고... 아~ 가을이다.**

점음과 낭만, 오늘도 축제다 찾아가는 사랑방축제

일시_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6시 | 장소_ 구 시청앞 숲골 문화광장 | 글·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전시회가 6일 울동공원 책테마파크에서 펼쳐진 가운데 10월 7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성남 본도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구 시청 앞 광장에서 <찾아가는 사랑방축제>가 펼쳐졌다. 이날 공연은 「사랑방문화클럽축제」를 홍보하는 목적도 있지만 신도시에서 열리는 축제에 접근성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본도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기도하다. 사회자로, 취재자로 숲골광장을 찾은 오후! 리허설을 하는 동안 짬짬이 만나본 공연자들의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다. 연주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늘푸른첼버오케스트라> 박숙종 단장과 해후의 기쁨!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나의 지인들이 내가 SNS에 올린 공연소식을 보고는 찾아와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안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동안 객석은 어느덧 가득 찼고 드디어! 막을 올릴 시간이다.

오늘 공연의 첫 무대는 동서울대학교 연기예술학과로 구성된 B-BOY팀으로 이민현, 박지은, 정지슬의 'Shut it down'이다. 현란하며 역동적인 공연에 관객들이 환호. 첫 무대부터 앙코르가 외쳐진다. 두 번째로 이어진 <흰여울>의 무대는 뜨거운 열기를 잠시 가라앉히는 차분한 분위기의 곡들을 선보여 계단을 오르다 잠시 다리를 쉬게 하는 계단참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김승경, 정순리, 최선화, 김수경이 '아름다운 구속', '붉은 노을'을 부르자 관객들이 흥겨워하는 모습이다. <흰여울>의 마지막 곡은 '일어나'이다. 기왕 분위기 띄우는 거 내가 마이크를 잡고 "다들 일어나세요!"라고 외치자 모두들 일어나 함께 떼창으로 '일어나~'를 부른다. 공연자와 관객이 따로없는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다.





엔트리 넘버 3은 동서울대 연기예술학과 뮤지컬팀인 기태훈, 윤재윤, 이경호, 이유진, 안혜린이 들려주는 브로드웨이 대표 뮤지컬 'Rent' 중 'Seasons of love'이다. “오십이만 오천 육백분의 귀한 시간들. 우리들 눈 앞에 놓인 수많은 날들. 어떻게 재요? 계절로? 매일 밤 마신 커피로? 만남과 이별의 시간들로? 그 오십이만 오천 육백분의 귀한 시간들, 어떻게 말해요. 산다는 것을 그것은 사랑, 사랑으로 느껴봐요. ♪ ♪” 좋은 노래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있는 노래인데도 새내기로 구성된 뮤지컬 팀의 실력이 출중하다. 이 친구들 졸업할 때쯤이면 정말로 프로페서

널한 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 커튼콜을 하는 멤버들을 한 사람씩 소개하며 관객들에게 “이 친구들 얼굴 꼭 기억해주세요~”라고 멘트하자 관객들이 마구 마구 스마트폰 셔터를 누른다.

이어 무대에 오른 <늘푸른챔버오케스트라> 박숙종 단장과 동서울대학교 연기예술과 김민수, 우수빈, 이희준의 무대는 바이올린 연주와 현대 무용의 컬래버레이션 융복합 공연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생의 회전목마', '알라딘 O.S.T', 'Fly me to the moon' 등 바이올린 선율에 맞추어 댄서들이 혼신을 다한 춤을 엮자 연주곡들이 또 다른 생명력을 갖는다. 연기예술에 끼를 겸비한 학도들이기에 연주자와 혼연일체가 되는 무대를 만들 수 있었을 터.

K-Pop팀 이희준, 마연수, 류지희, 장희연, 김솔지가 만든 무대 '레드벨벳, 행복'과 <해피패밀리앙상블>의 공연은 따뜻한 행복을 전해주는 무대였다. 특히나 <해피패밀리앙상블>은 단체이름대로 한가족이 만든 앙상블이다. 아버지 황병진, 어머니 박미자, 딸 황지혜. 이렇게 세명의 가족이 색소폰 트리오팀을 구성해 활동 중이다. 이날 해피한 <해피패밀리앙상블>이 연주한 곡은 '그대 그리고 나', '체리핑크맘보'.

아버지가 테너 색소폰, 엄마와 딸은 알토 색소폰. 연주도 좋지만 색소폰이라는 악기로 화합하는 가족의 행복한 모습에 부러운 마음이 절로 든다.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한 팀은 초청 퍼포먼스 그룹으로 참여한 <티에스아트컴퍼니>이다. 멤버인 김태수, 김근형, 정순옥, 정철규, 한우리, 이현경 역시 동서울대 연기예술학과 출신들이라는데! 타악과 비보이가 어우러지는 쇼타임에 관객들이 앙코르! 앙코르! 저녁 바람이 제법 쌀쌀해지고는 있지만 숲골광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축제 퍼레이드에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굴뚝같다.



오픈아트페스티벌 II - The Classical Nude... 전시 및 공개 크로키 & nude사진 촬영 행사를 마치고

일시_ (전시) 2015년 7월 27일 월요일 ~ 8월 2일 일요일, (공개 크로키 및 촬영) 2015년 8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_ 성남아트센터 큐브사랑방 및 전시실 | 글_ 김미아 시민작가 | 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여름, 지난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일요일까지 <사랑방문화클럽> 전시팀 주최로 성남아트센터 내 사랑방큐브 전시실에서 ‘오픈아트페스티벌 2 - <The Classical Nude...>’ 전시가 있었다. 이번 전시는 지난 5월 ‘오픈아트페스티벌 1 - <오월에...시서화展>’에 이어진 전시로 <분당해드로잉>(클럽지기 박봉덕)과 <포토저널 성남지국>(클럽지기 선순남), 두 클럽이 함께 하는 전시로 nude 크로키 작품과 nude 사진을 함께 기획·전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작품 반입과 디스플레이에서는 두 클럽 회원들이 힘을 모아 서로 협력하여 일을 진행했고, 500부의 전시도록을 함께 접고 전시장 당번 일정을 조정하는 가운데 훈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일주일간의 전시 일정을 함께 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전시 기간 내에 성남아트센터와 <사랑방문화클럽> 최초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크로키 및 누드사진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라서 모두가 긴장하는 가운데 행사를 준비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 여전히 누드는 예술 작품이 아닌 외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다가 단순히 호기심만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이런 기우도 잠시, 8월 1일 토요일 행사 당일 오후부터 진행된 준비 과정에서는 성남아트센터 문화기획부와 모든 임원진과 클럽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차근차근 행사를 준비했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리허설에서는 <늘푸른챔버오케스트라>와 <카밀라폴&벨리댄스> 회원들이 본 행사 개막 무대로 펼쳐질 화려한 벨리댄스를 선보였다. 여기에 뮤지컬 배우 김형식씨가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에서 두 곡과 ‘지킬 앤 하이드’에서 한 곡을 부르자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됐고 ‘공개 크로키’와 ‘누드사진 촬영’에 참여할 일반 성남 시민들이 많이 방문해 큐브사랑방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오후 4시, 행사가 시작됐다. 박봉덕 <사랑방문화클럽> 부위원장(전시담당)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본격적으로 공개 크로키에 들어가기에 앞서 <늘푸른챔버오케스트라>의 ‘가면무도회’, ‘여인의 향기’, ‘하얀거탑의 비로제’ 등 3곡의 멋진 연주와 <카밀라폴&벨리댄스>의 화





려하고 풍성한 식전 공연 그리고 뮤지컬 배우 김형식씨의 열창으로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드디어 4시 30분, 40분간의 ‘공개 크로키’가 시작됐다. 크로키에 참여하는 사람들 외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서울아트모델협회의 김기현, 조지영 두 모델은 <늘푸른챔버오케스트라>의 박속중 클립지기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퍼포먼스를 펼쳤다. 숨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진지한 가운데 ‘속속’, 목탄이 지면을 스치는 소리와 ‘샤샤삭’, 마치 카메라 셔터처럼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들린다.

‘공개 크로키’를 마치고 10분 간의 휴식 후에 이어진 행사는 ‘누드사진 촬영’. 프로페셔널 사진 작가들과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뜻 깊은 자리다. 행사 특성상 DSLR 카메라를 소지자들만 참여가 가능했는데 행사가 시작하자마자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사방에서는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성황리에 마친 ‘공개 크로키’와 ‘누드사진 촬영’.





본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박봉덕 부위원장(전시담당)은 “회화의 전조 작업이자 인체 드로잉인 누드를 통해 오픈된 공간에서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예술의 신선한 충격을 공유했다.”며 본 전시 및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본 행사를 취재한 시민작가로서 또 ‘누드 크로키’ 전시에도 함께 참여하고 ‘공개 크로키’에도 참가한 <분당해드로잉>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사랑방문화클럽> 전시팀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 예술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하길, 클럽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활성화되길 바라본다.





책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일시_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 장소_ 충원구청 대회의실 | 글·사진_ 조진희 시민작가

제목만 들었을 때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행사장을 들어섰을 때 그런 궁금함은 싹 사라졌다. 벽면에는 시화 40편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행사는 어울림이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 맞았다. <이매우리춤>이 동초 수건춤과 장구춤을 선사하고 나니 <점핑플리즈>의 우쿨렐레 연주가 따뜻하게 강당 안에 울려 퍼진다. 특히 하와이안 복장을 하고 연주하는 'Aloha'는 듣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어진 <분당청소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는 학생들의 고운 마음씨 때문일까? 강당 안의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진 기분이다. 그리고 이어진 9명의 시인들의 시낭송. 어울림이라는 단어는 공연만이 아니라 <해동문인회>, <탄천문학회>, <산성문학회>, 세 개의 문학회가 합쳐져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외에 한상운 작가를 모시고 '거친 밥 먹고 배운 입기' 작품을 가지고 인물 분석과 시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쇼의 형태도 구성하여 문인들과 관객들을 즐겁게 하였다.



영화, 음악에 날개를 달다 <시네마콘서트>

일시_ 2015년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_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 글·사진_ 최승은 시민작가

사람들은 왜 영화를 볼까? 이야기가 좋아서 때로는 음악이 좋아서 우리는 영화에 빠지고 추억에 잠긴다. 영화에는 의미와 감동, 인생과 사랑이 있다. 특히나 OST는 시간을 거스르는 매력을 갖고 있어 음악을 듣노라면 모르는 사이에 위로와 치유를 경험한다.

2015년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시네마콘서트가 열렸다. 소나기 쏟아지는 가을밤, <사랑방문화클럽> <라푸노스> 외 세 팀이 '영화, 음악에 날개를 달다'라는 제목으로 음악회를 열었다. 첫 출발은 그랬다. 이제 클럽별 공연이 아닌 테마별 공연을 해보자, 한 단계 더 높은 문화공연을 마련해보자, 가을밤에 어울리는 멋진 콘서트를 지역주민에서 선물해보자 하여 록 밴드 <푸노스(Punos)>의 클럽지기 이현창씨의 기획으로 영화와 어우러진 OST를 고르게 되었다. 용인대 임형수 교수의 코디네이트로 보다 규모 있게 마련된 이 공연은 김은정씨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핑거스타일 기타클럽 <라푸노스>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뜻하는 ALL SOUND를 거꾸로 읽어 이름 지었다. 클럽지기 홍경숙 외 12명의 회원은 클래식기타 뿐 아니라 쟈미, 바이올린, 드럼, 플루트, 우쿨렐레 등 다양한 악기를 고루 다룬다. 지난



십 년 간의 활발한 활동과 지역 봉사로 모범클럽상을 받았다. 첫 곡은 모두가 사랑하는 영화 '시네마천국'의 주제곡이다. 기타로 연주된 세 곡에 이어 포크 싱어 김필모씨와 클럽 <포엠송>의 김은희씨가 합류, 기타와 밴드 그리고 노래가 어우러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었다. 영화 'Rush'의 OST 'Tears in Heaven'을 두 사람이 노래하자 청중은 깊은 감상에 빠졌다. **사람의 목소리는 가장 훌륭한 악기였다.**



이어 피아노, 드럼, 플룻. 호른, 네 명의 클래식 연주자로 구성된 <도프양상블>이 참신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도프는 매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성된 지 2년, 그 동안 클래식



과 재즈, 뉴에이지와 팝을 오가며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연주를 들려 주었으며 특히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악기가 없는 앙상블의 음색은 독특하고 부드러웠다. 회원 김강민씨의 말대로 새로운 음색, 모던한 편곡과 연주가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영화 '여인의 향기' OST가 연주될 때는 관객 모두가 탕고 선율에 매료되어 스크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무대 배경이 된 영화스크린은 미디어센터의 이은숙씨가 편집한 것이다. 감동의 명장면을 두루 모아 마치 우리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 착각할 정도였다.

느닷없이 전환된 분위기, <프리업엔터테인먼트>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다. 7080 세대에게 디스코 열풍을 가져온 영화 'Saturday Night Fever', 댄스영화를 대표하는 'Step up'의 힙합 군무 등 그들의 퍼포먼스가 앙상블시어터를 젊은 열기로 그득 채웠다. 클럽지기 정선주 외 9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술적 끼와 풍류를 보여준 무대였다. 각종 대회 입상과 다수의 방송출연 경험 덕일까.



음악과 춤으로 주고받는 관객과의 소통이 유독 매끄러웠다.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예술로서의 춤은 우리의 원초적 감각을 깨우는 것이 분명했다.



마지막 순서는 록밴드 <푸노스>, 소리 혹은 선율을 뜻하는 Sound의 역순음이다. 음악이 좋아 오랜 시간 함께 하며 가족이 된 사람들, 기타와 여성보컬이 부부로 맺어졌고 드럼과 키보드는 부녀지간이다. 거칠고 남성적인 록 음악을 연주하지만 알고 보면 한없이 부드럽고 유연한 내유외강의 음악세계를 갖고 있다. 막간을 이용, 사랑하는 연인에게 프러포즈하는 깜짝 순서가 있었다. 보컬 양호원씨가 11월 결혼식을 앞두고 <시네마콘서트> 무대 위에서 꽃다발과 함께 사랑을 고백한 것이다. 만천하에 공인된 품절남, 그가 영화 '쉬리'의 주제곡 'When I dream'을 노래하자 사랑의 간절함이 청중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이어 'Bad Case of Loving you'와 'Knocking on Heaven's Door'를 연주할 때는 터프한 록밴드의 경지를 보는 듯했다. 청중과 함께 후렴을 주고 받으며 공연은 클라이맥스로 치솟았다.

양코르 무대에서 천국의 문(Knocking on Heaven's Door)을 두드린 모든 출연자들! 시간이 아쉬워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관객들! 이들이 거의 흠어질 즈음 초가을밤은 더욱 깊어졌다. 지역 주민 진 철규씨 부부는 수준 높은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어 뿌듯했다며 갈수록 문화기획이 돋보임을 언급했다. 함께 온 지인들 역시 대만족이라며 장소와 무대도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초등학교 두 아들과 함께 온 이해정씨는 성남시민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이런 공연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앞으로 공연소식을 미리 접할 수 있으면 꼭 다시 오겠다고 아이들과 약속했다. **좋은 문화공연은 삶을 살찌운다.** 특히나 상처받기 쉬운 현대인에게 자발적인 문화활동은 힐링과 희망을 준다. <사랑방문화클럽>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음에 관객인 나도 만족스런 밤이었다.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평가서

동일장르 코디네이터_ 장운섭(성남예총 사무국장)

■ 코디네이터의 기본방향

- ▷ 공연기획 컨셉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한 조언
- ▷ 정형화된 공연의 틀을 벗어나 환경과 타깃에 따른 특색 있는 무대 창출
- ▷ 공연팀 혹은 장르간의 협력이 조화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제안
- ▷ 연희자(생산)와 향유자(소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매니지먼트

■ 모델사업 선정 내용

- ▷ 팀 명 : 큐브사랑방 클럽데이
- ▷ 참여클럽 : 〈라푸노스〉, 〈마틴팬더깁슨〉, 〈세실기타〉, 〈이구동성〉, 〈레이디고고〉
- ▷ 동일장르 선정배경
 -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협력 작업을 위해 필요한 시간적 한계를 감안
 - 코디네이터의 기본방향과 구성 팀원들의 프로젝트 신청 취지 부합
 - 주요 추진방향을 진행하기에 유연한 팀 워크와 팀 내용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준비와 진행 과정

- ▷ 1차 모임 - 공연 기획방향과 테마설정
 - 주제 : 커피 향으로 느끼는 봄 나들이 〈2015 쌀롱콘서트〉
 - 커피, 통기타, 청바지, 쉼시봉 등 7·80년대 감성코드의 소재들을 테마와 배경으로 구성
- ▷ 2차 모임 - 구체적 공간 연출 및 스토리텔링(시놉시스) 작성
 - 향수가 묻어나는 소품과 장식으로 공간(무대+객석) 활용과 연출 (7·80년대 포스터, 커피잔, 메뉴판, LP판, 성냥 등)
 - 관객은 공연장이 아닌 동네 찻집에 와 있는 편안한 분위기 유도
 - 찻집 주인으로 분 한 마담의 스토리텔러로 무대와 관객, 연주 장르 간의 이분법적 간극을 없애는 역할
- ▷ 최종 점검 및 공연
 - 공연장 환경과 분위기 연출을 위한 소품의 적절한 배치
 - 팀 별 리허설과 진행 시스템 점검



■ 결과에 대한 평가

짧은 시간의 준비와 과정이었지만 연희자와 관객이라는 구분과 거리감을 좁히고 7080 세대의 시대적 감성과 추억을 자극하는 테마와 함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에 비교적 만족한다. 비록 수준 높은 공연 내용에 대한 만족은 아닐지라도 서로의 재능들이 다양한 형태로 어우러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앞으로 보다 폭넓은 협의와 실험들로 다양한 구성과 연출을 해낼 수 있다는 참여 구성원들의 자신감이 엿보였다. 특히 찾집 주인 마담이 공연전과 팀 연주 사이에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마치 이웃과 소담을 나누듯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자처한 스토리텔러 역할은 관객에게 또 다른 재미와 호흡의 폭을 넓혀주었다. 개별 팀 연주만큼 중요했던 창의적 협력 공연과 주제에 대한 팀 전체의 공유와 조율들이 팀 전체가 모이기 힘든 환경과 짧은 시간들로 인해 기대에 디테일이 미치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러한 창의적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 이어진다면 팀원들의 연주 실력뿐 아니라 감각과 감성을 극대화하며 보다 창의적인 축제 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 ▷ 전형적 무대가 아닌 카페, 상점, 교육장, 작업장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친숙하고 창의적인 공간 창출과 실험적 무대로 활용
- ▷ 프로젝트 진행일정의 시간배분과 사전미팅 확대
- ▷ 공연 콘셉트에 따른 추후 예산 변경의 유연성을 위한 행정보조
- ▷ 주제와 특정 계층의 관객을 타깃으로 하는 소규모 기획프로그램 개발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평가서 클래식과 스트리트의 짧지만 강렬한 포옹

융복합장르 코디네이터_ 정지호(동서울대학교 연기예술과 학과장)



예술이 대중화를 선언한지가 언제부터이던가. 재능을 타고난 사람 혹은 그런 교육을 받은 특별한 사람만이 예술을 하던 시대는 이미 이별을 고했다. 자식 다 키운 옆집 아주머니는 아침마다 심신건강을 위해 춤과 함께하고, 밤이면 퇴근 후 윗집 아저씨의 색소폰 소리가 자장가 마냥 귓가에 맴돈다. 먹고 살 만큼 부를 축적했거나 혹은 부의 무상함을 일찌감치 깨달은 선인이라면 감각과 감성을 일깨워주는 음악과 춤, 시와 그림, 연극과 독서를 위한 예술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낼 것이다. “생활 속의 예술, 예술 속의 생활”의 슬로건을 내걸고 예술의 대중화에 앞장선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이 어느덧 9살이 되어 성남시민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서론이 길었다. 이번 2015년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를 주관한 성남문화재단에서는 그 변화의 모색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고,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예술장르 간 결합하는 과감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코디네이터를 기용하였다. 나는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에서 융복합장르의 코디네이터를 맡았다. 그리고 박숙종 바이올린 연주자와 박지은 스트리트 댄서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융복합장르의 미션은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하여 새로운 무엇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이미 수년간 한 분야에서 꾸준히 클럽 활동을 해온 박숙종 시민예술가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사를 밝혔다. 굳어버린 매너리즘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에 뛰어든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클래식과 가장 반대급부에 있는 스트릿 댄서 박지은 시민예술가를 찾게 된 것이다.

박숙종, 박지은 시민예술가의 연습방식은 소통과 의지 그리고 즉흥의 연속이었다. 티켓을 팔아 수익을 남겨야 하는 경제적 고통이 없기에 그들의 작업은 무엇보다 순수하고 예술적이며 자율적이고 능동적이었다.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로 서로의 소리와 움직임에 오감을 세웠다.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이었기에 음악은 대중적이면서 작품성 있는 3곡을 선정하였고, 박지은 시민예술가는 다양한 장르의 춤을 즉흥으로 콜라보 하였다. 박숙종 시민예술가는 자신의 음악에 온 몸을 던지는 박지은 시민예술가를 바라보며 활에 숨을 넣었고, 박지은 시민예술가는 바이올린 소리의 템포와 리듬에 몸을 맡겼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소리를 만들과 몸을 움직인 것이다. 그리고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나눴던 것이다. 그 결과 클래식과 스트릿의 짧지만 강렬한 포옹은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였다.

그들은 또 뭉쳤다. 성남시 내 민간예술단체가 기획하는 제1회 <판교거리예술축제>에 권성혜 피아노 연주자와 전재곤 콘트라베이스 연주자까지 힘을 보태어 판교에 돛자리를 깔았다. 이제 그들은 자기만족을 넘어 바이올린과 스트릿이, 스트릿과 피아노가, 바이올린과 콘트라베이스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고민한다. 이들이야말로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이 탄생시킨 진정한 성남시민예술가이며 문화융성을 위한 창조적 인적자산이다. 경제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어 쓰고 없어지지만, 예술적 가치는 삶으로 환산되어 영생한다.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평가서

창작장르 코디네이터_ 임형수



1. 사업취지 및 목적

- 1) 클럽 간의 교류 활성화와 화합 증진
 - 단일클럽에 대한 지원이 아닌 다양한 팀이 연합으로 구성되어진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클럽 간의 교류를 유도하고 하고 화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 2) 타 장르와 결합된 복합적 공연 환경 조성
 - 각 클럽의 장점과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장르와의 결합을 통하여 복합적인 공연 형식을 창조할 수 있는 공연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 3) 공연제작과정의 체계적 이해와 실행능력 고양
 -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연단계에 이르는 다양한 공연제작 과정을 체험하고 실행함으로써 공연의 예술적 성장을 도모한다.
- 4)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클럽활동을 통한 자아 실현
 - 코디네이터의 지원과 주도가 아닌 클럽 회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클럽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사업 경과

사업은 기획단계, 콘셉트구성회의 단계, 실행점검회의 단계, 극장기술회의 단계, 리허설 및 공연단계, 평가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1) 기획단계

- 예산분배, 팀구성, 연습 및 공연장소 섭외 문제, 역할 분담, 기술진 섭외, 팀별 미팅 일정, 전체 미팅 일정 등 회의 및 공유

2) 콘셉트구성회의 단계

- 프로그램 콘셉트회의, 각 팀별 프로그램 구성, 영화영상 선별 작업, 구체적 업무 분장, 조명 및 무대 디자인 콘셉트, 홍보물 콘셉트회의, 일정 재조정 등 회의 및 공유

3) 실행점검회의 단계

- 각 팀별 연습 상황 점검, 영화 영상 편집 상황 점검, 공연 구성 점검, 무대 및 조명 디자인 점검, 홍보물 점검, 일정 점검, 기술진 섭외 점검, 큐시트 작성 등 회의 및 공유. 불분명하거나 미진한 것에 대한 재점검 일정 조정. 시간 관계상 전자문자 등으로 연락, 공유하기로 함.

4) 극장기술회의 단계

- 극장(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기술 스태프와 클럽 회원 간의 상견례 및 기술회의. 조명감독, 무대감독, 음향감독 등과 함께 미리 준비한 큐시트를 중심으로 점검 및 보완. 셋업 일정과 리허설, 공연 일정 조율을 하였음.

5) 리허설 및 공연 단계

- 기술회의 때 정해진 일정에 따라 리허설 진행.
- 직장인들과 기술적인 미비사항들 때문에 일정이 다소 지연됨.

6) 평가단계

-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행함
- 팀별 보완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주로 토론하였음

3. 사업평가

- 1) 클럽 간 교류와 장르간 결합 공연 창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클래식과 대중음악, 음악과 영상 등 클럽 간의 교류와 장르간 결합에는 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공연 제작 과정의 체계적 이해와 실행 능력의 고양은 당장 평가할 수 없다.
 - 이 문제는 실제로 오랜 숙련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행하여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 3) 클럽 회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고 좀 더 과감하고 폭넓은 시도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 좀 더 다양하고 획기적인 장르간 결합과 실험을 통하여 공연의 새로운 형식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럽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4) 코디네이터 제도에 대하여 클럽회원들의 필요와 절실함이 중요하다.
 -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클럽회원들의 사고의 전환과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4. 사업 발전 방향

- 1) 선발시 좀 더 다층적인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서류심사 뿐 아니라 면접심사와 전년도 실적 등 좀 더 다면적인 심사를 통하여 선택과 집중하는 심사운영의 묘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 좀 더 치밀하고 과감하면서 도전적인 장르간 융합이 필요하다.
 - 기획서 작성때부터 좀 더 세세하고 실현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고, 음악 클럽 간의 교류 뿐만 아니라 음악과 무용, 무용과 문학, 미술과 음악, 미술과 문학 등 좀 더 폭 넓고 과감한 장르간 실험이 요구된다.
- 3)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획과 실행이 중요하다.
 - 좀 더 체계적인 다년 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성 공연이 아니라 비전과 안목을 토대로 장기적인 자원과 계획의 실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 4) 평가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제도 확립이 중요하다.
 - 전년도 계획과 실행을 평가한 평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지원을 차등하고, 우수한 클럽과 공연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클럽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의식과 예술적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 5) 다년간 지원사업의 최종 비전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 사업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고, 이 사업이 몇 년 간 지속 가능하며, 지원제도를 통하여 성취하고 싶은 사업 목표를 단계적으로 분명히 설정하여 이를 클럽 회원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성남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모색할 필요가 절실하다.

04

PART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공헌프로젝트」

“

〈사랑방문화클럽〉과 지역사회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는 「문화공헌프로젝트」, 「문화공헌프로젝트」란 〈사랑방문화클럽〉이 직접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 펼치는 생활 예술 공연 및 강좌를 말하는데요, 직장인들에게 공연을 선물해주는 도시를 즐겁게 하는 〈도시락콘서트〉부터 성남아트센터 춤의 광장에서 공연을 펼쳐 성남아트센터를 시민들의 음악 쉼터로 만들어 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분수음악회〉와 〈지역근로자와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그리고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태평3동 복지관에서 진행됐던 어린이 미술교육까지! 생활예술을 통해 〈사랑방문화클럽〉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그 아름다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지역 근로자와 함께하는 도시락 콘서트

쑥쑥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랑방문화클럽!

일시_ 2015년 7월 31일 금요일 12시 | 장소_ SKn테크노파크 | 글·사진_ 조여일 시민작가

<사랑방문화클럽>, 분명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었다.

지난해, <사랑방문화클럽>은 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에서 직장인을 위한 <도시락콘서트>를 진행했었다. 2015년, 또다시 공연 요청이 왔고 클럽 회원들은 문화공연을 위해 더운 날씨임에도 옥구슬 같은 값진 땀을 흘렸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총괄본부장이자 입주사 대표회의 총무이사인 성열웅씨는 “지난해 <도시락 콘서트>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서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밴드 동아리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무대에 서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며 실력을 쌓는다”고 한다. 긍정적인 변화다.

2015년 제1회 <도시락콘서트>는 SKn테크노파크 메가센터 A동 광장에서 열렸다. 공연 팀은 2010년 10월에 발족한 <포엠송>과 2011년에 발족, 성인과 아이들로 구성된 <한국스타벨리댄스>다. 햇별이 아스팔트를 달궈대는 한낮, 메가센터 광장에서 <포엠송> 클럽지기 이석우 씨는 음향기기와 통기타의 조율을 위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점심을 끝낸 직장인들이 아이스커피와 부채를 들고 객석에 앉아 공연준비를 지켜보며 깜찍한 어린이 벨리 댄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기도 한다.



첫 무대는 <포엠송>이다.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로 공연의 문을 연 <포엠송>은 ‘고백’, ‘너에게 난 나에게 난’ 등 여섯 곡을 기타연주와 함께 불렀다. 관객들은 더위도 잊은채 즐거워한다. <포엠송>의 공연엔 긍정적인 기운이 흘러넘친다. 그들이 연주하고 노래하면 주위가 밝아지고 더불어 사람들도 밝아지는 것 같다.

이석우 씨는 “사람들의 문화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클럽 회원들의 실력도 향상하고 발전해야 한다”며 열띤 공연 후 땀범벅된 얼굴로 활짝 웃는다.

두 번째 공연은 <한국스타벨리댄스>의 무대다. 성인들의 벨리댄스도 인기였지만 아이들의 벨리댄스에 사람들이 무한한 애정과 환호를 보낸다. ‘아지자베일’, ‘타블라페베일’, ‘마법소녀’ 등 여섯 곡의 아름답고 열정적인 벨리댄스의 공연은 더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춤이 직장인들에게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는 클럽지기 박이순씨는 “클럽 회원들이 재능 나눔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 발전하고 자신감을 얻는다”고 한다.

<사랑방문화클럽>! 그들은 묵묵하게 지금 여기! 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누면서 행복해했다. 그러므로 시나브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었다.

“지난해 <도시락콘서트>를 본 입주사들도 공연요청을 한다. 그것은 우리가 주축이 됐고 <사랑방문화클럽>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는 성열웅씨의 말을 미루어 보면 성장과 발전, 그것은 클럽 회원들의 생활예술에 대한 열정이 낳은 결과다.



지역 근로자와 함께하는 도시樂 콘서트

여름, 그 뒀안길에서

일시_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12시 | 장소_ SKn테크노파크 | 글·사진_ 조여일 시민작가

가는 여름이 아쉬운지 비가 내리고 심한 바람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날씨가 지속되면 자칫 야외 행사가 취소될 것이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스욱 얼굴을 디밀었다. 그 것뿐이라. 하늘까지 높아 가을이 문턱에 와 서성이고 있음을 예고했다.

공연장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공연관계자들이 땀방울을 흘려가며 열심히 무대 설치를 하고 음향기기를 점검하면서 공연 준비를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눈길을 끄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긴 생머리에 얼핏 보아도 초등학교 4·5·6학년 밖에 안 보였다.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고 오늘의 출연자 <폴앙상블>과 <소리사랑회>의 리허설이 시작됐다. 어라! <폴앙상블>의 리허설이 시작되자 여자아이가 팬 플루트를 들고 조은혜 회원과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닌가. 여자 아이는 조은혜 회원의 제자 6학년 임현지라고 했다.





드디어 정오! 상대원 SKn테크노파크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도시락콘서트>가 시작됐다. <풀앙상블>의 조은혜 회원이 팬플룻과 연주곡을 소개하는 짧은 설명과 함께 공연을 진행했다. 오늘의 공연은 조은혜 회원과 제자 임현지 양의 듀엣 연주로 시작했다. '암스테르담 왈츠'를 스승과 함께 멋지게 연주한 임현지 양은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게 돼서 영광스러워요. 좀 더 실력을 쌓아서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했다. 공연의 문을 연 임현지 양은 객석에 앉아 <풀앙상블>의 다음 공연을 신기한 듯 보고 있었다. <풀앙상블>은 '그대 있는 곳까지', '철새는 날아가고' 등 4곡을 더 연주하고 "회원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나이 들어가고 싶다"는 조은혜 회원의 마지막 설명과 끝 곡으로 '여행을 떠나요'를 임현지 양과 함께 연주했다.

시간이 흐르고 점심을 마친 직장인들이 속속 모여들어 공연장은 한층 생기발랄해졌고 발족한 지 12년 됐다는 <소리사랑회>가 그 분위기를 이어 나갔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분이 박수를 주시면 용기를





갖고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을 댄 클럽지기 김복심씨의 진행으로 <소리사랑회>는 밀양 태수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밀양으로 갔다가 관리와 유모의 음모로 죽임을 당했다는 아랑설화를 바탕으로 부채춤과 ‘밀양아리랑’을 선보였다. 부채춤에 이어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평균 나이 70세가 넘는 <소리사랑회>는 ‘태평가’, ‘뱃노래’, ‘자진뱃노래’로 분위기를 더욱 끌어 올리고 소고춤과 함께 ‘장기타령’을 끝으로 <도시락콘서트>는 막을 내렸다.

여름의 끝자락이며 8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열린 상대원 SKn테크노파크 <도시락콘서트>가 남긴 의미는 매우 중요했다. <사랑방문화클럽>의 대를 잇는 재능나눔 공연이었기 때문이다. “즐겁고 멋진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커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연주하고 싶어요.”라는 임현지 양을 비롯해 곳곳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수많은 예비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 그리고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현재의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있어 여름과 가을사이의 계절도 무척 아름답다.





지역 근로자와 함께하는 도시락 콘서트 음악과 해설이 있는 행복한 콘서트

일시_ 2015년 9월 4일 금요일 12시 | 장소_ SKn테크노파크 | 글·사진_ 조여일 시민작가

구월의 첫 금요일, 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광장에서 <도시락콘서트>가 열렸다. 오늘은 어떤 클럽이 어떤 노래로 직장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까, 내심 기대가 됐다.

가을별이 슬며시 내려앉은 Skn테크노파크 광장엔 벌써 무대가 설치됐고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공연 연습을 하고 있었다. 오늘 출연할 클럽은 <이구동성>과 <쥬블리오카리나양상블>다. 정오가 가까워 오면서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지도교사를 따라 무대 옆을 지나가고 직장인들이 즐거운 점심을 위해 건물에서 쏟아져 나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11시 53분! <클럽데이> 팀장이며 <이구동성> 클럽지기인 나명철씨가 공연의 시작을 알리면서 무대를 열었다. “오늘 도시락 콘서트는 <쥬블리오카리나>와 <이구동성>이 준비했습니다. 콘서트를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쥬블리





오카리나)의 공연입니다.”

〈쥬블리오카리나〉의 조은혜씨는 “오카리나는 도자기로 빚은 악기입니다. 여러 음력이 있는 악기고 악기의 크기에 따라 음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오카리나 7중주와 2중주를 연주할 예정입니다. 첫 곡명은 인어공주 주제곡이죠? ‘Under the sea’입니다.”



오카리나의 맑은 소리가 작은 광장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한 곡이 끝나고 또 한 곡을 시작할 때마다 조은혜 씨의 친절 한 설명이 있었고 식사를 끝낸 직장인들 도 차츰차츰 모여들었다. ‘감격시대’, ‘강강’ 등 총 4곡의 7중주와 2중주로 ‘피가로의 결혼’, ‘헝가리 무곡’을 연주했다. 손가락을 다쳐서 세 바늘 꿰매고도 공



연을 할 만큼 성실하고 열정적인 <쥬블리오카리나양 상블>의 공연은 가을의 문턱에서 다정하고 따뜻했다.

두 번째 무대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의 소리를 만 든다’는 클럽 <이구동성>이다. <이구동성>은 <사랑방 문화클럽> 운영위원회에서 만나 결성됐다.

나명철씨는 “각각의 클럽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 결성됐다”며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 실력이 있으므로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유형의 클럽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구동성>의 클럽지기 나명철씨가 설명을 마치자마자 <이구동성>의 공연이 이어졌다.

‘Over the rainbow’, ‘아름다운 사람’을 노래하고 연주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명철씨가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 있나요?” 관객을 향해 물었고 저쪽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던 여자 관객이 손을 번쩍 들었다. “잘됐습니다. 생일 축하곡을 부를 건데 생일이신 분이 안 계시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와~ 하하하, 관객들이 웃음보를 터뜨렸고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이구동성>의 축하 노래가 시작됐다. 음악은 이렇게 뜻밖의 선물을 하기도 한다.

생일을 맞은 조양순씨는 “이 가을에 음악이 축축하게 젖어들어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엔돌핀이 돌아 무척 좋았고 뜻 깊은 날이었다”며 “직장 내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뜻밖이고 이곳 직장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했다. “죽을 때까지 같이 노래하겠다”는 <이구동성>의 ‘사랑해’와 ‘몽게구름’에 관객들은 마냥 즐거워했다. 타인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있을까. 가을의 문턱에서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의 행복한 <도시락콘서트>였다.





음악은 이렇게
뜻밖의 선물을
하기도 한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분수음악회

아름다운 하모니를 당신에게

일시_ 2015년 7월 29일 수요일 오후 8시

장소_ 성남아트센터 춤의 광장

글·사진_ 최승은 시민작가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유난히 더운 이 여름, 지친 영혼을 위로해줄 분수음악회가 7월 29일 수요일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춤의 광장에서 열린 것이다. 2014년에 이어 올해로는 첫 공연이다. 습한 공기에 시야가 흐려질 정도였지만 리허설을 위해 모인 출연자들과 춤의 광장을 서성이는 관객들은 모두 다 활기찼다. 지난 두어달, 애타게 이 시간을 기다린 탓이다.

현재 사랑방문화클럽에는 226개 문화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그 중 합창단 세 팀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아주소년소녀합창단>, <그린비남성합창단> 그리고 <사랑방합창단>, 모두 특색 있고 화목하며 실력과 개성을 겸비한 클럽이다.

리허설을 위해 무대에 올라선 <아주소년소녀합창단>은 하나같이 함박웃음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이들은 1992년에 창단, 17회의 정기연주회 및 많은 공연을 해왔다. 아시아선수촌 내 아주초등학교 학생들로 시작하여 1994년에는 분당으로 본부를 이전,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약 10년 간 공백이 있었지만 이것이 내공이 되어 더 탄탄한 실력을 쌓게 되었다. 현재는 교도소, 독거노인, 군부대 등 찾아가는 기획연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아름다운 하모니와 함께 희망을 전하고 있다.

지휘자 임유진씨는 <아주소년소녀합창단> 1회 단원으로 대선배 겸 음악적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이 무척 바쁘데도 주말 연습에 열심이라며 반주자 박혜연씨는 아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음악적 재질보다 숨은 잠재력을 키워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윤명애 단장은 다가오는 해외 공연과 18회 정기연주회에 임하는 아이들의 각오가 대단하다며 따뜻한 눈길로 단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3년 간 세 자녀가 모두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다는 김경희 자모회장은 아이들의 사춘기 어려움을 합창활동으로 잘 극복했다며 특히 고학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한다. 청소년 활동의 경우 꾸준히 오래하면 보람과 함께 인내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예능 활동으로 감성과 자존감을 키우며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청소년과 나누었으면 했다.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La Bamba' 외 세 곡을 연주하는 동안 경쾌한 율동과 아름다운 하모니로 어른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쓸어주었다.

사회를 맡은 시민프로듀서 최윤진씨는 두 번째 순서를 소개하면서 연주 곡목에 놀랐다. <그린비남성 합창단>의 첫 노래가 그룹 Queen의 'Bohemian Rhapsody' 때문이다. 난해한 화성과 고음, 저음을 오가야 하는 이 곡을 어떻게 노래할까 궁금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단원 장종원씨에 따르면 그린비는 그리운 선비를 말한다. 순수한 우리말로 남성을 높여 부를 때 쓰인다. 음악을 사랑하고 연주를 통해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3년 창단되었다. 성남의 카톨릭 성가대 남성단원들로 구성된 이 합창단은 소외된 이웃과 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문화단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는 평생 마음을 합하여 함께 노래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며 단원 유준석씨는 서로 간의 결속을 자랑했다. 전공자는 하나 없으나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연주에 도전하고 있다.



공연을 관람하던 대학생 홍경진씨는 입가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린비남성 합창단> 단원이었기 때문이다. 합창을 하며 아버지에게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강한 책임감이라고 한다. 연습, 연주 그리고 봉사까지 많은 주변인에게 본을 보이고 있다. 양평에서 온 신동희씨는 친구의 활동에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음악을 사랑하고 연주를 통해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단원들에게 뜨거운 박수

를 보냈다. ‘Bohemian Rhapsody’, 정지용 시인의 ‘향수’ 그리고 영화 ‘황태자의 첫 사랑’ 중 ‘세레나데’까지 여름밤 하늘을 수놓은 멋진 화음은 잊을 수 없는 여운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의 네트워크를 위해 탄생한 <사랑방합창단>의 순서다. 클럽 간 소통과 교류 및 세대 간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이 합창단은 사람이 좋아 합창을 한다는 다소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풍부한 정서 생활을 바탕으로 수준높은 예술적 기량을 쌓아 성남 지역 음악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창단되었다.

“합창을 매개로 사람을 만나고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 “다만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노래를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 “우리는 연습하는 그날 만 기다린다” 등 단원들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서로 믿고 좋아하며 합창을 통해 하나가 된 이들이었다.

‘한계령’으로 시작된 합창은 ‘가곡메들리’에 이르러 가슴 뭉클한 하모니를 들려주었다. ‘목련화’, ‘가리리는 마음’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가곡을 듣는 동안 저마다 그리운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

단장 하동근씨는 무대보다 일상과 생활 속에서 노래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한다. 지휘자의 지도로 합창단의 실력이 많이 늘었다며 단원 모두에게 찬사를 보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꾸준히 연습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스펙트럼이 넓어 생활예술인으로서의 소통도 활발하다. 단원 서은주씨는 합창활동의 보람을 묻자 “이렇게 더운 여름밤, 지역주민을 위해 연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음식과 음질을 통해 다수의 공연을 하고 있으며 이 날 참가한 32명의 단원은 하나같이 행복한 표정이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분수음악회 ‘바람의 시’를 노래하다

일시_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오후 8시 | 장소_ 성남아트센터 춤의 광장 | 글·사진_ 최승은 시민작가

낮은 뜨겁고 해거름은 선선했다. 시나브로 여름이 지나가는 계절, 8월 26일 저녁 8시에 성남아트센터 춤의 광장에서 올 해 두 번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분수음악회〉가 열렸다. 하늘에 퍼진 저녁 구름으로 야외공연하기엔 쾌적한 날씨! 공연 두 시간 전부터 태원과 학생 두 명이 다소곳이 앉아 리허설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대에선 벌써 〈지아미스타드〉가 기타를 조율하고 있다.

기존의 〈분수음악회〉는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참여했으나 이 날 공연에는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었다. 바로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채로운 공연이다. 기타 연주와 보컬, 시낭송과 랩까지, 10대 청소년의 활기찬 무대를 마련한 것은 문화기획부의 돋보이는 아이디어다.



이제까지 지역주민을 위해 아름다운 공연을 선사했으니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주회를 준비하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 생각해서다.



최윤진 시민프로듀서의 사회로 진행된 분수음악회 첫순서는 〈지아미스타드(G Amistad)〉, 〈아미스타드〉는 스페인어로 우정이라는 뜻이며 첫글자 G는 기타의 G를 말한다. 〈사랑방문화클럽〉의 다른 기타클럽과 달리 〈지아미스타드〉는 독주 실력을 자랑한다. 이매1동 주민센터에서 연습과 스터디, 무료강습을 하고 있으며 벌써 8기 졸업생을 낼 만큼 꾸준한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클럽지기 이상윤씨가 트레몰로주법으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연주하자 청중은 애잔한 감정에 젖어들었다. ‘바람의 시’, ‘브라질의 초상’, ‘Duo in G’가 이어지면서 바람과 어우러진 기타 선율의 매력에 푸욱 빠져들었다. 연주를 해준 김은실, 손현주, 김영란 회원은 초보라도 열정만 있으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다며 밝게 웃었다.

두 번째 무대는 <늘푸른챔버오케스트라>의 클럽지기 박숙종씨.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영화 ‘노팅 힐’의 주제가 ‘She’ 그리고 ‘알라딘 O.S.T’와 ‘에반게리온 O.S.T’ 등 귀에 익은 영화음악을 중심으로 흡인



력 있는 연주를 들려주었다. 무엇보다 돋보인 것은 태원고 2학년 백지웅군과 함께 한 시낭송. 백군이 신경림 시인의 ‘목계장터’를 낭독하는 동안 ‘Gabriel Oboe’가 연주되었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바이올린 선율과 함께 시가 낭송되자 잠시 청중은 숙연해졌다.



이어 태원고 1년 신중호군의 기타연주로 미사아키 키시베의 기타곡 ‘비내리는 창가에’를 감상하고 태원고 2년 배지원양이 ‘잊어야한다는 마음으로’와 ‘우리 집’을 들려주었다. 고등학생이 설마 가수 김광석의 감성과 깊이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던 우리는 배지원양의 노래가 시작되자 기우를 접었다. 보이시한 목소리와 여유 있는 무대매너 등, 실용음악을 전공하려는 배양의 끼를 충분히 보여준 무대였다.





다음 순서는 이매고 2년 이의찬, 태원고 2년 백지웅, 변용민, 양영디지털고 2년 배수은군의 랩 무대. 'Fragile'이라는 팝송 비트에 본인들이 직접 가사를 붙여 랩으로 재구성한 네 사람은 현재 <에이시아크>라는 이름으로 연습하고 있으며 성남금융고의 신현빈군이 작곡과 PD를 담당, 모두 5명의 크루가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늘푸른색소폰앙상블>의 시원한 무대. 열 다섯명의 회원 중 오늘 출연한 일곱은 클럽지기 김기덕씨를 포함, 정혜정, 김광해, 이건호, 송영수 그리고 권형진 회원이다. 권 회원은 매주 화요일 연습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에너지라며 '작은연주회'와 봉사연주 등을 통해 회원 모두가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Evergreen' 그리고 '젊은그대'를 마지막으로 화려한 색소폰 소리와 함께 <분수음악회>를 마무리했다.



서현동의 임선영씨는 산들거리는 밤바람과 풀벌레 소리가 음악과 어우러져 좋았다며 다음 음악회를 기대했고 야탑동의 박상일씨는 SNS를 통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많은 주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었다. 이날 출연한 변용민군의 엄마 박은영씨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나가는 아들의 무대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역학교 학생들의 참여가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분수음악회

그대와 함께 춤을

일시_ 2015년 9월 9일 수요일 오후 8시 | 장소_ 성남아트센터 춤의 광장 | 글·사진_ 최승은 시민작가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하다. ‘9월이 오면’, 노래나 시에 있는 흔한 구절이건만 막상 9월에 접어들니 지나는 계절이 아쉽기만 하다. 해거름이 빨라진 9월 9일 저녁 6시, 노을빛을 받으며 <블루밍댄스>가 리허설을 시작했다. 연시보다 더 선명한 주홍의상이 탕고와 왈츠, 자이브 선율에 맞춰 돌아갔다. 이어 오늘 출연할 팀들이 차례로 리허설을 했다. 12명의 청소년 댄스팀인 <LJ댄스(Last Jewel Dance)>, 초등학교 댄스팀 <팅클스타(Twinkle Star)>, 벨리댄스로 유명한 <카밀라폴&벨리댄스>, <춤사랑무용단> 등이다.

오색 분수가 공작처럼 날개를 펼치고 하나, 둘 관객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관람을 위해 찾아온 친구와 가족, 학교 친구들이 저마다 출연자를 찾느라 북적이기 시작했다. ‘그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부제와 걸맞게 화려한 의상으로 탈바꿈한 출연자들이 저녁 8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춤의 광장 무대에 올랐다.

첫 순서는 <춤사랑무용단> 신미경 단장의 전통춤이다. 스승으로부터 대를 이어 내려오는 작품 ‘한국의 빛’은 화관무와 태평무를 버무려 만든 작품이다. 아름다운 화관과 전통의상이 왕비의 제례를 연상시킬

만큼 품격있었다. 비단치마 밑 버선코가 춤사위를 이끌 때면 우리 내면에 숨어있던 전통혼이 아스라이 피어올랐다. 단장 겸 클럽지기 신미경씨는 <춤사랑무용단>의 오랜 역사를 자랑했다. 30여 명 주부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무용단에 홍일점 남성단원도



한 명 있다. 성남지역 시민들을 위해 꾸준한 공연봉사를 하고 있는 이 팀은 기본에 충실하고 전문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수준 높은 실력을 지향하고 있다.

이어 스포츠댄스팀인 <블루밍댄스>, 깃털 장식의 푸른 가면이 오색조명에 반짝였다. ‘왈츠’로 시작하여



‘탱고’, 라틴 댄스인 ‘자이브’까지 커플로 돌아가는 군무가 모두의 흥을 돋우었다. 클럽지기 김은자씨에 의하면 수내2동 주민센터에 속한 이 팀은 건강한 중장년기를 위해 매주 화, 목요일에 연습을 하고 있는 순수 아마추어 클럽이다. 주로 토요일에 동아리 연습과 봉사를 하고 여러 공연 활동을 하는 등 우수주민센터 클럽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스트레스 해소와 올바른 몸자세 특히 중장년층에 삶의 활력을 준다는 점이 <블루밍댄스>의 자랑이다. 실제로 댄스스포츠를 통해 힐링, 우울증도 사라진다고 한다.



다음은 춤과 음악이 좋아 동아리를 만들어 춤을 추고 있다는 <팅클스타>. 네 명의 초등 여학생은 오늘 공연의 마스코트. 씨스타의 ‘Shake it’에 맞춰 멋진 춤을 보여준 그들은 귀여운 몸짓과 성인 못지않은 춤실력으로 관객의 미소와 따뜻한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아트센터 전시를 보러 왔다가 공연을 보게 되었다는 서현동의 오성원씨 가족은 이렇게 좋은 공연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며 다음 공연



에도 가족나들이 삼아 오겠다고 밝혔다. 야외공연이라 어린 자녀와 보기 편하고 자유롭게 서성이며 관람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이어 <LJ댄스>. 이 팀은 실용무용 전공을 희망하거나 취미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12명이 두 팀으로 나뉘어 '오늘부터 우리는'외 한 곡을 춤 추었다. 이즈음 유행하고 있는 방송댄스에 현대무용을 곁들인 이들의 춤은 분위기를 한껏 들뜨게 해주었다. 친구의 공연을 보려고 모인 청소년들의 호응이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마무리 되었다. 클럽지기 성윤주씨는 <LJ댄스>팀이 춤을 통한 자기계발과 진로탐색을 할 뿐 아니라 아산병원 백혈병치유를 위한 공연,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 등 봉사활동도 곁들이고 있음을 귀땀했다. 지역청소년수련관과 제휴하여 그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활동한지 1년 정도 되었다는 회원 김희빈씨는 댄스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지만 클럽활동을 하면서 대회도 준비하고 봉사도 할 수 있어 재미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카밀라폴&벨리댄스>의 공연. 2014년 모범클럽상을 받았을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 팀은 뛰어난 춤과 화려한 의상으로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아라비안나이트' 외 두 작품을 보여준 이들은 아름다운 색색 날개와 오색 베일을 휘날리며 초가을 밤을 수놓았다. 클럽지기 김도연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봉사를 위해 열심히 재능기부 중이라며 아마추어 단원들의 실력 향상을 칭찬했다. 벨리는 이집트어로 다산을 상징하고 당시 자신을 숭배했던 역사에 연유하여 맨발로 춤을 춘다고 한다. 관객이자 벨리댄스를 3년째 배우고 있다는 서지희씨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권하고 싶은 정도로 여성 몸에 좋은 운동임을 강조했다. 속근육을 키우고 바디라인이 예뻐지는 것은 물론 요요현상 없는 장기 다이어트 효과도 갖고 있다.



꽃처럼 아름다운 벨리댄스를 끝으로 '그대와 함께 춤을' 공연을 마치고 계절을 아쉬워하며 관객은 헤어졌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춤의 광장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문화공헌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는 <분수음악회>가 지역주민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분수음악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일시_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오후 8시 | 장소_ 성남아트센터 춤의 광장 | 글·사진_ 최승은 시민작가

아침저녁으로 선선하다. 숨찬 여름과 달리 감성이 예민해지는 계절이다. 가을 타는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공감이다. 쓸쓸함을 함께 나누는 따스함 앞에 맥을 못 춘다. 가뜰이나 그 공감대가 '예술

공연'이라면 효과는 크다. '분수음악회', 2015 마지막 공연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부제로 한 시간 가량 펼쳐졌다.

첫 순서는 클럽지기 신미경씨가 이끄는 <춤사랑 무용단>이다. 탄탄한 실력으로 지역봉사에 힘쓰고 있는 이들은 전통무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도 풍성하게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청일점 남성단원을 포함하여 다섯 명의 단원이 '고풍'을 춤추고 이어 신미경씨의 단아한 독무가 있었다. 단풍보다 화려한 의상은 물론 오색부채 까지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한껏 보여주었다.

두 번째 무대는 <풍물패두령>의 클럽지기 문정숙씨의 설장구다. 대개 설장구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풍물패의 구성원 중 장구치배의 리더를 일컫기도 하고 풍물 중 신명나는 장구놀이를 뜻





하기도 한다. 문정숙씨는 수진문화원에서 풍물반을 지도하며 2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풍물패 두령>을 이끌고 있다. 전통굿거리와 남도민요를 중심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연습한다. 담배를 맡듯 수없이 많은 조각을 맡아 만든 담배고깔을 쓰고 버선발로 사분히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은 저잣거리 풍물패의 떠돌썩임이라기보다 정통 춤사위가 연상되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빨라지는 장구소리는 마치 여러 타악기가 화음 맞춰내는 듯 통쾌한 배음을 만들어냈다.

세 번째 순서는 동림자유학교 8학년에 재학 중인 서정우 학생의 피리연주. 5학년부터 대금을 배우다가 피리를 배운지는 2년 되었다. 국악기 중 가장 작은 악기에 속하는 피리의 매력이 무엇이나 물었더니 시원한 소리와 굵은 톤이 마음에 들었다. 음악회를 보던 이매동의 임문희씨는 어린 학생이 의젓이 차려입고 피리연주를 하니 무척 보기 좋다며 피리의 큰 소리에 놀랐다고 한다. 가을 공기가 맑아 피리소리가 아트센터 너머 멀리멀리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음은 소리꾼 이효덕씨. 그녀는 <락&판>의 클럽지기면서 다양한 활동반경을 자랑한다. 고수를 맡아 준 강대현씨는 성남시립국악단원이자 <락&판>에서 타악기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흥부가' 중 박타는 대목을 열창 하기 앞서 연주자는 청중과 함께 몇 가지를 연습했다. 얼씨구, 절씨구, 잘한다, 좋다 등 추임새 넣기 그리고 소리꾼이 “복받으세요~”라고 소리치면 두 팔 벌려 듬뿍 복을 받는 것이다.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같은 가난이야” 8월 추석이 다가오자 흥부의 아내가 먹을 것이 없어 한탄하고 착한 흥부가 박을 타서 복을 받는 장면까지, 소리꾼과 고수, 청중이 하나 된 흥겨운 무대였다.



마지막 순서로 <천향실내국악단>의 클럽지기 김계희씨의 생황연주다. 생황은 흔히 볼 수 있는 국악기는 아니지만 전통악기 중 유일하게 화음연주를 할 수 있어 특별하다. 전통생황은 17관인데 비해 오늘 연주한 개량생황은 24관이다. 마치 가야금이 12현, 개량가야금이 25현인 것과 같다. 이날 연주한 창작곡은 '저 하늘 너머에'와 '여행'이다. 화려한 멜로디와 재즈풍의 리듬 때문일까. 청중 모두가 몸을 들썩였다. 김계희씨는 <천향실내국악단>이 대중과 호흡하고자 창작곡을 연주하고 서양악기와 협연도 하지만 우리 전통기법과 전통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자신의 국악철학을 힘주어 말했다.



분당동의 주부 정애은씨는 본인을 국악애호가라 자칭하며 국악 특히 판 소리는 현장에서 들어야 제 멋과 맛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의 매력에 푹 빠진 그녀는 내년 '분수음악회'는 모두 다 꼭 챙겨서 보겠다고 한다. 이효석씨의 '흥부가'가 귀에 쟁쟁한데 밤은 깊었다. 저마다 가는 9월을 아쉬워하며 2015년 <분수음악회>는 '우리 것'으로 막을 내렸다.



지역 근로자와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금강펜테리움IT타워 광장에 올린 현의 소리

일시_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12시 | 장소_ 금강펜테리움IT타워 | 글·사진_ 조여일 시민작가

장마의 한가운데, 잠시 반짝 별이 났다. 그 틈새로 상대원동 금강펜테리움 IT타워에 작은 움직임이 일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작은음악회>가 그것이다. 금강펜테리움 IT타워는 250여 업체와 5,000여 명의 직장인이 근무하는 아파트형 회사다. 주변엔 또 다른 아파트형 회사와 주택과 상가가 밀집돼 있어 <금강펜테리움IT타워> 광장의 점심시간은 활기차다. 바로! 그곳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광장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공연을 한 작은 야외 공연장이었다. 더위는 깊게 파고들었고 <사랑방문화클럽>의 <늘푸른챔버오케스트라>와 <흰여울>은 아랑곳없이 <지역근로자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위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금강펜테리움 IT타워 김남룡 센터장은 “음악은 정신적인 휴식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짧은 음악회지만 직장인들의 직업의식과 일의 능률을 올리는데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준 높은 <사랑방문화클럽>의 공연으로 생활예술을 즐기고 직장인뿐 아니라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풍요로운 시간을 만들고 싶어 문화재단에 공연 요청을 했다”고 한다.

드디어 정오! 하나 둘 객석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박지훈 차장이 사회를 맡았다. “생활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인 생활예술의 향유와 문화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곳”이 <사랑방문화클럽>이며 “여러분들도 함께하시길 바란다”는 멘트로 공연의 막을 열었다.





첫 번째 공연은 2005년도에 발족한 7인의 통기타 클럽 <흰여울>이다. '서른 즈음에', '아름다운 구속' 등 총 다섯 곡을 통기타 연주와 함께 노래를 불렀다. 처음엔 가만히 지켜보던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따라 부르면서 차츰차츰 공연장은 하나가 되어 갔다. 앙코르 곡으로 '해변으로 가요'를 부를 땐 광장이 들썩거렸다. 금방이라도 사람들 모두 해변으로 갈 것만 같았다.



“관객들과 함께 즐기고 함께 만든 음악회였다. 그래서 우리도 신명 나고 행복했다”는 <흰여울>의 클럽지기 김승경 씨는 “우리의 재능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좋다”고 한다. 통기타는 기억을 추억하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두 번째 공연은 2009년에 창단된 <늘푸른챔버오케스트라>의 단장 박숙종 씨의 바이올린 독주다. 'Perhaps love', 'Je Taime', 영화 '노팅힐'의 주제곡 'She' 등 총 9곡이다.

수준높은 바이올린 연주에 사람들은 숨을 멈추며 빠져들었다. 박숙종씨는 바이올린 하나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고 광장은 어느새 생활예술이 흠뻑 댄 전당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갔고 직장인들도 공연의 아쉬움을 두고 샴터로 돌아가야 했다. <흰여울>과 <늘푸른챔버오케스트라>의 공연은 <사랑방문화클럽>의 수준을 한껏 높였으며 저마다 사람들의 가슴에 추억 하나 만들어 주었다.



꿈나무들 위한 미술교육, 태평3동 복지회관

일시_ 2015년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_ 태평3동 복지회관 | 글·사진_ 조진희 시민작가

태평3동 복지회관에서 미술 교육이 있는 날이다. 저학년 초등학생이고 주로 1학년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주제는 '좋아하는 캐릭터 그리기'이다. 쿡푸밴더, 도라에몽, 도라미, 지바냥이 예로 나와 있다.

그림 다 그린 연우는 복도로 나가서 낙서도 한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같은 색을 칠하고 내가 사진을 찍자 "왜 사진 찍어요?" 한다. 1학년인 연우는 갑작스런 자신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는 내가 민망한가 보다. 선생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자 다시 나가서 자신이 그린 노란색을 지운다.

늦게 온 가은이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크레파스와 물감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는데 주로 도라에몽을 그린다. 아이들은 쿡푸밴더는 그리기가 어려워서 선택을 못 하겠다고 한다.





“저학년이라 산만하지만 아이들이 정형화된 그림, 즉 이것은 이렇게 그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큰 아이들보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워서 오히려 쉽다고 할 수 있어요. 큰 아이들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면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도형을 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 사각 과자상자를 그리는 연습을 해 보았어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조현숙 선생님과 송선희 선생님은 옆에서 수줍게 웃지만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



〈문화공헌프로젝트〉는 그림교육만 있지는 않아요. 재료비가 많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마침 선생님이 시간을 흔쾌히 내 주시기로 하셔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예요” 두 분과 이야기 하고 있는 동안 아이들이 자유롭게 오고간다. 지금 수업은 3번째였고 3번 더 수업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업을 마치면서 나는 아이들이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05

PART

사랑방문화클럽을
소개합니다

“

2015년 현재 <사랑방문화클럽>에는 음악, 미술, 공예, 기행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모두 226개의 클럽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각 자 나름의 방식으로 성남시 곳곳에 문화와 예술의 꽃을 피우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 그 중에서 올해는 자발적인 참여로 <사랑방문화클럽>이 선보이는 전시와 공연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즐길 줄 아는 클럽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왜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클럽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활활 타오르는 그들의 클럽 사랑, 그 속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



‘음악의 완성은 화합과 배려’

통기타클럽 - <여섯줄사랑>

글·사진_ 조여일 시민작가

2008년 5월에 결성된 통기타 클럽 <여섯줄사랑>은 결성과 함께 지역 문화발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재능 나눔을 위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사랑방문화클럽>이 됐다. 당시 10여 명이었던 회원은 현재 27명이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통기타뿐 아니라 다른 악기 연주 실력도 뛰어난 그들의 연습실인 스튜디오는 수내 고등학교 맞은 편 주택가에 있다. 그곳은 언제나 열려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다.

제3기 클럽지기 신용배씨는 “통기타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며 “좀 더 자유롭게 연습하고 음악 활동을 하고자 다 함께 우리의 전용 공간인 연습실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연습하고 음악으로 소통하며 하나가 된다. 항상 열려 있어 언제나 연습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매주 화·목·토·일요일은 많은 회원이 참석한다. 특히 2개월에 한번 전체 회원이 모여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표하는 작은 콘서트를 열어 회원 간의 우정과 신뢰를 쌓는다.

신용배 클럽지기는 “여기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나누면서 배려하고 화합한다. 그렇게 더불어 즐겁다 보면 실력 향상은 자연스럽게 덩으로 따라온다”고 한다. 또한 회원 전체가 참석하는 작은 콘서트를 통해 “혼자보다 함께 연주하면 음악과 마음이 어우러져 음악의 완성도와 그 희열은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크다”며 <여섯줄사랑>의 음악 완성도는 화합과 배려”라고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탄천과 공원 등에서 봄가을마다 자체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힐링 음악 콘서트를 지역 곳곳에서 열기도 한다.

다른 클럽들과의 교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생활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공연은 매우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제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운영위원으로 기획팀장이기도 한 신용배 클럽지기는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된 클럽 수에 비해 클럽들의 축제 참여도가 적다. 클럽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사랑방문화클럽>은 우리에게 나눔과 힐링의 장이며 <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 우리도 성장한다”고 한다.



2008년 당시 제1기 클럽지기였던 김은숙 회원은 <사랑방문화클럽> 초창기, “여러 분야의 클럽들과 서로 교류하고 찾아가는 공연을 했던 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라 보람이 컸다”며 “초창기라 힘든 일도 있었지만, 신바람 나게 활동했다”고 한다.





2016년은 <사랑방문화클럽>이 발족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그래서 김은숙 회원은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그녀는 <사랑방문화클럽>에 많은 클럽들이 가입해서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분 좋고 뿌듯하다고 한다.

<여섯 줄 사랑> 회원들에겐 바람이 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로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음악활동을 하면서 ‘함께’ 삶을 공유하며 건강하고 여섯 줄의 기타현처럼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언제나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사랑방 같은 따뜻하고 편안한 <여섯줄사랑>이 지속되는 것이다.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그림세상”

2015 제5회 도화지애展을 찾아서...

일시_ 2015년 10월 19일 (월) - 10월 25일 (일) | 장소_ 성남아트센터 큐브사랑방 전시실 | 글·사진_ 김미아 시민작가



깊어가는 이 가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성남아트센터 큐브사랑방에서 열리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 전시팀 <도화지애>(클럽지기 조현숙)의 2015 제5회 ‘도화지애(圖畫智愛)展’ 전시장을 찾았다. 도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힐링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그림들이 전시장에 가득했다. 8명의 회원들이 각각 그녀들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은 그동안 함께 작업하며 애쓰 즐거운 시간들의 흔적이었고, 또한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해 활발히 전시 활동 등에 참가하며 이루어낸 보람의 산물이었다. 특히 <도화지애>의 클럽지기 조현숙 씨는 2015 <사랑방문화클럽 축제展>의 전시팀장을 맡아 누구보다도 애쓰고 수고한 율한 해였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가끔은 이렇게 가까운 전시장을 찾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좋은 문화, 예술 프로그램과 함께 삶의 여유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Q1. <도화지애>는 어떤 클럽인가요?

A : 2011년 30~40대 주부들로 구성되어서 올 해로 창단 5년째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럽이다.
특별한 지도 선생님을 따로 모시지 않고, 순수 동호회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주 1회 목요일에 모여 함께 작품 작업을 하며 매년 정기전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Q2. 올 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A : 각 회원별로 공모전에 나가서 입상을 하기도 하였고, 개인적으로는 특히 <사랑방문화클럽> 전시팀의 행사였던 ‘오월에...시서화展’과 2015 ‘제5회 도화지애(圖畫智愛)展’, 2015 <사랑방문화클럽 축제展>의 퍼포먼스와 축제를 준비했던 과정들이 기억에 남는다.

Q3. 회원들의 멤버 구성과 작품은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 회원들은 모두 전업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고, 총 8명이 매주 1회 목요일 10시~1시 도촌 복지회관에서(11월부터는 대여공간 사용) 함께 각 자의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의 개성에 맞는 유화, 아크릴, 수채화 등을 다양한 도구와 기법을 통하여 회원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작업하고 있다.



Q4. <사랑방문화클럽>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역할과 의의는?

A : 다른 전시팀의 클럽들과 어울려 함께 전시에 참여하고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울림과 소통이 중요한 것 같다. 서로 다른 클럽들이 모여 하나의 단합된 힘을 보여 주는 전시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

Q5. 끝으로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A : 올 해로 5년째를 맞는 <도화지애>는 그동안의 활동들을 총 정리해 보고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구상해 볼 예정이다. 내년에는 회원을 열 명이상 확보하여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받아서 더욱 뜻 깊고 폭넓은 전시 활동을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좋은 작품들을 접하고 더욱 좋은 작품들로 선보이고 싶다.

묵묵히 자기 역할을 조용히 해내는 우수한 클럽으로 올 해로 창단 5년 째를 맞이한 <도화지애>의 앞으로의 많은 결실과 행보를 기대해 본다.





“다시 한 번 부딪혀보자, 하이파이브!”

재도약,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하이파이브>를 만나다.

일시_ 2015년 11월의 어느 날 | 장소_ 오리역 다인뮤직홀 | 글·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a cappella: 반주가 따르지 않는 합창곡.

‘예배당 또는 성당 식으로, 성당을 위하여’의 뜻으로 원래는 16세기경의 교회용 합창곡(팔레스트리나)의 무반주 폴리포니 양식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 음악회에서도 이용된다.

무반주로 연주되는 ‘아 카펠라’는 절대 음감, 절대 박자, 절대 화합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음악 장르이다. <사랑방문화클럽>에 유일무이한 절대지존 아 카펠라 그룹인 <하이파이브>가 멤버 교체와 함께 터닝포인트를 가졌다. 구관(舊官)이 명관(名官)이겠지만 한동안 침체되었던 <하이파이브>가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면서 재도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관(新官)이 명관(名官)이기도 한 경우도 있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고정관념은 단박에 깨져 버렸다. <하이파이브>의 현주소는 어떤지, 앞으로 어떤 방향의 음악을 만들 것인지 궁금한 마음에 현재 클럽지기로 있는 고웅씨를 만나 인터뷰를 청했다.

Q1. 〈하이파이브〉를 소개한다면?

A : ‘아카펠라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2009년도에 아카펠라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구성되었습니다. 〈하이파이브〉의 영원한 대부라 할 수 있는 나명철 님, 우리의 대빵누님인 란경 누님, 노래로 둘째라면 서러운 석우 형님, 정통 베이스 신환 형님, 지금은 호주로 시집을 간 아름다운 목소리의 민정 누님 그리고 젊은 피를 맡고 있는 고웅! 오리지널 멤버는 이렇고요. 20살 청년들인 김희상, 김민성군이 최근 신입 멤버로 들어왔습니다.

Q2. 원년 멤버의 〈하이파이브〉와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A : 기존의 〈하이파이브〉와 지금의 〈하이파이브〉를 굳이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카펠라의 특성상 각각의 파트를 맡고 있는 개개인이 너무 소중하지요. 각 자의 삶의 무게가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잠시 침체기가 있었지만, 민정 누님의 결혼식 축하도 하고 간간히 연습과 회식을 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분위기를 쇄신해보고자 신입 회원을 영입했습니다. 잠시 침체 되어있던 분위기를 살리고자 부족한 파트를 영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알고 지내던 동생들이 기꺼이 참여할 의사를 보여줘서 같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또한, 때마침 ‘노래로 만난 우리’라는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 급히 어쿠스틱 버전으로 공연을 치러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원년 멤버들과 신입 멤버들이 함께 하는 활동을 지향하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아카펠라로 편곡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Q3. 준비하고 있는 레퍼토리는?

A : 각 각의 다양한 장르의 아카펠라 곡을 레퍼토리로 정해 연습하고 있습니다. ‘Java-jive’, ‘I sing You sing’, ‘찬찬찬’, ‘아기염소’, ‘Love’ 등 많은 곡들을 연습했습니다. 지난 번 ‘노래로 만난 우리」「사랑방문화클럽한 마당」에서는 아카펠라 형태로 노래를 하진 못했어요. 사실 새 멤버들이 결성된 지 얼마 안된데다가 급히 준비를 하느라 다른 레퍼토리를 준비했지요. 두 친구가 발라드와 소울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라 몇 곡을 어쿠스틱으로 편곡하여 진행했지요. 성시경의 ‘두 사람’, 브라운아이드소울의 ‘그대’, 이문세의 ‘조조할인’ 등의 노래들을 화음을 많이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점차 대중들이 좋아하고 익숙한 곡들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Q4. 공연을 마친 후 소회는?

A : 지금까지 신입 회원들과 함께 두 차례의 공연을 했습니다. ‘노래로 만난 우리’ 와 ‘성남어쿠스틱페스티벌’이 그것이지요. 두 공연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한 것은 “아직 <하이파이브>는 살아있다. 죽지 않았어.”입니다.

Q5.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A : “아직 <하이파이브>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재도약을 하게 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었던 건 최근 공연이었어요. 물론 신입 회원들이 들어오면서 급작스럽게 공연을 준비하다보니 아카펠라가 아닌 어쿠

스틱으로 참가를 했지만, 다시 예전처럼 아카펠라로 즐거운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레퍼토리도 많이 늘려서 1년에 한번 꼭 정기공연을 개최하는 것도 목표이고요. 사랑방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하이파이브>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당면과제이고요.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름다운 화음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그린비남성합창단>

글·사진_최승은 시민작가

가물에 단비가 내리는 초겨울 저녁이다. 11월 15일 일요일 저녁 7시, 양상블시어터 3층으로 오르려니 아름다운 남성 중창의 선율이 복도를 그득 메운다. 연습실로 다가설수록 화음은 풍부하고 선율은 우아하다. 합창이 좋아, 사람이 좋아 모였다는 <그린비남성합창단>이 'Time to say goodbye'를 노래하고 있었다. 연습에 방해될까 조심스레 들어서는데 단원들의 눈빛이 형형하다. 지휘자 김승유씨가 요구하는 탄탄한 발성을 위해 한 사람, 한사람 진지하게 임하고 있었다. 단원들은 40대부터 60대까지 마치 형과 아우, 삼촌과 조카가 다정하게 어우러진 듯 보인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의 빛깔을 만들어내려는 배려에서 그들만의 화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2013년에 창단한 <그린비남성합창단>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럽 중 하나다. '그린비'는 순수한 우리말로 '그리운 선비' 혹은 '그리운 남'을 칭한다. 이십 여명의 단원이 한 마음이 되어 정기공연과 여러 지역행사 그리고 보바스기념병원과 헤리티지요양원에서 정기적인 음악봉사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사랑방문화클럽축제」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에서는 <분당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호흡을 맞춰 멋진 공연을 보여주었다. 클래식 장르에서 경기도지사상을 받은 것은 그들의 열정적인 행보의 마땅한 결과였다.

“저마다 음악적인 욕심이 있어요.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합창을 통해 힐링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다.” 단원 이기혁씨의 말이다. 현재는 이십 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열 명 정도 충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역 최고의 남성합창단으로 발돋움하려는 계획이다.

합창을 해본 사람은 안다. 듣기는 쉬워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기란 녹록치 않다. 파트별로 자신의 몫을 다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깨트리는 까닭이다. 각각의 파트가 정확한 피치를 내어 완벽한 화성을 이룰 때, 그야말로 소름 돋는 환희를 경험한다. “제 역할을 충실히 해 내려는 노력이 <그린비남성합창단>의 자랑입니다.” 클럽지기 장종원씨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한 마디다.





반주자 임도희씨에 대하여 단원들이 입을 모았다. “반주자에게 고맙습니다. 늘 제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우리 합창단의 흥일점, 감사할 따름이죠.” 이에 임도희씨는 <그린비합창단>의 장점을 나눔과 배려라고 표현했다. “처음 합창단이 결성되었을 때는 얼마 못갈 것 같아 걱정했어요. 하지만 다들 음악을 몹시 사랑하고 형제처럼 우정도 돈독하죠. 아마 오래도록 열심히 이 합창단을 일궈나갈 거라 믿습니다.”

그린비의 포부는 다름 아니다. 안으로는 단원 개개인의 실력과 역량을 쌓아 합창의 질을 높이고 밖으로는 그린비를 필요로 하는 곳에 달려가 멋진 공연과 따뜻한 음악봉사를 하는 것이다. 단원들이 각자 직장 일로 공연일정 맞추기가 어렵지만 합창이 하고 싶어 어떻게 해서든 시간 맞춰 달려온다고 한다. 연습은 예리하게, 공연은 부드럽게! 외유내강의 <그린비남성합창단>이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화음과 사랑의 치유를 기대해본다.



PART

06

성장하는
〈사랑방문화클럽〉

“

내년 2016년이면 공식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사랑방문화클럽>. 이제는 <사랑방문화클럽>의 역사가 대한민국 생활예술 클럽의 역사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다 체계적으로 생활예술을 전도한 것은 물론, 타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 지난 7월에 참관했던 <대구생활예술축제>와 지난 10월, 경기지역 생활예술클럽들의 강화 및 생활예술국제교류를 통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던 <2015 경기생활문화심포지엄>에 저희 프로젝트북 시민작가들이 동행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생활예술의 거점’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질 수 있었던 <사랑방문화클럽>의 가슴 뿌듯한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대구생활예술축제를 다녀오다

일시_ 2015년 7월 26일 일요일 | 장소_ 대구 두류공원 일대 | 글·사진_ 최승은 시민작가

날은 무더웠다. 태풍의 영향을 받아 며칠 내 비가 이어졌고 늦장마로 아열대 기후가 계속되고 있었다. 출발 전까지도 비가 쏟아져 과연 <대구생활예술축제>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된다면 대구 역시 축제를 이어가기 어려울 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 26일, 일요일 새벽에 비가 그쳤다. 거짓말처럼 해가 나고 뭉게구름이 하늘을 수놓았다. 성남시의회의원 네 분과 사랑방운영위원, 축제추진위원, 문화재단 관계자 등 30여명은 오전 9시 45분, <대구핫페스티벌>을 향하여 아트센터를 출발했다.

<대구생활예술축제> 참관행사는 제 9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와 10주년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던 중, 타 지역 생활예술 축제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축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대구생활예술단체와 연대활동을 통해 <사랑방문화클럽>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추진하려는 뜻도 있다.

대구에 도착하니 대구문화재단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섭씨 36도에 육박하는 대구 특유의 고온다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활예술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두류공원 일대는 활기에 넘쳤다. 하루 3만 명 정도가 다녀간다는 말에 250만 대구광역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생활예술축제>와 더불어 <치맥축제>, <포크페스티벌>, <국제호러연극제>, <관악축제> 등을 묶어 약 열흘 동안 <대구핫페스티벌>이라는 대규모 연합축제를 진행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이 날은 7월 24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생활예술축제>의 마지막 날, 대구문화재단 사무처장 한전기씨와 시청축제계 팀장 변수옥씨는 <사랑방문화클럽>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본 축제의 의의와 장단점을 설명했다. 지난 몇 년간 생활예술 축제가 개최되긴 했으나 문화재단이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생활예술 단체의 DB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대규모 축제를 개최, 생활예술 홍보에 방점을 두었다. 이번 행사이후 생활예술 단체를 발굴하여 등록을 받고 전문예술가의 도움을 얻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랑방문화클럽>이 기존 생활예술 단체의 등록을 받아 활동하고 축제와 봉사를 실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체제였다. 전국의 모든 생활예술 단체가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말에 시의원과 운영위원 등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사랑방문화클럽> 관계자 일행은 코오롱야외음악당과 228무대, 솔숲무대, 두류야구장 등에 고루 펼쳐진 행사를 둘러보며 여러 장·단점을 참관했다. 솔숲무대에서 진행된 <푸른봉사단>, <달성야코디온>, <여성소리봉사단>, <원우쿨렐레앙상블>을 차례로 보고, 228무대에서는 <수성색소폰오케스트라>, <캐년브라스밴드>의 우렁찬 연주를 관람했다. 메인무대인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펼쳐진 <신천웅밴드>, <프로젝트 S&A>, <퍼플>, <TIME COSMOS>의 신나는 공연을 본 후, 시낭송을 시각화하여 음악과 함께 연출한 대구시낭송협회의 퍼포먼스도 지켜보았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랑방문화클럽축제>를 준비하려는 마음에서 행사의 면면을 꼼꼼히 살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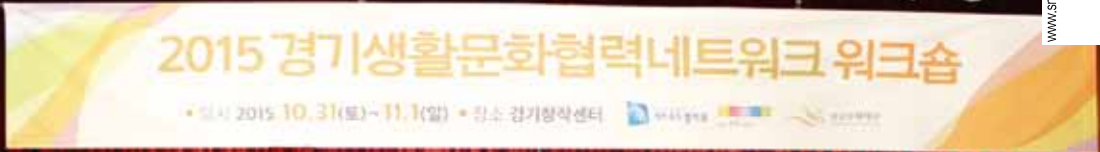
대구문화재단은 이번 행사에 1억 3천만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생활예술 단체들의 공연을 바탕으로 사흘간 경연한 후, 시민 참여 투표를 통해 마지막 폐막식 행사에

공연할 최종 6팀을 선발한다. 대구문화재단의 이현정 팀장은 대구시민의 높은 문화예술욕구와 고령화, 1인 1예술활동, 폭발적인 평생교육 수요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번 생활예술 축제의 파급 효과가 지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생활예술 전문가 실태 조사를 하고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에도 힘을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면 참가클럽의 선발, 공연 순서와 장소 선정 등에 대한 혼란이었다. 또한 대구치맥축제와 함께 시공간을 공유한 탓에 많은 노점상을 행사장에 들일 수밖에 없던 점도 숙제로 남았다. 하지만 축제에는 역시 먹거리장터가 함께 해야지 않겠냐는 사랑방 10주년 준비위원 박유진씨의 의견도 있었다. 축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데는 일리가 있다.

정천석 위원장은 이번 행사 참관으로 성남문화재단과 대구문화재단의 발전적 연대를 이어갈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문화예술 MOU를 고려하고 생활예술 축제에 교환 초청하여 시민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구문화재단은 자발적이며 시민문화형성에 적극적인 <사랑방문화클럽>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했고 재능기부와 다양한 봉사활동 역시도 벤치마킹하고 싶은 부분임을 강조했다.

늦은 밤까지 축제를 살펴본 일행은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이번 참관을 준비해 주신 시의원님들과 문화재단 측에 감사하며 생활문화예술의 선구자로 보다 즐겁고 다양하며 자발적인 시민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서로의 소감과 다짐을 나눔으로써 행사를 마무리했다.





경기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 워크숍 “우리 같이 예술, 하실래요?”

일시_ 2015년 10월 31일 (토) - 11월 1일 (일) | 장소_ 안산시 경기창작센터 | 글·사진_ 김형미 시민작가

시월... 농염해지는 단풍에 문득 문득 걸음을 멈추게 하는 가을의 절정인 시월의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다음날까지 양일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경기창작센터에서 <경기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 워크숍이 열렸다. 경기문화재단과 성남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열렸으며 성남시에서는 <사랑방문화클럽>의 운영진을 비롯해 <청실홍실>, <분당요들클럽>, <분당사랑A&C>, <로망스기타합주단>, <이구동성>, <수목향기> 등이 참여했고 용인시의 <어사랑전통무용연구원>, <용인통기타네트워크>, 화성시의 <실버한마음하모니카>, <아마데우스클라리넷앙상블>, 이천시의 <BOB밴드>, 군포시 <슈즈재즈댄스동호회>, 의왕시 <꽃가람팬플룻오카리나앙상블>, 의정부시 <하니원드오케스트라>, 수원시 <수원문화클럽> 등 경기지역의 생활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용인시의 <어사랑전통무용연구원>과 화성의 <실버한마음하모니카>는 「사랑방문화클럽축제」기간에 열린 <경기·인천생활예술한마당> 경연에 참가해 모범클럽상을 수상하면서 <사랑방문화클럽>과는 각별한 인연의 고리를 갖게 된 생활예술단체들이다.

참가자들 소개와 인사나누기는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인 나명철씨가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진행해 전체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었고 이어 부천문화재단 생활문화사업 팀장인 안태호씨의 사회로 수원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의 생활 문화 활동사례를 발제하는 순서와 일본 <우타고에 합창단>의 고바야시 히카루, <네팔 민속음악단>의 문화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적 대중주의를 넘어서 생활의 예술로’, ‘생활 속의 예술, 예술 속의 생활’, ‘일상 속에서 자발적이고 행복한 문화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문화’, ‘생동감(생활문화예술 동호회와 함께 느껴요)’, ‘문화적 가치 확산’이라는 문화예술활동 모토를 문화특별시라는 분모에 올려놓은 발제의 자리였다.

특히 고바야시 히카루씨는 1998년 11월 당시에 한국민족음악인 협회의 사무총장이자 <삶·뜻·소리>의 대표였던 현재 성남문화재단 김보성 국장이 단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감동의 연주를 해주었던 일을 회상하며 일본의 ‘우타고에’는 합창단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작자이자 가수이자 전파자’라는 행동 목표 하에 풀뿌리 음악 운동으로서 ‘내 고장, 우리의 삶, 우리의 일’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넓히는 활동을 하





고 있다고 발제했다. 발제가 모두 끝나고 친교의 시간으로 <분당요들클럽>,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어사랑전통무용연구원>, <실버한마음하모니카>, <아마데우스클라리넷앙상블>, <청실홍실>, <네팔 민속음악단>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이날 일본어 통역을 맡은 성남 <수목향기>의 신민정씨의 딸인 이유경양이 일본의 악기인 다이쇼고또를 들고 나와 고바야시씨, 김보성 국장, 원상은 선생과 함께 '고향의 봄'을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워크숍 이틀날인 11월 1일. 아침식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황금산 공공미술 투어를 한 후에 평가와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생활예술인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추지정을 한껏 만끽하게 된 의미있는 여정이었다.



07

PART

에필로그

2016년

사랑방문화클럽 출범 10주년을 기대하며

“

출범식과 함께 시작된 <사랑방문화클럽>의 한 해 여정은 그 해 연말에 열리는 <활동보고회>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지요? 2015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했던 클럽들과 회원들을 격려하고 또 반성의 시간을 통해 다가올 한 해를 다짐하는 <활동보고회>와 올 한 해도 <사랑방문화클럽>을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준 운영위원회 그리고 <사랑방문화클럽>의 역사를 위해 올 한 해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취재하느라 동분서주했던 프로젝트북 시민작가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사랑방문화클럽> 정식 출범 10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초대운영위원장 백만기 명예위원과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유상진 과장에게 부탁드려봤는데요, 이들이 <사랑방문화클럽>에 전하는 연서(戀書)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



“일 년 동안 모두들 애쓰셨습니다.”

일시_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_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컨퍼런스 홀 | 글_ 김형미 시민작가 | 사진_ 김형미·이은영 시민작가



〈사랑방문화클럽〉활동의 일년 농사를 수확하는 날. 포트락으로 진행된 활동보고회는 일년 간 활동한 보고도 있었고 모범클럽상을 시상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마치 송년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여섯줄사랑〉신용배씨의 사회로 진행된 활동보고회는 〈사랑방팝양상블〉의 축하공연과 김보성 문화진흥국장과 정천석 운영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2015년 활동보고 및 활동 영상 상영이 있었으며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박지훈 차장의 2016년 주요사업 일정 발표도 있었다.

특히 올해는 전문가들의 코디네이팅하에 기획된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진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코디네이터로 참여했던 동서울대학교 공연예술과 정지호 교수는 “바이올린과 비보잉의 융복합공연을 기획하기 위해 〈늘푸른채 버오케스트라〉의 박숙종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내게는 정말로 행운이었다. 즉흥적 안무로 이루어진 비보잉과 바이올린의 호흡은 새로운 장르이기도 하지만 융복합장르가 앞으로 무궁무진하



게 발전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이 생겼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많이 만나지는 못하고 4번 정도 만날 수 밖에 없었지만 즉흥적인 안무에 즉흥적인 연주가 새롭고 환상적인 무대를 만든 것 같다. 앞으로도 자발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클럽 회원들이 함께 하는 장르는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보고했다.



〈클럽데이〉를 소개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분당 요들클럽〉 신성봉씨는 “〈클럽데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커피와 음악이 있는 쌀롱콘서트’와 ‘여름이 노래하고 가을이 춤추려’는 나열식 공연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도를 했던 공연이었다. 계절별, 주제별로 봄에는 커피와 포크라는 소재를 가지고 행사를 추진 해보았다. 기획팀에는 나명철 〈이구동성〉, 신성봉 〈이구동성〉, 박유진 〈레이디고고〉 등이 구성되어 추진했으며 〈라푸노스〉, 〈세실기타〉, 〈이구동성〉, 〈마틴팬더깁슨〉 등이 스토리 구성과 공연을 함께 했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3회로 계획된 공연은 공간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가을의 와인과 재즈라는 장르는 진행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코디네이터로 공연에 참여한 장운섭 성남예총 사무국장은 “공연자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참여해 〈클럽데이〉가 잘 진행되었던 것 같다. 참여 팀원들의 의지도 강했고 모두가 유연적인 자세로 참여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무대를 만들 수 있었다. 코디네이터로 참여했지만 오히려 내가 덕을 많이 봤고 배웠다. 7080 시대의 배경과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꾸몄고 나열식이 아닌 스토리텔러를 넣기로 했는데 다방의 마담 역할로 참여한 〈레이디고고〉의 김해수씨가 전반적 내용을 이끌어가면서 관객과의 간격을





줄이는 무대를 진행했다. 공연이 열린 큐브사랑방은 다방이 되었고 관객들은 다방 손님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 공연을 통해 도서관, 카페 등 장소에 구분없이 새로운 장르의 공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형성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신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연주와 스크린이 있는 OST 공연 〈시네마콘서트〉를 진행한 〈Punos〉의 이현창씨는 “4월경 〈라푸노스〉의 홍경숙, 〈도프양상블〉의 김강민씨, 〈프리업댄스엔터테인먼트〉의 정선주씨를 만나 본격적인 기획을 시작했다. 잔잔한 클래식과 팝의 조화로 듣기 쉬운 OST위주로 〈드림홀릭〉은 일본 애니메이션 OST, 〈프리업댄스엔터테인먼트〉는 ‘STEP UP’의 OST, 〈Punos〉는 디즈니 OST를 공연하기로 했다. 임형수 감독의 코디네이팅은 레퍼토리를 선정하고 공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주제 선정, 주제의 관객 전달성, 무대 꾸밈 등을 하면서 팀원들의 스크립트, 큐시트 작성 등 수월한 작업 능력 발휘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행사이기도 했다. 덕분에 공연이 편했고 공연이 이루어 졌던 양상 불시어터가 만석이어서 기쁘기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모범클럽상에 <늘푸른 챔버오케스트라>, <점핑플리즈>, <청실홍실>, <비전콰이어>, <수목향기>, <분당민화> 등이 수상했으며 <그린비남성합창단>과 <성남세경국악실내악단>, <버디색소폰앙상블>, <사랑방팝앙상블>이 축하공연을 했다.

우여곡절 많았던 한 해였지만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 출범하던 날!

일시_ 2015년 2월7일 토요일~ 2월8일 일요일 | 장소_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 글·사진_ 김미아 시민작가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람이 차다. 서울·경기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했던 지난 2015년 2월 7일 토요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양일에 걸쳐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는 2015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이 열렸다. 강의실 내에 붙어있는 '2015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의 현수막이 이번 행사의 시작을 알려주었고, 복도 로비 입구 접수대에서는 운영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회원들의 접수현황을 기록하면서 회원들의 이름이 적힌 이름표와 '2015 워크숍 안내책자' 및 '2014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등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오후 3시가 되자, <워크숍>에 참가한 클럽들을 소개했다. 각 클럽을 대표해 클럽지기들이 자신들의 클럽을 소개해 서로 얼굴을 익혔고 시침이 오후 4시를 가리키자, '한국 문화기획학교'의 윤성진 강사의 강의가 시작됐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활동의 의의와 과제! 세계 각국의 생활예술 동호회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활동하고 있는지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해주었고 우리나라의 생활예술 실태와 비교하면서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동호회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사실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긴 했으나, 워크숍에 참석한 회원들의 눈망울은 하나같이 초롱초롱! 내용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초집중 모드로 경청한다. 잠시 후, 운영위원들이 준비한 백설기와 통깨들이 모든 회원들에게 지급되었고 이윽고 오후 5시! 성남문화재단 김보성 문화진흥국장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했다. ‘생활예술진흥정책 방향과 제언’이라는 주제 아래, 이웃나라 일본과 먼 나라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몸소 체험한 여러 경험들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가야말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지도 몰랐을 정도!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생활예술 활성화 방안의 연관성 등에 대한 강의는 마치 향후 <사랑방문화클럽>이 지향해야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 더욱 인상적이었다.



강의의 마무리는 기념촬영! 2014년의 노고를 치하하고 2015년 <사랑방문화클럽>의 성장과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찰칵! 단체사진을 찍고 모두들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했던가? 소박하지만 맛있는 한 끼로 저녁 식사를 마친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워크숍의 하이라이트, 2015 <사랑방문화클럽>의 사업계획 확정 및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선출! 2015 한 해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는 자리인 만큼 모두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사전에 지급된 '2015 워크숍 안내책자'에 실린 '새로운 정관 개정안'과 '임원 및 운영위원장 구성 방안' 등을 모두 꼼꼼히 살펴보고 회원들 모두 진지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었다. 각 클럽의 클럽지기들과 회원들은 신중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고 오랜 회의와 심사숙고 끝에 드디어 새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신임 위원장에는 정천석<다문화가족연구소>씨가, 부위원장에는 박봉덕<다사랑회>씨 그리고 장계석<동네사람들>씨가 선출되었고 올해는 <사랑방문화클럽>을 보다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연·전시·기타 분야의 운영위원 14명을 선출해 회원들의 기대를 모았다. 새롭게 선출된 14명의 운영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민서 <해동문인회>

김형미 <보네르플룻오케스트라>

신용배 <여섯줄사랑>

안예환 <비전콰이어>

이희일 <세실기타>

조현숙 <도화지애>

최희서 <청실홍실>

김진숙 <분당챔버오케스트라>

박미해 <토향>

선순남 <포도저널성남지국>

이철문 <버들피리음악봉사단>

양석관 <메아리뮤직밴드>

최윤희 <점핑플리즈>

하미영 <이매우리춤>



이어 각 사업별로 팀을 구성해 올해의 팀별 사업을 구상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후, 경품 추첨과 장기자랑을 끝으로 2015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의 공식적인 일정은 마무리됐다.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힘찬 출발과 함께 2015년 올 한 해 동안 펼쳐질 <사랑방문화클럽>의 다채로운 활동을 기대하며 2015 <사랑방문화클럽> 워크숍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며! 2015 <사랑방문화클럽> 파이팅!



2015 사랑방문화클럽 한미당

어르신들을 위한 孝(孝) 잔치

일시: 5.8(금) 10:00 | 대평3동 복지회관

주최: 사랑방문화클럽

후원: 성남시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미당

다문화 생활예술 아카데미

미술 & 한자공예

주최: 성남문화재단

후원: 성남시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미당

풍선이 소리바람

2015. 5. 22(금) 14:00
산성공원 놀이마당

주최: 성남문화재단

후원: 성남시

2015 사랑방문화클럽 한미당

S.A.F

성남어쿠스틱페스티벌

주최: 성남문화재단

후원: 성남시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미당

Open Art Festival I

五월에... 詩書畫展

주최: 성남문화재단

후원: 성남시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미당

문화클럽 낭만파랑

2015. 5. 23(토) 19:00 | 율동공원 야외공연장

주최: 성남문화재단

후원: 성남시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미당

분수음악회

"합창의 밤"

2015. 5. 23(토) 20:00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주최: 성남문화재단

후원: 성남시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미당

분수음악회

"추억속으로... 고고씽"

2015. 8. 29(토) 19:00 |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

주최: 성남문화재단

후원: 성남시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미당

프라이밍밴드 I

2015. 8. 29(토) 19:00 | 아담의 장장

주최: 성남문화재단

후원: 성남시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미당

오리돌 문화 축제

낭만파랑

2015. 8. 29(토) 19:00 | 오리공원 (구리동 주공앞)

주최: 성남문화재단

후원: 성남시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미당

여름이 노래하고 夏去! 가을이 춤 추래 秋來!

공연참가물결 리무노스(핑크스타일), 분당요물클럽, 세실기타올라맨고, 오카리나성남마을, 자율학습(교사밴드)

2015. 8. 29(토) 19:00 | 큐브플러자 이벤트광장

주최: 성남문화재단

후원: 성남시

2015 사랑방문화클럽 한미당

커피와 음악이 있는 살롱콘서트

'포크?'

포~크!

2015. 5. 30(토) 17:00 ~ 18:30
큐브사랑방

주최: 성남문화재단

후원: 성남시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눈”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국악 축제

2015. 9. 4 (금) 19:00
성남중앙공원 야외공연장

공연팀: 가람합창, 천하무적남자단, 이현준-무용단, 차미그를, 불의호전, 가미문화회, 동대사합창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가을밤에 보내는 음악편지

2015. 9. 5 (토) 19:00
성남중앙공원 야외공연장

공연팀: 가람합창, 천하무적남자단, 이현준-무용단, 차미그를, 불의호전, 가미문화회, 동대사합창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시네마 콘서트

“영화, 음악에 날개를 달다”

2015. 9. 11 (금) 19:30
성남아트센터 앞상설사티아

공연팀: 가람합창, 천하무적남자단, 이현준-무용단, 차미그를, 불의호전, 가미문화회, 동대사합창

2015 동두천군 문화재단

분수음악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대와 춤을”

2015. 9. 19 (토) 19:00
성남아트센터 야외공연장

공연팀: 가람합창, 천하무적남자단, 이현준-무용단, 차미그를, 불의호전, 가미문화회, 동대사합창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반짝 반짝 공예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2015. 10. 31 (토) 12:00~16:00
큐브사랑방 앞

주최: 성남문화재단

주관: 공예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후원: 성남시

* 무료공예체험
- 매듭 팔찌 - 리본 머리끈, 머리띠
- 도자 메모꽃이 - 스톤아트(반지)

* 헬로카봇공연
티켓 지참자에 한하여(7세이하 부모동반)
선착순 체험행사 참여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찾아가는 사랑방축제

2015. 10. 7 (수) 18:00
숯골문화광장

공연팀: 박숙홍(동부문화예술제), 한여울, 채지혜(일리향상), 동서문대학교 연가예술과, 조영준(연 - 파레스)의 합창단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문화클럽 낭만마당

2015. 9. 19 (토) 17:00
율동공원 야외공연장

공연팀: 고은소리 / 포명송 / 기타돌림 / 아리솔 / 툼돌 / 역시돌사람

서곡: 풍류MBC - 김명미(가)명송, 유나, 신동하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노래로 만나 우리

2015. 10. 17 (토) 18:00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공연팀: 가람합창, 천하무적남자단, 이현준-무용단, 차미그를, 불의호전, 가미문화회, 동대사합창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연가 예술인 한마당

2015. 10. 17 (토) 18:00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공연팀: 가람합창, 천하무적남자단, 이현준-무용단, 차미그를, 불의호전, 가미문화회, 동대사합창

2015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Open Art Festival II

2015. 10. 17 (토) 18:00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공연팀: 가람합창, 천하무적남자단, 이현준-무용단, 차미그를, 불의호전, 가미문화회, 동대사합창

아홉 살의 사랑방문화클럽,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방이 걸어온 길, 그리고 가야할 길을 백만기 초대위원장에게 묻다

인터뷰이_ 백만기 초대위원장 | 인터뷰어_ 김형미 시민작가



〈사랑방문화클럽〉이 출범한 지 올해 9년이 되었다. 햇벌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커지는 법. 사랑방 역시 덩치가 커진만큼 취사해야 할 부분도 커지고 있으며 내년 10주년을 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사랑방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지... 〈사랑방문화클럽〉 초대운영 위원장이고 현재 〈U3 A BUNDANG, 아름다운인생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백만기 씨를 만나 사랑방의 히스토리와 비전을 들어보았다.

맨땅에 헤딩, 열정만으로 시작한 사랑방

저는 이미 문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 중 한 사람이 문화인들의 모임이 있으니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저의 관심분야이며 활동분야이니 자연스레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생활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시작하게 된 것이 〈사랑방문화클럽〉의 모태인 거지요. 초창기 때에는 〈사랑방문화클럽〉 관련해서 3번 교육을 받아야만 했어요. 〈사랑방문화클럽〉은 문화의 불씨이며 동호인들끼리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생활예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관심있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사랑방이 지금으로부터 9년전, 5월 18일 한국학중앙연구소에서 창립총회를 열었어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추대가 되어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문화기획부에서 근무하던 박승현 부장과 공감을 형성한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경제적 자립을 했더라도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니어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한 후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취미도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요. 시니어들의 로망 중 하나가 약기를 다루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로 TV를 시청하게 되거든요.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설문조사에서 하고 싶은 일 1위가 여행이고 2위가 자원봉사인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7%밖에 안되더라고요. 이런 시니어들을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해야하는데 무엇이 있을까 하던 고민 중에 〈사랑방문화클럽〉이 시니어들을 위한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생의 2막은 삶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는 날

인생에는 두 가지 날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태어난 날이고 또 하나는 왜 이땅에 태어났는지 아는 날이지요. 태어난 의미에 대해 알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방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방문화클럽〉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윙복함장르는 시대의 요구

아무리 잘하고 있는 기타 동호회가 있다하더라도 기타 연주만 계속 들으면 지루한 감이 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기타에 우쿨렐레나 플루트가 있으면 서로 돈보일 수도 있고 악기연주가 강조될 수가 있겠지요. 사랑방 1대에는 개별클럽을 지원했지만 2대부터는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클럽을 지원하자하는 의견을 모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어떤 무대이건 이종(異種)의 악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최근 숭골광장에서 이루어진 축제에서 바이올린과 비보잉이 그런 시도였던 것 같고요, 그런 시도는 앞으로도 일반화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컬래버레이션, 윙복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애로사항인 공간 마련, 숙원해결

사랑방 일을 하면서 지역공동체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게 되었는데요. 연습공간, 발표공간, 강사해결 등이 더라고요. 강사같은 경우는 자체해결 해야하는 문제이고 공간은 사랑방에서 도와줘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내는 일을 시작했어요. 카페, 교회, 병원 등의 공간을 사랑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했지요. 그 과정에서 구미동 소재의 모 공연장을 양도할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계처리의 어려움에 봉착해 접을 수밖에 없었죠. 또한, 외부에 있는 공간을 사랑방 1호점, 2호점 식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오히려 성남아트센터에서 공간마련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일 것 같았고 회의감과 자성적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성남아트센터 내에 사랑방회원들을 위한 공간 마련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랑방문화클럽>을 알리기 위해 성남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아트뷰'에 사랑방 홍보기사를 썼어요. 지금은 미술관으로 전체공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 큐브 미술관 공간에 사랑방 연습실을 마련해서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이후에는 시민사랑방, 양상불사랑방, 큐브 사랑방이 마련되었죠. 물론 시민회관이 없어지면서 시민사랑방은 현재 사라진 상황이지만요. 사랑방 회원들을 위한 공간마련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립, 자존, 자주정신이 필요한 사랑방문화클럽

<사랑방문화클럽>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재단이 지원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결정을 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독립적인 구조였죠. 그런데 현재는 의존도가 높아졌어요. 이는 사랑방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랑방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의 지원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남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도 사비를 들여 실내악과 전시회를 열었거든요. 관객들도 적극적이었고요. 2006년에 성남문화재단이 들어서면서 이후, 사랑방이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자주적 주인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돕는 자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회원들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방 운영진들은 양질의 회원들이 사랑방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서일까? 재미가 없어서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쇼가 아닌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해

지원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문화기획부 직원들에게 '남한테 보이는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따져 묻기도 했어요. 의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빈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축제는 사랑방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가령 시장님이 사랑방에 들어와 함께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내빈으로만 참여하고 재단과 사랑방이 거기에 부합하는 것은 좀 더 고민해야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사랑방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회원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합니다. 구경꾼으로 존재할 것인지, 남이 하고 있는 일을 수동적으로 보고 즐기는 단순한 'enjoyer'로 존재할 것인지!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사랑방 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방, 그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방문화클럽>,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체이고 우리가 협력자인 마인드로 리프레쉬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맞이하며

유상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지난 11월 25일 활동보고회를 끝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의 2015년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문화공헌프로젝트」, 「사랑방 문화클럽축제」를 치렀고, 비록 시민사랑방이 아쉽게도 폐쇄되었지만, 2곳의 사랑방 공간을 운영 하며 <클럽데이> 등 여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권의 생활문화네트워크를 <사랑방문화클럽>이 주도하여 그 기초를 다진 것과 일본과 네팔의 생활예술인들이 함께 한 자리를 가진 것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에게는 매우 값진 경험이자 멈추지 않은 지속적 활동과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9년을 돌아보면, 매년 이 맘 때는 늘 비슷한 감정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마구 돌던 회중시계 바늘이 갑자기 ‘딱’ 멈추어 선 느낌이랄까? 한창 연극에 빠져 지낼 때 막공(마지막 공연)을 마치면 항상 가슴 한 켠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허탈함? 물론, 이런 감정들은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하는 많은 분주한 일들로 금방 사그라들곤 합니다. 다시 긴장감을 가지고 장거리 땀박질의 출발선에 곧 서게 됩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이 감정적, 실행적 반복이 내년 2016년에는 10번째가 되는 해가 됩니다. 내년 2016년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가 출범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재단의 입장에서, 사랑방문화클럽의 입장에서 예년과 다른 매우 특별한 한 해입니다.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의 본격적인 시작과 발전을 지켜봐 온 제게는 아마도 가장 애뜻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이라는 특별한 의미의 마디에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는 이제 다른 새로운 마디를 만들 차비를 서서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은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가올 미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는 <사랑방문화클럽>, 성남문화재단 그리고 제게도 똑같이 해당될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에게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는 종로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을 종로로 2006년부터 총 3단계 1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유별난(?) 사업입니다. 이제는 초반보다 '단계적'이라는 의미가 많이 희미해졌지만 분명한 것은 계획상 2020년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의 마지막 해가 됩니다. 물론, 2020년이 지나도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는 지금처럼 계속 지속하며 존재할 것이라 믿습니다. 단지 그때가 되면 지금과는 달리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의 운영이 <사랑방문화클럽>이 직접 중심으로 주도하는 네트워크라는 점일 것입니다. 이는 강렬히 희망하며, 요구하는 바람이자 또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당위적 미래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2016년입니다.

2016년에도 예년과 같이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 등 주요활동은 지속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만, 1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다채로운 새로운 활동들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사업 단위의 활동들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사랑방문화클럽>의 결코 멀지 않은 새로운 미래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들을 서둘러 챙겨야 할 듯 합니다. 정부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성남시에 설립하는 일,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를 비롯한 성남시의 다양한 생활예술 활동들이 안정되게 펼쳐지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약속하는 '성남시 생활문화진흥조례'의 제정,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여 생활예술 활동의 시민 자치력을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역별 네트워크로의 분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의 탄탄함과 체계성을 성취하는 것 등 예년보다 더욱 중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강산도 바뀐다는 10년의 끝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 조심스럽지만 2016년은 그런 한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분들과 함께 한 지난 9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가치있고 소중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몇 줄의 글로써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가족과 같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담당자에게 티끌없는 큰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의 새로운 전환과 그 출발을 기대합니다.

프로젝트북을 마감하며

프로젝트북 시민작가들의 이야기

〈조여일 시민작가〉

프로젝트북과 함께한 지 올해로 삼 년째다. 그동안 즐거웠고 신명 났다.

지역문화 생활예술인들의 힘은 대단했다. 그 힘은 성남시와 문화재단과 〈사랑방문화클럽〉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시민과 함께할 때 더욱 크다는 걸 그들의 공연을 보면서 알았다. 그들의 가장 큰 힘은 시민= 관객이다.

지역문화 활성화의 선두에 있는 〈사랑방문화클럽〉 클럽회원들! 그분들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공연과 축제를 내년엔 지역 곳곳의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훌륭한 공연도 관객이 없으면 소용없다. 더 넓은 장소에서,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서, 지역 곳곳의 남녀노소가 쉽게 올 수 있는 장소에서, 성남시 예술인 브랜드 〈사랑방문화클럽〉 축제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랑방문화클럽이 됐으면 좋겠다.

프로젝트북과 관련해 많은 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김형미 시민작가〉

'잃어버린 지평선(Lost Horizon)'의 저자 제임스 힐튼은 작품 속에서 티베트 불교를 바탕으로 동양에 대한 이국적 호기심을 가지고 불사(不死)하지 않고 영원불변한 신비의 도시 '상그릴라'를 탄생시켰다. 삶이라는 것이 덧없고 유한하기에 그가 꿈꾸는 상그릴라는 이상향에 불과하지만 사랑방이건 그 무엇이건 열정이 있는 삶이라면 언리미티드한 상그릴라를 이미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열심히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성의 시간은 있지만 바쁘게 살아왔던 한해였다. 이제 忙中閑, 動中靜의 시간을 가져도 될까?



〈이은영 시민작가〉

아홉 수를 타는 것일까? 올 한 해 유난히 나 자신 스스로에게 ‘행복한가?’ 자문해 왔던 것 같다. 목적지에 달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던데 난 소소한 행복을 행여 사소하다 무시했던 건 아닌지... 언제부터인가 11월이 다가오면 산적해있는 일들을 마무리 하느라 제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도 또 반갑게 새해를 맞이하지도

못했다. 내년 이맘 때에는 나도 일상 속에서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올 한 해 나에게 또 다른 경험을 선사해 준 프로젝트북과 함께 동행해주신 시민작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 지수야! 엄마가 늘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두드리느라 제대로 흡족하게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사랑해. 다음 주에는 꼭 놀이터에서 줄넘기 같이 하자.”

〈김미아 시민작가〉

올 한 해는 개인적으로 무척 바쁘고 분주한 한 해였다. 계절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많은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생겨났고, 숨을 허덕거리며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한 해였다. 또한 새롭게 사랑방 프로젝트북 작가로 투입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아졌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가며 활동한 2015 〈사랑방문화클럽〉. 여러 취재 기사들이 지난 1년의 결실을 맺으면서 드디어 프로젝트북으로 나온다니 취재 원고를 마감하면서 느끼는 감회가 새롭다. 특히 제1회 〈사랑방문화클럽〉 창단부터 시작하여 함께 전시팀의 클럽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활동해 온 〈사랑방문화클럽〉이 벌써 내년으로 10주년을 바라보고 있으니 더욱 느끼는 감회가 새로운 따름이다. 모두 애쓰시고 수고하신 분들의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10주년을 맞는 〈사랑방문화클럽〉이 앞으로도 더욱 새롭게 거듭나고 힘차게 전진하길 바란다. 바쁘고 숨 가쁘게 지나가는 매일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개인의 삶에는 많은 감동과 희로애락이 있고 자연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그 속에서 애쓰고자 수고하는 나의 삶이 보람되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련다. 〈사랑방문화클럽〉 시민작가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함께 수고 많으셨다고, 마음으로나마 작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진희 시민작가〉

올 한 해 많이 바빴다. 괜히 많은 일에 집중을 못해서 안타까운 시간이었다.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 나에게도 있었다.

〈사랑방문화클럽〉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를 다니면서 취재도 했지만 지역 주민으로 그런 활동을 같이 한 기쁨은 무엇보다 컸다.

즐기면서 그런 활동을 쉬지 않고 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그런 분들 옆에서 예술과 문화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나는 무엇보다 즐거움의 시간이었다.



〈최승은 시민작가〉

생은 낮선 무대 위에서 익숙지 않은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다.

어차피 무대라면, 노래해야 한다면 웃으며 당신과 함께 그 무대에 서고 싶다.

인터뷰에 친절히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사랑방문화클럽, Go For It~





2015 사랑방문화클럽의 자랑스러운 일꾼들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

위 원 장 | 정천석

부 위 원 장 | 박봉덕, 장계석

운 영 위 원 | 김민서, 김진숙, 김형미, 박미해, 선순남, 신용배, 안예환
양석관, 이철문, 이희일, 조현숙, 최희서, 하미영

〈사랑방문화클럽〉축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 정천석

기획팀장 | 신용배

전시체험팀 | 박봉덕, 박미해, 서옥화, 선순남, 조현숙

경기·인천생활예술클럽한마당팀 | 장계석, 곽윤부, 김귀옥, 양희정, 최희서, 한영숙

사랑방퍼레이드팀 | 하미영, 박유진, 신미경, 양석관, 이희일, 이삼용, 한영애

찾아가는 사랑방축제팀 | 박숙중, 김승경, 황병진

홍보·운영팀 | 김형미, 김민서, 안예환, 이철문

전시 및 개막 퍼포먼스 감독 | 유지환 작가

사랑방퍼레이드연출 | 임형수(용인대학교 교수)

페막대동제 | 김해숙, 장은정(춤추는 여자들)

